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 306 호

금주 법구

눈 덮인 잣나무 저 질푸른 자태
마지막 남은 꽃이 서릿발에 떨고 있네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함이여
발 딛는 곳마다 이 도량이네

-담연거사-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상월동
실상선원
041)734-2680
천축사 대전 논산시 한산면 숭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출가-재가 법륜 두바퀴

'종교적 신앙과 제례의식을 같이 하는 동질적인 사회집단'을 의미하는 교단(敎團)을 불교에서는 승가(僧伽, samgha)라고 부른다.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만을 일컫는 말이 된 '승가'는 초기에는 출가수행자인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만 아니라, 재가신자인 우바새(優婆塞: 재가 남성신도)·우바이(優婆夷: 재가 여성신도)를 포함한 4중(四衆 즉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종단 운영에 재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부대중론을 펼쳐 재가 불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대스님은 7일 봉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회에서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기획실장 성혜스님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단에서 재가자들의 건의를 사심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대스님은 재가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매달 만나 종단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종단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대사회적인 사안에 대해 재가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어른의 이 같은 시각은 출가대중의 파트너로서 재가대중이 법륜(法輪)의 한쪽 수레바퀴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재가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불교의 외호세력으로서 불교 중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불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기획실장 성혜스님의 사임은, 종단에서 처음으로 재가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재가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재가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 등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 때 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신도회 회장·부회장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 역시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을 계기로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 전환과 재가자들의 신행혁신 및 참여의식 제고가 이루지길 기대해 본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장 군 죽 비

◇조계종·정화회의 법률공방 계속. 언제까지 중생만사를 상대로 김(訟)을 걸어야 할까. (3면)

◇참선 수행하는 데 선어록 읽기는 어떤 소용이 있을까? 답을 가리키는 데 왜 손가락을 보냐고? 헛손질 하니까. (7면)

◇종교계 자정·개혁운동 거세게 일고 있다. 종교는 제4차 산업? 그 이상 이런 비아냥은 없기를. (9면)

◇경주 남산 불상 88기 디지털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처님, 갈수록 흥포화되는 사이버 세계에서도 대자비를 베푸소서. (16면)

불교복지 '희망 보인다'

조계종 '자원봉사 새물결 운동'
천태종 '1사찰 1그룹홈' 전개
진각종 대규모 복지타운 계획

불교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한 전국 규모의 운동이 펼쳐진다. 또 대규모 불교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고, 노인복지 완성을 위한 사찰 직영의 '노인 그룹홈'이 첫선을 보이는 등 불교복지의 새 이정표를 세울 굵직굵직한 행사와 사업이 올해 진행된다.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은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오는 3월말부터 제주도를 출발해 전국 주요도시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의 (가칭) '불교자원봉사 새물결 운동'을 전개한다. 이 행사는 제주에서 시작돼 부산-대구를 잇는 영남지역과 광주-전주를 잇는 호남지역을 거쳐 대전-수원-서울로 이어지며, 강원지역은 강릉-춘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내용은 수립단계지만 복지재단은 이들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복지시설, 사찰, 단체들이 연합해 캠페인이나 자원봉사연합체 발대식, 전시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해 불교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5월 봉축주간 바로 이전 일주일간을 '불교자원봉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봉축행사 때 '자원봉사 부스'를 마련, 지방을 거쳐 올라온 열기를 모음으로써 명실상부한 '불교자원봉사 기틀'로 승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각 지역 사찰, 단체, 시설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한 불교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불교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운학)은 올해를 노인복지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1사찰 1그룹홈'의 첫발을 내디딘다.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부산 삼광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이 사찰 인근에 지역의 불우노인 4-5명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0년 내에 불교계는 노인복지에 관한 한 최고의 복지단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각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2002년에 '불교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부지선정 등 사업실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일대에 50만평 규모로 들어서게 될 종합복지타운 (가칭) '농림촌'은 노인·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실직자 등 모든 분야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지시설로 불교사회복지의 전형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복안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경주 경마장 백지화

예정부지 사적지정

5년 넘게 문화재 보존과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경주 경마장 건설이 백지화되고 예정 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된다.

문화재위원회는 8일 1·3·6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경주시 손곡동 및 물천리 일대 경마장 예정부지 가운데 보문·화산간 지방도로 구간을 제외한 26만 5천여 평을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발굴 결과 신라시대 산업생산활동과 생활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 및 유물들이 확인돼 역사적·학술적 면에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문화유산 보존이 개발보다 우선함을 확인한 것이다. 최영희 3분과(사적) 위원장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재건축 예정지도 사적으로 보존된다.

그러나 경마장 건설을 추진했던 경주시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풍납토성내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권형천 기자



◇안거를 마친 스님들은 산사를 내려와 또다른 수행길에 오른다. 지난 7일 동안거를 끝내고 만행에 나서는 스님들. 수행정진에 어찌 끝이 있으랴! 수덕사=고영배 기자

80여 선원 동안거 해제

경진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이 7일 해인총림선원을 비롯한 전국의 선원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해제법요식에서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과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태고총림 선원장 지허스님 등은 법어를 통해 "의심이 살아 있으면 해제를 해도 해제가 아닌 것"이라며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해제법어 3면)

이번 동안거에는 국내 비구·비구니 선원과 하와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 80여 선원에서 1700여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이고 수행정진했다.

정성운 기자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

조계종·현대아산 협의… 내달 4일 신계사터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와 산신제가 다음 달 4일 신계사터에서 봉행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현대아산 김고중 부사장은 7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신계사터 현지에서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를 함께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법회 봉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말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회를 봉행할 경우 "신계사와 인연이 있는 송광사와 월정사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며 "규모는 100~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계사는 한암스님이 주석하며 수행했으며, 현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의 은사인 효봉스님이 출가한 사찰이다.

이날 만남에서 조계종과 현대아산은 신계사 복원 비용 마련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만나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현대아산은 복원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며,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이다.

정성운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법률 화상상담 무료서비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에 불과한 법률에 대한 무지로 겪게 되는 불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오는 17일부터 교계 최초로 무료화상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불자들은 누구나 민·형사 등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 화상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담은 다년간의 법률상담 경험을 불자들을 위해 회향하겠다는 이종오 변호사의 원력과 휴단시설이 합쳐져 클릭 한 번으로 법률적 고민을 속시원하게 풀 수 있습니다.

△상담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상담 변호사
-이종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은평·중랑구청 등 무료상담)
△상담 분야
-민·형사 등 모든 법률분야



◇무료화상법률상담 실시를 앞두고 이종오 변호사가 시험상담을 하고 있다.

△운영 체계
-예약접수제로 운영.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개별통지. 무료화상법률상담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

△접수 방법
-무료화상법률상담 사이트(kr.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www.buddhapia.com),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buddhanews.com), 도서출판 여시아문(www.yosamun.com) 등을 통해서도 가능. 문의 전화 : 02-722-4162 (김중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천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 설

불교계 변화와 자정 계기로

도박 사건에 연루돼 그 동안 재가 연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던 성혜스님이 조계종 기획실장 소임을 물러났다. 재가연대는 지난 해 10월 성혜스님이 기획실장으로 임명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 사찰, 관람료 사찰 등 주요 사찰에 대한 감사와 사찰토지처분 시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 국법과 종법으로 처벌받은 스님이 임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재가연대의 주장이었다. 마침내 지난 6일 성혜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사표를 냈고, 원장은 사표를 수리했다.

재가자들이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 인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흔치 않은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성숙한 불교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총무원과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주요 소임자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그래서 혹 흠결이 있었다면 참회하는 절차를 거치고, 소임자로서의 계획과 소신도 밝힐 수 있다면 소임을 맡는 당사자나 불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불교 안에서 적든 크든 소임을 맡기 마련이다. 불교 안에서 소임을 맡을 자격의 첫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다. 대중과 화합할 수 있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의 확보가 첫째이다. 능력은 그 다음이다. 특히 종단의 중앙종무기관과 같은 곳의 소임자에게는 책임과 권한이 더욱 큰 만큼 화합을 위한 하심과 도덕성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최근 언론과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번 조계종 기획실장의 사퇴를 계기로 스님들과 재가자들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또 재가연대에서 제안한 '공직청규'의 제정, 고위 공직 임명시 검증 절차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

도심사찰 문화포교 나서자

사찰 안에 뮤지컬 전용극장이 문을 열었다. 지난 해 일산에 문을 연 여래사의 신시씨어터라는 곳인데, 3일 개관 기념 공연을 가졌다. 일산의 명소가 하나 탄생한 것이다.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는 '난타' 전용극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여래사는 이곳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연극과 가족극을 공연하려는 극단에 대관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찰은 부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며, 스님들과 신자들이 수행정진하는 곳이다. 사찰의 고전적인 기능은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 불자들의 전용공간은 아니다. 사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담은 나지막해서 경계를 나타낼 뿐이다. 우리 불가의 선조들은 이렇듯 배타적인 영역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편가르기 의식을 물리쳤던 것이다.

여름철이면 전국의 유수한 사찰에는 4~5일의 일정으로 마련된 수련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빈번하다. 꽉 짜인 일상에 쫓기다 잠시라도 산자수명한 사찰에서 세속의 일을 놓아버리고 자기를 돌아보자는 뜻이다.

오랜 역사와 수행자의 향훈이 배어있는 산중의 사찰이 샘물 같은 곳이라면, 도심의 사찰은 여러 모양을 가져도 무방하다. 오히려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모양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래사처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는 것도 하나의 본보기이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사암연합회에서는 1사찰에서 1복지시설을 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사암연합회에 소속한 모든 사찰들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찰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사찰에서 지역의 특성과 사찰의 역량에 맞는 새로운 사찰상 정립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많으리라고 본다. 각 종단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찰상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새로운 사찰상 정립을 위한 연구와 지원은 종단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행환경 보존" 불심 뭉쳤다

선원수좌회 가야산 관통로 저지 결의

한라 · 지리산 살리기 시민단체와 연대

불교계가 가야산 · 한라산 · 지리산 지키기에 나섰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는 7일 경상남도가 추진중인 가야산 순환관통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가야-봉산구간)가 가야산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도로개설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의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2천여 스님들의 대표자 모임인 전국선원수좌회는 5일 해인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야산 내부를 관통하는 이 관광도로가 개설되면 대형 관광단지가 조성돼 수행 · 문화환경의 훼손은 물론 아름다운 홍류동 계곡의 수질오염 등 생태계의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해인사(주지 세민)도 6일 총회를 열어 정원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야산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 ·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이 도로의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이달말 발족 예정인 가운데 본사 차원의 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라산케이블카설치반대 제주범불교대책위'(위원장 광조스님)는 6일 제주도민연대와 함께 제주도의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강행 방침과 관련, 케이블카 추진 계획안의 환경부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리산살리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함께 남원시가 지리산자락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과 대형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16일 종교계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100일 합동기도와 백두대간 도보순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저지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일련의 환경보존에 대한 불교도들의 뜻을 모아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파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깊어가는 태고종 내분

중앙종회 13일 총무원장 불신임안 논의

총무원 "절차 안갖춘 불법회의" 무효선언

종연 총무원장의 자격시비로 불거진 태고종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 교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가야산 유사종교단체 가입설'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밝힌 종연 총무원장의 해명성 담화문<본지 305호 3면 기사 참조>이 나온 직후인 3일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남파스님은 일부 종회의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종연 총무원장의 거취문제를 다룰 임시종회 개최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 13일 오전 11시 순천 선암사에서 열리는 제80회 임시종회의 안건은 △총무원장 불신임 요구 청원서 처리 △총무원장 출마후보 종회의원 자격자동상실에 따른 제척사유 동의안 처리 △기타 등이다.

그러나 총무원은 "종헌종법상 중앙종회의 소집은 의장이 총무원장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며 절차상의 결격사유를 들어 13일의 임시종회가 불법임을 주장하고, 7일 전체종회의원에 '13일 임시종회가 불법'임을 통지했다. 또 8일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확대 종무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임시종회를 강행할 시 원천봉쇄도 불사할 것을 결의했다(8일 현재).

이경숙 기자

기획실장 성혜스님 사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5일 오전 총무원 기획실장 성혜스님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기획실장은 곧 임명할 예정이다. 성혜스님은 이날 오전 사표를 제출했다.

성혜스님의 사퇴를 주장했던 재가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에는 재가불자들의 건의가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며 "이번의 일이 이런 전통을 되살리고 교단 운영에 구조적으로 반영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동국대 불교대 신규 교수

1명만 임용…3명은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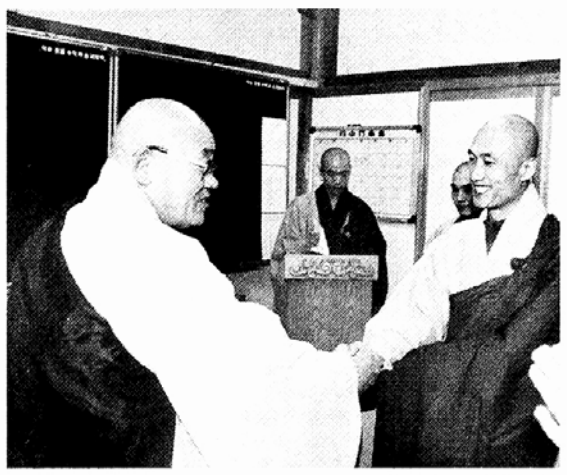
불교대학 신규 교원 임용과 관련, 조건부 승인을 결의했던 동국학원 이사회는 8일 5인 특별위원회를 열어 종교학 분야 1명만 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분야의 교원 임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선근 법인사무처장은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불교학과 초빙 예정자인 유식학 전공(묘주스님), 인명학 전공(우제선),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중국선사상 전공(진월스님) 분야의 3인에 대해서는 초빙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2001학년도 교원 초빙에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교문화대 종교학 전공(윤영해) 분야는 초빙 과정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초빙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송석구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영배스님은 "불교대학의 경우 불교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을 초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수덕사 승가대 첫 졸업식

수덕사 승가대학(학장 법장)은 7일 제1회 졸업식을 갖고, 졸업생을 첫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학장 법장스님은 "경허스님의 선교 합일정신을 계승, 선양해 부단없이 정진하자"고 졸업생들에게 강조했다.

고영배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다함께 나누면…

불자용 수의 · 장엄구 나온다

21일 불교장의용품 발표회

불자수의및 불교장의 장엄구가 새롭게 개발 보급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국불교장의연합회, 대한불교연화회는 2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불자용 수의와 장엄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되는 불자용 수의는 95년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불상과 다라니가 찍힌 옷가지 30점을 기본자료로 2년간 연구 분석하여, 현대적 수의로 만든 것이다. 또 반야용선(관)도 삼바라밀 정진도등 불교적 세계관을 상징화하는 장엄물로 제작했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불자들의 신앙적 자긍심과 일치감을 높이기 위해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장의용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평생의례가 중요한 만큼 일반 사회차원으로도 불교장례용품 사용을 확산시켜 포교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2)733-7278 김원우 기자

조계종 20기 행자교육원

내달 1~23일 직지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0기 행자교육원을 3월 1일부터 23일까지 직지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55명, 여행자 136명 등 총 291명의 행자가 지원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군승교육

조계종포교원은 군승후보생 수련회와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을 실시한다. 군승후보생 수련대회는 16일~19일 해군 2함대 해웅사에서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의 '종단의 이해'와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 방귀희씨의 '불교와 상담' 강의, 의식설법 실수, 군법당 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2001년 임관예정 예비군승 입대전 교육은 19~21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불교상담을 주제로 상담의 실제, 군내 선도활동에 필요한 상담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두식 기자

2001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최고의 불교학교수님들이 펼치는 주옥같은 강의로 불교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 최봉수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현재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인터넷 불교대학 책임교수.
저서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원시불교와 초기대승불교 사상》《근본불교의 가르침》 외 다수.

☞ 장위욱
부산대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저서로 《해동고승전연구》《불교학개론 강의실》《대승기신론 이야기》 외 다수.

☞ 허경구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 불교학 박사.

☞ 김사업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불교 전공.
일본 국립 경도대에서 인도철학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초빙교수
월운 스님, 혜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 넉넉한 교육환경
학년별 강의실과 큰법당, 참선실 등 넉넉한 교육신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층 1만 여권의 불교학술 및 교양도서는 교수님들의 명 강의와 더불어 폭넓은 불교공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불교계 각계 각층에 포진한 대원불교대학 동문들과 만나 보십시오 생생한 불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동 · 하계 수련대회와 전국순회 강연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열린불교, 대중불교의 실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 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포교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2년제 야간전문 불교대학이다. 1972년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원정사를 설립하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자 「自我를 發見하고 地上에 樂園을 이룩하자」는 설립이념 아래

☞ 1972년 대원불교강원(2년제)을 개설하여 원전강독을 시작하였다.
☞ 1974년 대원불교교양대학으로 개칭하여 법사과와 통신과를 신설하다.
☞ 1982년 대원불교대학으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출가, 재가 사회 각급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교대중화운동의 기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 1997년 미국지역에 대원불교대학 분교(워싱턴, LA)를 설치하여 국제포교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지식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의식수련 등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전당이다.
☞ 2000년 대원도서실 개관.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증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목어

연꽃사고



고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나라 서울인 연경(燕京)에 가 있을 때 인연을 맺은 여인이 있었다. 다시 고려로 돌아오게 되어 헤어질 무렵 충선왕은 이별의 정표로 연꽃 한 송이를 그녀에게 주었다. 이별의 설움에 울던 그녀는 연꽃을 받은 심경을 시로 읊었다. "처음엔 붉디붉다가도 꺾인지 며칠 안되어 사람 따라 시드네."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게 한 그 이별의 순간에 충선왕은 왜 연꽃을 선물했을까?

주렴계(周廉溪)의 애련설(愛蓮說)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화는 숨은 이(者)며, 모란은 부귀한 이(富貴者), 연꽃은 군자(君子)이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물들지 않고, 속은 비었으되 겉은 곧으며, 덩굴지거나 가지치지 않고, 깨끗하게 씻었어도 요염하지 않으며, 꼿꼿하게 심어져 멀어질수록 향기롭고 좋은 눈빛으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가지고 놀만큼 업신여길 수 없다.

나라를 빼앗긴 충선왕이 그 와중에 사귄 여인과 헤어질 때의 마음을 요즘의 정리에서 읽을 때 눈에 선하게 박히는 곳이 바로 '덩굴지거나 가지치지 않는다(不蔓不枝)'는 내용이다.

덩굴진다는 것은 담쟁이나 나팔꽃, 덩굴장미들처럼 취미나 이해가 통하는 자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것을 말하며, 그런 사람들끼리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패거리사고라 한다. 가지친다는 것은 누구와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나홀로 똑똑이라는 말이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해 버리는 것은 나홀로사고라 할 수 있다.

원나라의 침입때 서로의 의견과 힘을 중도, 화합적으로 잘 통합하지 못하고 패거리사고와 나홀로사고가 횡행하도록 방치하므로써 통한을 삼키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국땅을 넘나들어야만 했던 처지와 그 처지를 잠시나마 잊고 사랑에 빠졌던 자신에게 충선왕은 연꽃을 준 것이리라.

요즘의 우리 사회에 패거리사고가 횡행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 덩굴지거나 가지치지 않는 연꽃의 사고가 소중한 때이다.

법현(종단협의회 사무국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경진년 동안거 해제법어

그대의 남은 생명은 버린 뒤에도 살아나는가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앞 부분 생략)

해제는 해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선지식과 거량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도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 무리의 도적 중에 진짜 도둑도 있고 좀도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철 공부한 힘으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좀도둑인지를 가려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철 밥만 축내고 죄복만 닳게 한 허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大智如愚人莫測이라 收來放去亦非拘로다.
廻頭借問傍觀者하노니 棄汝殘生活也無아.
큰 지혜는 바보 같아 헤아릴 이 없나니
거두고 놓는 일에 구애될 것 없도다.
고개 돌려 곁의 사람에게 물어보노니
그대의 남은 생명은 버린 뒤에도 살아나는가?

큰 웃음 한 소리에 하늘 땅이 깜짝 놀라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앞 부분 생략)

육조 스님은 전법제자 남악 회양을 보고, "네 밑에 말 새끼 한 마리가 나와서 천하 사람을 밟아 죽일 것이다"고 예언하셨는데, 말 사끼는 바로 남악의 제자인 그 유명한 대선지식 마조도일(馬祖道一)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육조 스님은 왜 천하 사람을 구제한다든지 살린다는지 하지 않고 죽인다고 했을까? 대사이후(大死以後)라야 대생(大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육단생명(肉團生命)이 털끝만치라도 남아 있다면 불생불멸의 큰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중략)

孤輪獨照江山靜하니 大笑一聲天地驚이로다.
외로운 달이 홀로 강산을 비추는데
큰 웃음 한 소리에 하늘땅이 깜짝 놀라네.

날 가운데 백운은 공거래 함이로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 스님

青山本無表言說
大地亦無表言說
個中青山浮虛空
個中白雲空去來
청산은 본래 언설로 나타낼 수 없으며
대지도 또한 언설로 나타낼 수 없음이로다.
날 가운데 청산은 허공중에 떠 있고
날 가운데 백운은 공거래(空去來) 함이로다.

흩어져 꽃 속에 드니 참으로 못 구별하겠네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지허 스님

(앞 부분 생략)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스님의 "없다"에 몰두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다시 더 勇猛加勇猛하면 갑자기 마음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화두 하나에 용광로가 되어 녹아버리면 그때 정안종사(正眼宗師)를 찾아 뵙고 물으면 정로(正路)가 열립니다. 그 뒤로는 운거화상을 만나도 역대조사를 만나도 마치 물을 마시는 사람이 차고 더움을 저절로 알 듯 천하 사람을 만나도 시원하고 경쾌할 뿐입니다.

이것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간화참선법입니다. 천하에 대장부로 나서 이것 이상은 없습니다. 이 일이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중략)

臘雪滿空來 寒梅花正開
片片片片片 散入眞不辨
섣달 눈이 허공에서 가득 오니
차디찬 매화꽃 제대로 피었구나.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흩어져 꽃 속에 드니 참으로 못 구별하겠네.

초파일·신년만 발표 "건강과 관련없다"

조계종 혜암종정 안거법어 왜 없나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이번 동안거 해제 때는 법어를 발표하지 않았다. 99년 4월 10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스님은 해인사 원당암 미소실에 주석하며 부처님오신날과 신년 법어는 물론 동안거와 하안거 결제·해제 때마다 법어를 발표해 납자들과 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삶의 지표로 삼도록 했다.

이번 동안거 해제 법어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정예경실장 대오스님은 "올해부터는 안거 법어는 생략하고 부처님오신날과 신년 때만 법어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5대 총림의 방장스님들이 안거 법어를 발표하시는데, 굳이 종정스님께서 같은 성격의 법어를 낼 필요성을 못 느끼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종정스님의 건강과 관련해 대오스님은 "지난 년말 한때 상당히 안 좋은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양을 하실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령(81세)이고 기력이 쇠해져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면회도 사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양사 운문암에 주석하고 있는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도 이번 동안거 해제 때 법어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불갑사 조실 수산스님이 법어를 내렸다. 정성운 기자

"통일토론회 실무협의 갖자"

종단협, 조불련에 명단·일정 통보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를 위한 남측 실무협의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 31일 실무 회의를 갖자고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에 제안했다.

종단협의회는 8일 조불련에 팩스를 보내 실무협의에 나설 남측대표단의 명단을 알리고, 협의 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남측 대표단은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사회부장 일운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덕수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회정정사,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 사무국장 법현스님 등 6명이다.

종단협의회는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개최에 대한 협의는 물론 남북불교인의 상호초청 등 이후 남북불교교류에 대한 방안을 조불련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종단협의회는 또한 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 조불련의 참여도 제안하기로 했다. 조불련은 지난 1월 25일 종단협에 팩스를 보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 실무협의를 위한 종단협의회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방북단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사면 '안개속'

정화회의 상소따라 분위기 냉각
초파일 이전 '불투명' … 분리사면 대두

조계종의 사면 문제가 다시 안개 속으로 숨어들고 있다. 정화회의가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지난 1월 30일 상고했고, 총무원장 부존재 1심 재판에 졌음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3월 종회에서 종헌 개정, 초파일 이전 사면'이 불투명해졌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1월 11일 새해사업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정화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소송이 2월이면 모두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현재 중앙종회에 계류중인 종헌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사면·복권 조치를 추진해 종단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에서 소송을 계속하기로 해 정대스님으로서는 사면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 정화회의의 한 스님은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아 상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면을 하려면 상소에 관계없이 대승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종헌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종회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사면에 적극적인 재선의 한 종회의원은 "사면을 실시해 종단 화합의 계기를 만든다는 데 관심을 가진 스님(종회의원)들은 소수이다. 많은 스님들은 사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말로 종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스님은 "그래도 사면이 종단 화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분리 사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종헌을 개정해 멸빈자를 사면할 수 있는 길을 터놓되, 사면 심사 과정에서 98, 99년 종단 사태에 관련돼 있으면서도 참회·자숙하지 않는 스님들을 제외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스님은 "종단 사태에 관련되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스님 가운데 사면을 원하는 스님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사면 실시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도 "정화개혁회의에서 계속 상소하면 사면 실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집행부에서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정성운 기자

"백양사 주지 및 소임자 비위사실"이라는 제명의 괴문서에 대한 고불총림 백양사 문도회

성 명 서

대한불교 조계종 고불총림 백양사는 종단의 어른이신 서옹대종사께서 주석하시면서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 깊은 참사람 수행도량이다. 근래에 들어 조사선의 전통과 계승을 위한 '무차대회'와 '참사람 결사운동'등을 통하여 한국 전통선의 수승한 수행가풍을 이어 가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방장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총림 운영위원회, 종무회의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정수행도량의 면모를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의 명의를 도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백양사 정화위원회〉라는 유령의 익명으로 온갖 유치한 내용의 유인물이 각 사암에 유포되었다. 이에 지난 2월 2일 긴급 백양사 문도회와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본말사주지 연석회의를 갖고, 괴문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대책 위원회를 즉시 발족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괴문서의 내용은 순전히 날조된 허위였으며 주지스님 이하 각소임자들에 대하여 추호의 근거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여 사실인양 전체적으로 교묘히 음해하는 중상모략이었다. 이에 본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괴문서를 작성하여 고불총림의 전통과 화합을 깨고 전체 불교의 위상을 떨어뜨려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는, 이같은 우매한 행위에 대해 전체 승가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로 엄중 중징계함은 물론 사법처리도 불사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앞으로 문도회의,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등의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계통을 거치지 않고, 정당치 못한 익명의 문서로써 음해,중상모략하여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내용의 사실여부와는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실체가 드러나는데로 의법조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번 괴문서처럼 악의적으로 조작된 허구사실들이 마치 실제 사실처럼 잘못 각인되므로써 참사람 수행도량인 고불총림 백양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악영향이 끼쳐질 것임은 물론, 종단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염려하여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 고불총림 백양사문도 일동은 이러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승가의 본분사에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삼아, 방장큰스님을 중심으로 고불총림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한국불교계의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여 참사람운동을 통한 중생포교의 원력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이다.

불기 2545년 2월 6일

문 도 대 표 (조계종 원로의원) 수 산
대 책 위 원 장 (조계종 원로의원) 천 운

백양사 문도회, 고불총림 운영위원회, 백양사 본말사 주지회 일동 합장

일주문



남북불교 통합론 설법

법타 평불협 공동회장은 12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열린 창립 9돌 기념법회에서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을 발표했다.



KBUF아카데미 졸업식

지홍 조계사 주지는 18일 오후 2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KBUF아카데미 '제4회 졸업식'을 봉행한다.



관세음 보살상 점안

보선 해남 대둔사 주지는 7일 대웅보전에서 '관세음보살상 및 관세음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日 종교인 국토순례 참석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8일 일본 동경 묘법사에서 주최하는 한일 종교인 국토순례 행진 참석차 출국했다.



통도사로 성지순례

퇴휴 무진법장사 주지는 20일 불보종찰 통도사로 정월 성지 순례기도를 떠난다. 출발은 법장사에서 오전 6시30분.



독일 지원 수계법회 참석

혜원 한마음선원 주지 스님은 뒤셀도르프 독일지원에서 열리는 수계법회 참석차 8일 출국했다.



'업' 주제 불교사상 강좌

최봉수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불교사상강좌에서 강의한다.

인 사

불교방송 △홍사성(본부장) △구기범(경영관리국장겸 광고영업부장) △김정특(보도 · 제작방송국장 직무대리) △구태서(관리부장 겸 전략홍보사업부장) △백낙찬(기획 · 검사 · 심의역겸 특임위원) △최찬기 (기획 · 검사 · 심의역겸 특임위원) △진영조(제작부장 직무대리) △김학주(편성 · 개발부장 직무대리 겸 편성기획팀장) △선상신(정치 · 경제보도부장 직무대리) △전진수(사회 · 교육 · 문화 보도부장 직무대리) △박시하(기술부장 직무대리) △박정원(기획 · 검사 · 심의역 겸 특임위원) △박상필(포교제작팀장) △이응진(교양제작팀장) △이선희(아나운서 · 다기능역팀장) △문홍식(기술개발 · 관리팀장) △정재의(기술송출팀장)

"부모와 함께 즐거운 법회 운영"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⑤

어린이 포교 헌신

김현숙 포교사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도록 포교팀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장인 김현숙 포교사(45세)는 현재 조계사 청계사 관음정사 선재정사 등 4개 사찰 어린이 법회를 직접 지도하는 14명의 포교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여 어린이포교현황 점검 및 포교프로그램 공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1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어린이 법회가 개설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

김 포교사는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요즘 세태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단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에서도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신임 포교사 우선배치와 포교비 지급을 약속하고 있어선지 김 포교사의 의욕은 대단히 높았다.

김현숙 포교사는 교계의 알려지지 않는 일꾼으로 통한다. 김포교사는 조계사 신행상담실 상담원, 자비의 전화 전화상담원, 조계사 어린이법회 주임, 학교 심성수련프로그램 지도교사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매주 두곳의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시간에 진행하는 심성수련프로그램은 많은 보람을 준다며 습관성 가출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부적응학생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교사는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전문상담가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는 착한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절에도 가서 심성을 일깨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포교사는 1989년 조계사 불교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95년 자비의 전화 상담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심성프로그램지도교육을 96년 이수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교사대학에 재학중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전통문화행사 열어 지역인 귀의처 삼겠다"

삼광사 주지 취임 도원스님



"지역민들에게 편안한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개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일 제 7대 천태종 삼광사 주지로 취임한 도원 스님은 부산지역에서 맡은 첫 소임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초발심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심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도원 스님은 삼광사의 여러 사업과 불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산지역 불교현황 파악에 한창이다. 도원스님은 앞으로 "부산지역 타 종단의 여러 스님들을 방문해 부산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삼광사가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주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원 스님은 역대 주지스님들이 진행해온 삼광한글학교, 서예교실, 독서실, 금강불교대학 등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삼광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종단과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삼광사를 문화 · 예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도원스님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법문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사부대중이 진정 화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도원스님은 "부산 신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천태사상 연구 40년 '외길'

28일 정년퇴임하는 동국대 이영자 교수



"능력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바쁘기만 하다보니 벌써 정년이네요."

평생을 한국천태사상 연구에 바쳐온 이영자(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가 28일 정년 퇴임한다. 40여 년 세월을 불교학 연구와 후학 육성으로 외길을 걸어온 이 교수는 "부처님 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건 큰 행운이었다"면서도 "순수 천태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아쉬워했다.

60년 동국대에 입학, 불교학과 인연을 댔은 이 교수는 6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에 유학해 82년 〈한국천태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지금까지 한국 천태사상 연구에만 매달려 왔다.

"학문에 대한 욕심보다 신앙생활의 일환으로 불교 강의를 한다면 어디든 쫓아 다녔다. 그러다 조명기 박사의 천태교판 강의를 들으며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나를 천태학으로 이끌었다."는 이 교수는 〈천태사교의〉(중앙일보사) 〈한국천태사상의 전개〉(민족사) 등을 통해 천태사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온,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천태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평가 외에도 이 교수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또 붙는다. '불교여성학' 분야다. 박사 논문을 쓰기 전, 동국대 여학생 감을 맡으면서부터 불교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84년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에 이어 남녀공학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동국대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케 했다.

이후 85년 한국여성학 창간호에 실린 '불교의 여성관의 새로운 인식'을 비롯해 불교 여성문제에 대한 논문과 평론 등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솔직히 시원섭섭하다"는 이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도 여전히 바쁘다. 불교여성학 관련 글들을 모은 〈불교와 여성〉(민족사)과 강의교재를 보충해 새로 엮은 〈천태불교의 이해〉(가제 · 불지사)가 3월에 출간되기 때문이다. 순수 학술 논문들은 올 가을쯤 〈천태법화사상과 불교〉(동국대 출판부)로 묶여 나온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광덕스님 2주기 추모법회

금하당 광덕대선사 2주기 추모법회가 4일 불광사 대법당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불광법회 법주 지정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보현행원의 참뜻을 깊이 헤아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가 이뤄지도록 불광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 취임법회

서울 관문사 제2대 주지 춘광스님 취임법회가 4일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춘광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포교의 중심사찰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제6회 신행수기 시상식

본사가 주최한 제6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이 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돼 대상 임순기씨 등 7명의 수상자가 상패와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및 한마음요전)을 각각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오 총화종 총무부장,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3일 교육회관에서 정병조교수(동국대 교수) 김재일이사장(동산반야회) 이차환단장(동산포교사회)을 비롯하여 196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학장 무진장스님은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회 안내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강남구 개포3동 주공5단지 Apt.)
- 내용

첫째주 - **정병조** 박사의 육조단경 강좌	둘째주 - **권기종** 박사의 아함경 이야기
셋째주 - **인환** 스님의 선불교 산책	넷째주 - **김상현** 박사의 한국불교사상사

이 기쁜 만남…불교사상강좌

매년 2회에 걸쳐 시행하는 금번 강좌를 통해서 불교의 정수를 직접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월 26일(월) - 28일(수)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12시
- 장소 : 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 법당
- 주제 : 불교란 무엇인가?
- 강사 : 정병조 박사(본원 원장, 동국대 교수)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산실…원효학당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과정 ○○명
- 모집기한 : 2001년 3월말
- 강의과목

사기열전(**진성규** 교수 · 중앙대)	화엄경십지품(**송찬우** 교수 · 중앙승가대)
무량수경(**정병조** 교수 · 본원 원장)	법화경(**권탄준** 교수 · 동국대)

☎ (02)3411-6167~8 / 지하철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학인을 위한 지도방안

- 불교 수행을 통한 인격함양
- 바른 정체성 갖는 법사법위
- 실제 상용화 되는 불교의식
- 바른 이해를 갖는 불교교리
- 육화 법우 동산의 학습환경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교육방법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 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2월 26일까지(현재 접수중)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 - 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거사불교의 요람인 직장직능 불자회. 지난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 동일직종 연합회가 창립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직장불자회들이 직장내에서 법회를 보고 있어 신행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도법사 부재, 법회 장소 미확보, 재정의 어려움, 회원의 잦은 전출과 퇴직 등은 직장법회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최근 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실을 다지는 불자회가 늘고 있다.

직장불자회 사찰과 손잡기

한전 반야회-봉은사 등 법사 · 법당확보 숙제 해결

상조회 조직등 내실 다져

한전 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3일 강남 봉은사 대웅전에서 지도법사 지오(봉은사 교육국장)스님의 집전으로 신년하례를 겸한 육법공양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4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법회에서 꽃 과일 등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올렸다. 3년 전 기복신앙을 탈피하고 진정한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처음 실시된 육법공양법회는 봉은사의 법회장소 제공과 지도법사 파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반야회는 그동안 봉은사로부터 지도법사 스님을 위촉받아 매달 본사 세미나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반야회 홍기성 총무는 "인근 사찰과 유대를 통해 법회를 봉행하다 보니 법회 때마다 법회장소 및 법사 섭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며 "또한 불자회 운영에 있어서도 장소 대여비, 법사초청비 등의 지출이 없어져 지금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강남 인근에 소재한 한국세무사 불자회, 선재마을 의료회, 강남구청 불심회, 강남경찰서 불자회 등도 봉은사에서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지도법사를 위촉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재안스님은 "그동안 사찰이 자기 신도위주의 포교를 해왔다"며 "사찰이 지역내 직장불자들과 교류를 확대한다면 지역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장소 · 지도법사 섭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직장불자회들이 최근 인근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불자회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진은 서초반야회 정기법회 모습.

김천소년교도소 불심회(회장 김수철)는 지난달 중순 조재영 회원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지도법사스님의 헌신적인 봉사로 불심회원들간의 결속이 더욱 두터워졌다. 직지사가 지역내 직장직능 불자회 지원의 일환으로 파견한 도원 지도법사스님이 아침저녁으로 상가집을 방문해 예불을 올려준 것을 계기로 불심회원들이 상조회를 조직하는 등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

또한 김천 교사불자회, 김천지역 개인택시 불자회도 직지사로부터 지도법사를 위촉받고 법회장소를 제공받아 불자회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김수철 불심회장은 "지도법사스님이 법회시간에 기초교리 등 불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가르치고 매경사시 적극 동참해 불자회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서울시 26개 구청 불심회원들과 경찰서 불자회 대부분이 관내 사암연합회와 연계해 활동을 펼치고 있고 법조인 불자회인 서초반야회는 서울 우면산 대승사의 지원으로 매달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사찰이 자기 절의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을 포교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찰 포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직장불자회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2백여 종교 · 시민 · 사회단체들은 7일 기독교회관에서 3대개혁입법 쟁취 국민행동 선포식을 가졌다.

'3대 개혁입법' 범국민운동

종교시민단체 시국대회 · 서명운동 추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 · 시민 ·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3대개혁 입법 쟁취(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를 위한 국민행동을 선언했다.

7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각계 대표자들은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정쟁에 파묻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하의 개혁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략적 궤변과 공허한 입씨름 속에 빛바랜 말잔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는 야당 시절부터 주장해온 개혁법안을 미루면서 개혁의 시기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포기해 버렸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해야 할 야당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공당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개혁 성향의 여야국회의원과의 만남(10일), 여 · 야 총재 면담(19일-24일), 개혁실현을 위한 1만인 시국선언(21일), 개혁실종 규탄 전국 동시다발 시국대회(3월 1일), 범국민 서명운동(12일-28일), 온라인 캠페인(오마이뉴스, 진보넷, 딴지일보, 대자보, 불교정보센터) 등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의료봉사 등 자비행 다짐"

전국 병원불자련 신년하례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 · 회장 김주효)는 6일 국립서울정신병원 소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일병원 이영숙 회장, 국립서울정신병원 양동선 부회장, 경찰병원 김정숙 부회장, 동국의료원 보현회 김명숙 총무, 이학주 명성여고 교법사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병불련은 이날 법회에서 4월 · 7월 두차례 의료봉사 실시, 6월 합동 성지순례, 9월 연합대법회 봉행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창립해 아직 채 1년도 안되었지만 그동안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병원불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회에 앞서 '죽음에서 장례까지의 모든 것'을 주제로 전국불교장의연합회 유정행 회장의 특별강의도 펼쳐졌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대한중석 석불회 총회

대한중석초경 불자회인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2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갑수 현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또한 정기법회 정례화, 성지순례, 방생법회, 참선교실 운영 등 사업계획도 확정지었다.

대우종기 유식강좌

대우종합기계 · KAI불교법우회(회장 정진한)는 6일 창원 성주사 심검당에서 유식사상강좌를 개최했다.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에서는 성주사 원광스님이 강의했다.

성북승무소 윷놀이법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2일 도봉산 망월산장에서 윷놀이 법회를 봉행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법우회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법회에서는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동국의료원 정기법회

동국의료원 보현회(회장 구병서)는 6일 병원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강남구청 정기법회

강남구청 불심회(회장 김경석)은 2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이 법문한 이날 법회에는 권문용 구청장 내외 등 사부대중 6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청 불심회는 올해 매월 정기법회 정례화, 분기마다 사찰순례 실시 등 다양한 활동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석불연 '삼국 불상' 강연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4일 오후 6시 삼청동 가족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에서는 서현 회원의 '삼국시대 불상'에 대한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8일에는 경기도 양평 일원에 위치한 음각 마애불과 미륵불을 참배하고 석불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전 8시 이대부속병원 응급실 앞.

(02)760-5138 고재두

대전청사 반야회 사찰순례

대전 정부청사 반야회(회장 김창균)는 18일 대전 신광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떠난다. 이날 법회에서는 신광사 주지 다모스님이 설법한다. (042)481-2390 김선녀.

게시판

알림

▲무료법률상담=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2, 4, 5째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복지관 307호에서 채무, 채권, 세무, 회계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02)577-5800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개원=혜명복지원은 14일 청담치매 노인단기보호센터를 개원한다.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그 부양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설립되는 노인보호센터에서는 일상생활동작, 작업치료, 물리치료, 재활 및 위생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02)806-1378

▲결식아동 돕기 선묵전=충북불교회관은 결식아동과 노숙자를 돕기위해 범주스님의 달마 선묵적을 회관내 광명다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범주스님의 달마도와 도자기 등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043)294-8525

▲회당장학생 선발=불교진각종 회당장학회는 진각종 교도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불자를 대상으로 회당장학생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17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각각 1통씩이다.(02)913-0751

강좌

▲금강선원 불교교리=금강선원은 3개월간 불교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불교방송 문화센터 강사 혜거스님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3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웅전에서 진행된다.(02)445-8484

▲정암사 서장강설=해인사 백련암 서울선원 정안사 묘심선원은 16일부터 22일까지 서장강좌를 개설한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해인사 선원 원응스님이 강의한다.(02)523-8088

모집

▲한글의식교육원생=동산반야회는 1년 과정의 한글의식교육원생을 모집한다. 불교의식을 배우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강의는 3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동산법당에서 진행된다. (02)732-1206

▲지도법사=원각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법회를 이끌어 줄 지도법사스님을 모집한다. 아동 · 청소년 포교에 관심있는 비구, 비구니스님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33)636-1846

▲단기적응훈련 교육생=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기술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적응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051)363-2063

▲교육프로그램 강사=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서예, 탁구, 한글, 중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모집한다.(02)929-7950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 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 학년	각배과	50명	이 론	불교의식론	
3 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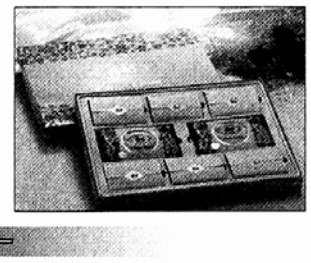
8.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종무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회원 2,500명…역경사업 밑거름

신행현장 동국역경원 후원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꾸 모으면 큰 것이 된다는 뜻이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불자 한 명 한 명이 정성스레 모은 후원금이 대장경 역경사업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 동국대 대각전. 몇몇 보살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고, 또 다른 서너 명의 보살들은 쉼없이 절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국역경원 후원회 회원들. 오늘은 후원회 정기법회인 삼장법회가 있는 날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에 이곳에서 모인다.

동국역경원 후원회(회장 석주)는 30년 동안 한문으로 된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을 돕기 위해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을 비롯해 월운 · 정휴 · 무상 · 일면 스님 등의 발기로 95년 7월 결성된 단체. 한해 1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1천원, 2천원씩 성금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십여명으로 시작된 후원회원은 벌써 2천5백명을 넘어섰고 그동안 모은 후원금만도 5억원에 이른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가지 쌓임이…" 삼귀의에 이은 한글 반야심경 봉독, 삼장법회 발원문 낭독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곱게 합장한 권청량심(46 · 남양주시 도농동) 보살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볍다. 처음엔 후원금만 내면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삼장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신심도 깊어지고 절친한 도반들도 생겼다. 지금은 후원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배우는데 '후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법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엄자인화(56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살은 볼펜을 꺼내 월운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적고 있다. " 자기가 좋아하는



◇동국역경원 회원 50여명이 9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월운스님을 모시고 삼장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후원금 5억여원 모금
매달 삼장법회 신심다져
성지순례등 신행 열심

경을 읽고, 쓰고, 남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공덕은 몇 겁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법문에 엄 보살은 무엇인가 이해를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외손녀 수연이를 데리고 법회에 참석한 이 주(66 · 서울 청량리)보살은 대장경 역경사업이야 말로 불교중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소신에서 후원회원이 됐다.

이들 후원회원들은 자신들만이 후원금을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98년부터 철원 심원사, 양산 통도사 화엄산림, 서초사암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등 전국의 사찰을 돌며 후원회를 홍보했다. 실제로 후원회 회원들은 후원회 홍보가 생활화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십명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킨 불자들도 많다.

지금까지 1백여명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킨 안정각심(72 · 서울 마포구 도화동) 보살은 "역경사업을 홍보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라 믿는다"며 "스님이 큰 원을 세운 것 만큼이나 저희 후원회원들도 크게 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고 웃음을 짓는다.

후원회 회원들은 삼장법회 이외에도 역경사업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회보를 발행하고 봄 · 가을에는 성지순례 순례 법회를 가지는 등 신행생활에도 열심이다.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유치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도 늘고 있다.

회원들은 한결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한글대장경을 읽었으면 하는 것이다. 널리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부처님 세상에 가까이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 스스로도 한글대장경을 읽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동국역경원 후원계좌는 우체국 012328-0093298 (예금주 강계술), 국민은행 204-21-1253-793(예금주 김성구).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나무가 실다워야 과일도 실답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흡세 지향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때문에 우리는 은연중 최고만을 선호하는 습성에 젖어버렸다. 뜻은 클수록, 목표는 높을수록, 성과는 장대할수록 좋다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다.

뜻을 세움은 보람있는 인생의 출발 조건이다. 입지(立志)가 분명한 삶은 물결치는 대로 바람부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한결 값진 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왕 뜻을 세울 바에는 크고 높게 잡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뜻이 크면 큰 만큼 마음의 부대낌과 육체의 노고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선인들은 한결같이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얘기한다. 과욕을 경계한 것이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지나친 욕심은 삶을 망치는 근본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어떤 뜻을 세우느냐와 그것의 실천 방법에 있다. 뜻을 세우되 참답게 세우고, 뜻을 이루어가되 실답게 추구하라는 것이다. 딴에는 원대한 목표랍시고 세운 것이 망상이나 몽상에 불과한 것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참다운 뜻을 세운다 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입지의 주체가 불분명하고서 어찌 뜻이 바르기를 희망할 수 있겠는가. 고로 바른 뜻이라 함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를 참구하는 일이다.

아무리 고원한 뜻이라 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채 세운 것이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고로 참나를 발견하는 것, 거기에 뜻을 두는 게 참된 입지이다. 나를 알고 나면 세계의 실상도 저절로 알게 되니 이 얼마나 눈부신 뜻 세움인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뜻만 세우면 길은 훤하다는 것이다. 나무가 실다우면 과일도 실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진작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때다. 올 한해 또는 전생애를 걸고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바른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할 계절이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실상 바로보는 지혜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



법홍스님
대구 보은사 주지

불자라면 현상(現象)과 실상(實相)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현상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존재하는 그런 현상에 불과합니다.

영생불멸한 진여(眞如)의 실상은 우리 중생이 볼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야 그 자리와 홀연히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불멸한 그 자리로부터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잠깐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나툰 것이 현상인 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중생 차원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지 부처의 경지에서는 일체만유가 곧 공(空)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空)인가?.

이것은 일체 존재가 물질이 아닌 진여불성(眞如佛性)으로부터 인연(因緣) 지어져 아주 잠깐

현상에 집착할수록 중생苦 더 커질뿐

상(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 이것은 본래(本來) 있는 것도, 아니며 상주불멸(常住不滅)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순간 찰나도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한 순간도 머물지 않거니 똑 같은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은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보아서 같은 것이지 순간 순간 변화되고 맙니다.

삼천 대천세계가 생주이멸(生住異滅)합니다.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는 진여(眞如)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요 불성(佛性)이고 법성(法性)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에 따라서 입과 몸과 뜻으로 죄를 범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범하면 그때는 틀림없이 인생고(人生苦)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고를 떠나고자 한다면 그 근원을 거슬러 무지(無知) 무명(無明) 때문에 고(苦)가 있는지라 우선 무지 무명을 떠나야 합니다. 이 현상과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바로 부처님지혜고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행주좌와' 하는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보통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기 십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잃어버리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사는 것이나 또는 남녀간이나 친구지간등 어떤 관계나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러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 번뇌, 고(苦) 가운데도 있듯이 '구부득고(求不得苦)라' 구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다 자기 분수를 떠나서 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항시 불만스럽습니다. 그때그때 변화 무상한 것이 삶일진데 중생들은 자기가 좋은 쪽, 바라는 쪽으로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빚어 놓은 현상에 집착하는 공염불이지요.

밝은 지혜로써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의 악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실상을 직관(直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경제난국의 극복이니 총체적 개혁이니 하는 소리들 또한 우리 사회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의 업일진데 욕심마저 분수인양 가지고 하는 개혁이, 경제난국의 극복이 그 참열매를 맺을수 있겠습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고 우리 그대로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난국의 극복이며 개혁일 것입니다.

신행 캘린더

2월 15일 (목)

■총지종 통리원장 이 · 취임법회=총지종은 오후 2시 강남 총지사에서 총지화 전 통리원장의 이임식과 제 12대 혜암 통리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2)552-1080

2월 16일 (금)

■동국대 졸업식=서울캠퍼스는 16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또 경주캠퍼스는 19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졸업식을 개최한다.(02)2260-3027

2월 17일 (토)

■진여회 삼보종찰 성지순례=조계종 진여회는 18일까지 무박 2일간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밤 9시 조계사 앞.(02)821-3242

■천리안 불교동호회 수련대회=천리안 불교동호회는 18일까지 실상사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참회기도, 수계식, 실상사 관람, 운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18)308-7385 김용태

2월 18일 (일)

■약수암 만등불사 회향 및 한글대장경 봉안법회=포천 약수암은 오전 10시 만등불사 회향 및 한글대장경 봉안법회를 봉행한다.(031)534-2941

■태고종 강원 종무원장 취임법회=태고종 강원종무원은 오후 2시 춘천 정토사 대웅전에서 제 10대 지혜성 종무원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영산재보존회 어산종장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진산의식으로 진행된다.(033)252-5040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정기포럼=한국종교연합기구는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종교간 대화의 문명사적 이해'를 주제로 정기포럼을 개최한다.(02)2264-8260

2월 19일 (월)

■화엄불교대학 일초스님 초청법회=화엄불교대학은 오후 7시 2층 강의실에서 '반야심경과 공사상'을 주제로 전 등화사 불교대학 강주 일초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063)277-3497

2월 20일 (화)

■능인선원 춘계합동천도재=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선망부모와 조상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 춘계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02577-5800

■법장사 사찰순례=법장사는 경남 양산 통도사로 정초 사찰순례기도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대웅전 앞.(02)971-0303

2001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1년도를 맞이하여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불자님 · 스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 · 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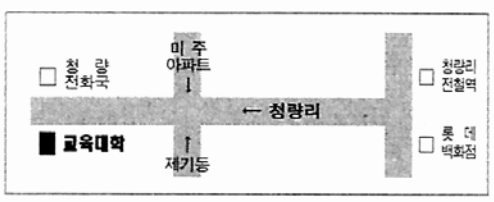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1년 2월 1일~ 2월 19일
▶ 개 강 : 2001년 2월 20일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 967-7093

▼ 찾아오시는 길



금강불원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21세기 선진화 포교학당
2001학년도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개설강좌

과 정	기 간	교육실시	등 록 금
제 3기 포교사과정(포교복지사)	1년	매주 화,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입학금 : 5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월 6만원
제 2기 상담심리과정(자비상담사)	1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 입학금 : 8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6만원(자격검정료, 집단수련비제외) · 본교 과정 등록자 및 포교사, 복지사 : 수강료 20% 할인
제 6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과정	3개월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5시	· 수강료 : 월 6만원(교재대 포함)
제 2기 불교 침 · 뜸 포교봉사자	1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10시	· 교재대 : 별도 · 수강료 : 월 15만원

■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선착순)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마감일 : 2월 28일(수요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 입학식
3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보건복지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 장 혜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대표전화 **051-462-5670** 팩스 : **462-5671**



박태원 교수의 24

불교를 보는 신생

남전과 북전의 만남

"스님은 무(無)자 화두를 어떻게 드십니까?" "나는 무(無)자 아니면 밥도 못 먹겠더구나." "!!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 "무(無)자 드는 꼴 한번 볼래? 세 발 달린 당나귀가 휘기적 휘기적 걷는구나." "목숨 마치는 순간까지 그저 '무(無) -' 하면서 쉬려무나."

대학생 때 노사(老師)에게 은혜입던 광경들이다. 대학원 시절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의 정념(正念) 설법을 대하고는 소스라쳤다. '아! 이 집안 일은 시공을 크게 달리하면서도 이렇게 한 맛으로 이어졌구나! 언어를 달리하며 이렇게 정수를 이어가고 있구나!' 천견(淺見)이나마 분명 경이로운 확인이었다. 후기불교의 끝자락 선종과 초기불교의 언어가 깜냥으로는 하나로 닿았다.

불교 언어는 결국 체득의 언어이다. 사변적 이해도 체득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못하다. 분명 더 보태야할 것이 있다. 이론과 기술 습득이 완벽한 제자의 솜씨일지라도, 도예의 대가는 제자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한 통로를 확연히 안다. 그 미묘한 체득의 장이 열리지 않았으면, 필요할 경우 남 보기에는 훌륭한 작품을 가차없이 뭉개버린다.

총명한 머리로 무아(無我)며 연기(緣起)며 공(空)이며 마음의 이치를 열람하다 보면 웬만큼 눈이 뜨인다. 그 이치를 삶에 적용해 보아 편안함을 맛보기도 하고, 난해한 불교 이론이나 어록, 게송들도 뜻을 알 것 같아 그럴듯하게 풀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사변과 지성의 언저리. '머리로 앎'과 '맛보아 앎' 사이의 섬세 미묘한 경계선, 그 독특한 국면이 남는다. 참선을 제대로 해 이 국면에 눈떠야 그와 관련된 언어들의 특수한 맥락과 용법, 의미들이 열려온다. 그 체득이 얼마나 제 길 위에 놓인 것인지를, 걸음 앞선 분들은 정확히 읽고 효과적으로 안내해 준다. 스승과 제자의 일대일 관계가 빛나는 때는 바로 이 대목. 언어에, 이론에 밝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 결정적 관문에 얼마나 들어섰는지, 선어(禪語)에 얼마나 열렸는지를, 걸음 앞선 이들은 이런저런 계기에서 분명히 읽는다. 이론과 설명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앞뒤 딱 들어맞는 분명한 이치를 담은 '그 국면'에 열릴 때, 아는 이들끼리는 엉뚱해 보이는 방식으로도 통하고, 전혀 달라 보이는 언어도 한 맛으로 엮어낸다.

한국 불교가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남전과 북전의 만남! 선종이라는 그릇에 담겨 전승된 북방불교의 체험이, 초기의 언어를 보수적으로 간직하려 애쓴 남방불교의 전통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되고 진행되어온 이 획기적 만남이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초기불교와 남전에 대한 갈증을 달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는 제법 힘있는 물길을 이루어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간화(看話) 조사선만이 유일, 최고의 해탈법이고 남방 관법(觀法)으로는 견성하지 못한다'라든가, '간화선은 부처님이 설한 수행법이 아니다. 남방 관법만이 올바른 해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성급한 독단으로 보인다. 선종 언어에 익숙한 이들의 배타적 독선은 역사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남전 언어들에 대한 저급한 독해와 부당한 선입견에 물들어 있다. 또한 선종의 언어를 송두리째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비판하는 이들 역시 선종 언어에 대한 체득적 탐구의 결핍으로 인한 몰이해와 오해를 안고 있고.

배타적 선입견 접고 한국불교 전환 모색

남전과 북전의 언어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심도 있게 만나야 한다. 북전과 선종은 자신이 어떻게 불교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 변용의 운신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불교적으로(집착 없이) 남전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또 남전은 초기불교의 사상과 참선의 정수가 어떻게 북전과 선종의 언어로 전승되고 있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럴 때 북전과 선종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남전은 부처님 사상과 정념(正念)의 오의(奧義)를 직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래도 오늘 말은 많이 넘친 것 같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선가구감' '선문촬요' 선수행 필독서

참불자의 길 참선⑤ -禪書 무엇을 읽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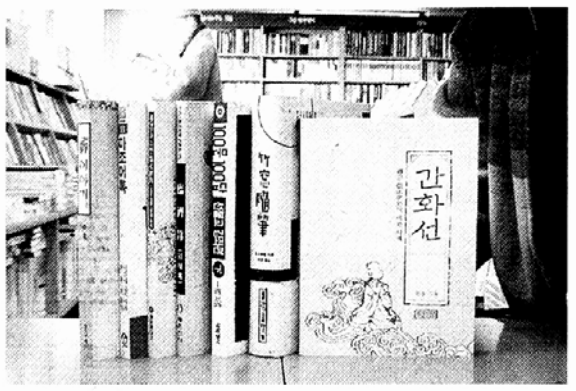
선승들의 체험 · 생애 선서통해 엿보기 선어록 강독도 효과

초심자들이 올바른 선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불교에 관한 입문서를 읽고 선종의 역사와 인물, 수행, 용어, 선의 일화 등에 사전 지식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선서를 통해 선의 수행체계에 담긴 특성과 의미를 철저히 파악하고 깊이 사유하면 선불교의 본질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선서 읽기를 권한다.

〈선불교강좌 100문100답〉〈선이야기〉 등 10여권 이상의 선서를 저술한 일지 스님(수국사)은 "선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역사 중심의 선어록 읽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선사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의 문제를 파헤쳐 선의 세계를 책을 통해 투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서 읽기를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서를 일지 스님이 추천해 주었다.

스님은 우선 청허 휴정 선사가 제자들에게 설한 선 수행 이야기를 묶은 〈선가구감〉을 권했다. 이 책에는 선의 유래를 비롯해 선과 교의 이해, 공안 참구의 바른길, 선의 수도론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아 초심자들이 읽기 쉽다.

스님은 이와함께 조계종 선문(禪門)의 교과서인 〈선문촬요〉도 함께 권한다. 경허스님이 편찬한 〈선문촬요〉는 선가에서 예로부터 읽혀온 전통 선어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현대 한국선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문헌이라는 점에서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초심자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님은 조언한다.



◇<선불교 100문100답><마조어록><임제록>등 선서에는 선의 수행체계와 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 있어 올바른 선수행을 위해 불자들이 읽어봐야할 필수적인 지침서이다.

초심자 수준을 벗어난 불자라면 현대 한국선의 중흥조인 경허 선사의 법어집 〈경허집〉도 꼭 읽어볼만하다.

이 책이 출간될 당시 만해 스님은 "걸림없이 문장마다 선이요, 구절마다 법이어서 깊은 법어의 말씀이요 묘한 구절이었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선서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남종선의 거장 마조도일의 선어록인 〈마조어록〉, 중국 선불교가 낳은 가장 독창적인 선어록인 〈임제록〉 등은 초심자 수준을 벗어나 선수행의 경력이 어느정도 붙은 불자들의 필독서이다.

중국선종의 개조인 육조혜능의 설법을 모아놓은 〈육조단경〉은 불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선서지만 선수행을 하는 이들이 빼놓지 말고 읽어야할 선서이다.

일지 스님은 이와같은 선어록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선문헌이 형성될 당시의 난해한 용어나 의미의 해설을 위해 〈선학사전〉을 옆에 놓고 참고해가며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선불교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이들은 〈선불교강좌 백문백답〉(대원정사 刊)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고민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선의 대중화를 위해 쓴 선종사를 비롯해 선문헌, 선승, 선 용어 등 불자들이 궁금해 할만한 선 이론들을 강좌 형식으로 보기 쉽게 써놓은 개론서이다.

또 이희익의 〈선이 우리문화에 끼친 영향〉 오경웅의 〈선학의 황금시대〉 등도 평이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지 스님은 "선승들의 체험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선서를 주의깊게 읽다보면 그들의 생애를 직접 맛보며 깨달음의 향기를 누릴 수 있어 발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 불자들이 혼자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선어록강독 등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간화선 본질 밝힌 깨달음의 교과서

이번 호부터 김태완 씨의 '<書狀>을 통한 선 공부'를 싣는다.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을 통해 한국선의 지남으로 삼자는 까닭이다.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풀이할 것이다. <편집자>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오늘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사선(祖師禪)의 전통을 이은 간화선(看話禪)을 그 종지(宗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교계의 안팎에서 한국의 간화선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빈번하다. 심지어 한국선의 정체성을 새로 확립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선이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선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간화선을 재고하자고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서장〉의 가르침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장(書狀)〉은 간화선에서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서장〉은 〈대혜서(大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등으로도 불리는 책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 : 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고는 묵조선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대혜의 방대한 어록(語錄) 가운데 〈서장〉은 묵조선의 배격과 간화선의 제창을 그 내용에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시되어, 조계종의 승려를 교육하는 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필수과목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의 〈서장〉의 장점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또 '선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단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고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의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대혜의 안목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육체란 질병만 치료하여 없애면 될 뿐 새로 얻어야 할 건강이 따로 있지 않듯이, 깨달음도 잘못된 관념과 습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잡아주면 될 뿐, 따로 깨달아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마조(馬祖)는 "도는 닦을 것이 없고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道不用修但莫汚染)"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 공부에서 무엇보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잘못된 치유법의 문제점을 알려주는 것이다. 〈서장〉의 가치는 이 점에서도 매우 훌륭하다.

약력 동국대 철학과 부산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논문인 '중국 조사선(祖師禪)의 연구'를 비롯해 '임제(臨濟)의 참사람 연구' '중국선에서 깨달음의 구조에 관한 연구' 조사선에서 선지(禪旨)의 표현에 관한 연구' 등 선 관련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현재 부산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선공부(禪功夫)에도 힘쓰고 있다. 이메일 ktw1958@yahoo.co.kr

현대불교 지사 · 지국 모집

불법 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독 확장, 광고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1. 모집 지역(11개 지역)
   - 강원북부 : 춘천, 철원, 양구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영월, 정선 일원
   - 경기 :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제천, 진천일원
   - 충남 : 서산, 당진, 아산 일원
   - 경북 : 문경, 상주, 예천 일원
   - 경남1 : 진주, 산청, 거창 일원
   - 경남2 : 울산, 양산 일원
   - 전남 : 순천, 여수, 보성 일원
   - 전북 전역 · 제주 전역
2. 활동 내용
   -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및 광고 영업
   - 본사 수익 사업 추진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한 : 2001년 2월 17일(토)
   - 방법 : 우편(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 02)732-0090 대표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이렇게 들었다

납세의 의무

공평과세 원칙 철저히

"중생 개개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를 축적하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져 도탄에 빠진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직한 백성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리를 훔치는 도둑일 뿐 아니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다."〈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부처님께서 바라동산에 계실 때 어느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개 이익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쁜 곳으로 떨어뜨려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중생들은 개인적인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삿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이익에 매달리면 오분법신(五分法身)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증일아함경〉

부처님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또 자신만의 이익을 취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이권에 관계된 권리 주장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 국가에 대한 의무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이 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국민의 의무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납세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액 소득자일수록 탈세를 많이 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안정남 국세청장은 "전산조사에서 일부 중앙 언론사의 세금 탈루 의혹이 포착됐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중들의 여론을 대변하며 사회의 비리를 질타하고 정의를 외쳤던 언론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 더 조사를 해봐야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이번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언론사도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예외일 수 없다는 뜻에서 실시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여러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80% 이상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도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언론사뿐만이 아니다. 세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성실히 이행되야 할 복지 민주사회에서의 기본 의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탈법과 탈세 행위를 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를 축적한 만큼 국가나 사회에 회향하는 건강한 조세 문화의 정착이 절실한 때다. 납세의 의무 등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 참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깨우치자.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황금알 집착말고 거위 키우자

불자 세상보기

광우병… 전염병… 자연질서 파괴하는 인간 삶 경고 아닐까



김상득
전북대 철학과 윤리학교수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노부부에게 매일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가 있었다. 노부부는 너무 좋았다. 얼마쯤의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다. 저렇게 매일 황금 알을 낳으니 저 거위 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 알이 있을까? 그 황금 알을 한번에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들은 그 거위를 잡았으나 뱃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이 우화를 듣고 노부부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았는가? 그런데 요즈음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광우병 소동을 접하면서 왜 이 이솝우화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인간 광우병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신종 AIDS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이질 말라리아나 홍역 등 이미 사라졌다고 단정한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원인은 과학적인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정말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더 이상 광우병이나 전염병을 염려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인과연쇄의 그 첫 단추를 찾아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한 현상적인 원인만 찾아 제거한다면 여전히 동일한 사건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이솝우화의 지혜가 새삼 돋보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이솝우화에 나오는 노부부의 결정적 실수는 무엇인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목전의 이익에 눈먼 이기심이요, 다른 하나는 거위의 생리에 대한 무지이다. 지금 우리도 이 노부부처럼 두 가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자연, 생태계, 생명, 이러한 것들은 무한한 신비 자체이다. 그에 반해 인간은 유한하며, 더더욱 인간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 조그만 지식을 전부인양 착각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거위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

사실 자연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황금 알을 매일 낳아주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토양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고기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하루라도 더 일찍 송아지를 황소로 만들기 위해 음식물 사료를 소에게 주고, 자연산 콩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슈퍼 콩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대들 듯이, 자연 역시 감내하기 힘든 파괴 앞에 역으로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적자생존의 논리를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이나 동식물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다는 논리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질 높은 인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나 생태계의 리듬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따름이다. 거위가 단번에 수만 개의 알을 낳기를, 그리고 송아지가 갑자기 황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산이 물이 되기를 바라는, 물이 산이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아닐까? 우리는 황금 알에 집착하지 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살찌우게 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겨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종교 지도자 정치발언 용기와 신중함 겸비

지난 5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정치권을 질타해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 추기경은 "정치권이 다음 대권에 몰두하느라 민생이나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바꿔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고도 한다.

1월 중순에 나왔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말을 생각해 보자. 똑같이 여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총무원장은 종교지도자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불자들을 실망시켰음은 물론 불교의 위상마저 추락시켰다.

불과 보름차이를 두고 나온 두 종교지도자의 말을 들으며 과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뻔하다. 불자로서 안타깝다 못해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시기심까지 날 정도다.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다. 꼭 필요한 말은 서슴없이 하는 용기,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결코 하지 않는 신중함. 왜 불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의 지혜도 갖추지 못했는가.

불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의 위엄을 갖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일까.

<이창민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교교리 체계적 공부 '흔들리는 중년' 극복

올해로 50대에 접어든 주부 불자다. 얼마전 막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20년 넘게 짐지고 살아온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원한 느낌보다는 허탈한 감정이 앞섰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존재에 대한 의미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간 생각끝에 그동안 다니던 사찰의 불교교양대학에 입학원서를 접수시켰다. 일년에 몇 차례 사찰에 다녔던 것이 전부였지만 혹시 새로운 무엇인가가 내 허탈감을 메워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기초교리라도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책도 두 권을 구입해 틈나는 대로 보고 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지난날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변할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허탈감과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평소 자기가 믿는 종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간혹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흔들리는 중년' 따위의 얘기는 신경쓸 필요조차 없게 될 것이다. <장경숙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터넷 포교 적극투자 우수 인재 확보 나서자

시대변화에 따라 많은 것이 변했다. 요즘 학생들에게 불교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아주 생소한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우리가 후진양성을 게을리한 탓이다. 포교도 같은 생각을 하는 집단이 있을 때 손쉽다. 어려서부터 부처님의 말씀에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엔 불교유치원이나 종립학교를 찾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것은 내일의 불교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확보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에 '고려대장경 2000'이 선보였다. 10년 가까이 공들여 고려대장경을 현대화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개가였다. 이제 우리는 컴퓨터 통신에 익숙해지고 있다. 젊은이를 대상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포교가 필요하다. 한동안 달마넷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열기가 식은 지는 이미 오래다.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포교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정성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유니텔 불교동호회 등 자생 통신불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러한 통신불교에 대하여 스님들의 참여 등 물심 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포교도 각별히 신경 써서 불교사상의 저변 확보에 매진해야겠다.

<박경수 ·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처 수 · 화력 기술팀장>

기고

부모와 아이 함께 받는 취학 통지서



이빈파
참교육학부모회 정책부장

4년 전, 동사무소 직원이 건네준 종이 한 장-취학통지서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얻었던 기쁨만큼 내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 "하하! 녀석이 벌써 이렇게 컸나?" 하고 7년 동안 아이와 지낸 일들을 되짚어 보며 이만큼 길러낸 내가 마냥 대견했다. 하루하루 입학 날이 다가오기만을 기대하며 뿌듯했다.

그러나 대망의 입학식 날, 그 날부터 일은 벌어졌다. 선생님 따라 율동을 하다말고 주저앉아서 흙장난을 즐기며 땅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이미 내가 손쓸 새도 없이 선생님의 지적을 받는다.

그렇게 첫 인상부터 눈밖에 난 녀석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처럼 일년 내내 선생님께 혼이 나며 불행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위 왕따가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학교를 좀 더 알고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부끄럽게도, 어리석은 어미 덕에 아이는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지난날 아이가 힘들게 되었던 것은 학부모가 된다는 새로운 변화에 게을렀던 내 탓이었다. 학교에 갈 준비만 했지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의 준비는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학부모도 1학년이 된다(둘째를 입학시키는 부모도 마찬가지이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부모는 학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세상은 어렵고 힘들며 어차피 인생은 내 것'이라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 살아갈 준비를 함께 해줘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과정과 아이들의 학교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학부모들의 학교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결코 혼자일수 없음'을 일깨워, 선생님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더불어 잘 지내는 방법을 일러줘야 한다.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拿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네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2001년 1·2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buddhistpromotion.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신년호 특별 설문조사 - 2001 오늘의 한국불교
스님, 불교학자, 종무원, 불교언론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지금 우리 불교계를 주도하는 인물과 단체를 알아본다.

특집 - 한국 불교에 禪은 살아 있는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불교, 특히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을 담았다.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맞게 재해석되고 수행법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으며,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선불교에 대한 역사적 조명, 그리고 토굴에서 정진 중인 수행자를 만나 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과정을 들어 보았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⑥
경허 성우 스님이 쓴 합천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사진으로 보는)세계 주요 불교국가의 법구(法具)
티베트의 불교 의식구

컬러화보 ②, 절에 피는 꽃 - 동백화

컬러화보 ③, 문화탐험 / 문화 속에 담긴 불교의 향기를 만난다 - 인간의 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화가 알렉스 그레이(Alex Gray)의 불교적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
- 동양사상 열풍의 역수입과 함께 들어와 국내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아봐타, 초월 명상(TM)과 여러 가지 힌두식 명상법 그리고 기공을 선두로 하는 도교 수행법 등 갖가지 수행법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 불교 정체성의 혼란과 불교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불교 종단과 불자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서평 / 서양인이 본 산신(山神)
벽안의 저자 데이빗 매이슨이 쓴 『산신령』에 나타난 한국의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및 보살로서의 산신을 알아본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경전에서 해당 구절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짧은 해설을 덧붙여 곤란에 빠진 불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감각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① 낙태문제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문학편)
① 공초 오상순 - 영원한 불교인이었던 공초 선생의 무소유의 삶
② 백화 양건식 - 잊혀져있던 불교인 백화 선생의 거사불교운동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사·부·대·중

소임 살기



주경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대중이 화합하는 것은 승가의 기본원칙이다. 그런 까닭에 스님들은 어지간하면 서로 허물을 말하지 않고 미움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한다. 좋은 의도로 말한다 하여도 자칫 오해를 불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끼리 간혹 "선방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거중에 시비가 생겨 대중의 일부 또는 전부가 안거처를 떠나 처음 안거를 시작했던 대중이 원만히 회향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정월 보름 겨울안거를 마친 수좌스님들이 걸망을 지고 나와 은사스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도반들을 만나 한철 수행의 결실을 나누는 만행철이다. 정진의 기운이 충만한 도반스님들의 면모를 대하면 부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정진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가 반갑지만, 몇 군데 불화의 소식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역시 '말'로 인한 시비가 원인이 되었단다.

스님들이 모이면 하루를 지내든 평생을 같이 살든 '소임'을 뽑는다. 승가의 소임자는 화합할 수 있는 스님이라야 한다. 그래서 수계의 기준이 되는 법납 순으로 소임을 정하지만, 대중을 책임지는 입승(入繩) 소임만은 조실스님의 지명이나 대중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입승은 목수들이 사용하는 먹줄을 퉁기는 도구와 동의어로, 대중살이의 기준과 원칙을 담당한다. 대중생활의 기준과 원칙은 입승 소임자가 맡지만 화장실 청소에서 법당 예불 올리는 것까지 모든 소임과 소임자에게는 기준과 원칙이 있고, 이 기준과 원칙이 지켜질 때 대중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화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잘못된 일을 묻어두거나 덮어두는 경우가 있다면, 그 화합은 실로 위태로운 것이어서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다. 소임자의 평등심이 무너지고 직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중은 불안하게 되고 승가의 수행과 위상도 흔들린다.

모든 사람에게 역할이 있듯이 스님들도 소임을 피해갈 수 없다. 수행정진을 잘 하는 것이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지만, 소임을 잘 사는 것 또한 불은에 감사하는 중요한 일이다.

목탁소리

문닫은 불교 문화원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6일 문을 닫았다. 여의도 불교문화원은 99년 9월 여의도 지역의 포교 거점 마련과 언론·정치·금융 등 여론주도층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7억원을 들여 문을 열었다. 120평의 넓은 공간에 법당 회의실 차담실 등을 마련하여 여의도 지역에 있는 KBS MBC SBS 등 방송사 불자회와 금융단불자회 연예인 불자회의 신행공간으로 제공하고 불교문화를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과정부터 문제가 터졌다. 문화원 개원을 추진하던 한 스님이 공금을 가지고 잠적해 무려 1년 넘도록 개원이 늦춰지기도 했다. 문을 열어놓고서도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건물관리상 밤 10시 이후 출입을 통제해 스님이 상주할 수 없었다. 입주할 건물의 상황도 살펴보지 않은 경솔함이 낳은 결과였다.

폐쇄되기 1년여 동안은 상주하는 스님도 없이 직원 1명이 법당을 지키는 꼴이었다. 인근에 있는 직장불자회들이 한달에 한번 이곳에서 모임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여의도 불교문화원의 역할이었다.

중앙종회 총무분과위 산하 여의도 불교문화원 조사소위의 조사에 따르면, 여의도 불교문화원 개원 이후 8억원의 삼보정재가 투입됐다. 보증금 4억5000만원은 환수하겠지만, 3억5000만원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여의도 불교문화원이 폐원하게 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물론 전 집행부의 일이어서 현 총무원 집행부의 책임은 크지 않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1년여의 기간이 지나서야 폐원 결정을 내렸다. 포교원으로 관리를 이관해 문화포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었다. 스님의 상주가 어려우니 다른 빌딩으로 옮길 수도 있었다.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로 후학들을 경책했다. 종단이나 사찰 모두 제2의 여의도 불교문화원과 같은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교단 자정운동' 범종교계 확산

재정운영 불투명
세속적 권력화
비민주적 운영
"더 두고볼 수 없다"

종교 NGO 단체들
'네트워크' 준비

'존경받는 불교'
사부대중 나서자

종교계에 거센 자정-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런 흐름이 개별 종교 차원을 넘어 종교간 연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마지막 성역'으로 불리며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종교계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신문의 '종교개혁' 토론마당에 쏟아진 논란들은 △종교 문제는 종교인에게 맡겨둬야 하는가 △종교 권력과 부패는 '일부' 교회·사찰에 국한된 문제인가 △교회·사찰의 성장제일주의가 종교의 근본정신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종교기관의 세금 문제 등을 놓고 형성되고 있다.

종교NGO 자정운동

수행자 및 성직자의 자질, 재정 공개 등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평신도들이 주축이 된 각 종교 NGO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관계자들은 6일 서울 견지동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종교계의 쇄신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 각 종교 내부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종교가 본연의 사명을 되찾도록 오는 4월 3일 '종교개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종교 NGO들은 첫 공동 활동으로 4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사회 관점에서 본 한국종교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 심포지엄은 종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시민사회의 보편적 관점에서 다루며 '종교별 개혁운동의 정보교환 및 방향성' '종교개혁을 위한 NGO연합활동에 대한 연구·실천 및 지원' 등으로 나누어 토론한다.

향후 각 교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겠지만, 최근 도박사건의 연루로 총무원 기획실장이 사임하는 등 스스로의 자정과 각성을 통해 종교의 제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낼 것으로 보인다.

왜 지금 종교개혁인가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종교개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가.

종교 NGO들은 "사회가 참을 수 없이 헝클어졌지만 종교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더 썩은 곳도 있다. 이대로 두면 점점 더 부패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다.

종교계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유일한 성역'으로 존재했다는 점, 일반 사회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종교계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도 종교계 안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사퇴에 따른 기자회견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조계종 기획실장의 사임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고위직에 대한 공직청규(淸規) 제정과 인사검증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은 도덕성과 청결성을 갖고 있어야 할 종교계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민주성, 사업 추진의 공개성 등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데 아직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불교 혁신의 과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불교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행정신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욱 종회발전재가봉사단장은 "먼저 수행기풍을 확립한 후 종단 소임자의 검증 및 청규 제도 마련, 출·재가의 원활한 의사소통, 재가자의 주인의식과 참여 확대, 신도 조직의 활성화 및 신행 혁신, 비구니 위상 제고 등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과제들이 하나 둘 해결될 때 종권의 세속적 정치권력화와 오래된 분규, 교단내 불평등(비구니 및 재가자 차별), 위계질서 문란, 문중·파벌 이기주의 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됨은 물론이다.

혁신 주체 '사부대중'

이 같은 불교혁신의 과제는 출가 승단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가자들도 승단에 대한 비판에 앞서 불교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도중심의 개인 신행형태를 불교와 사회, 국가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자기헌신적 신행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

박수호 고려대(사회학) 강사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상호 불신과 분열을 극복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수레의 두 바퀴임을 인정함으로써 혁신의 공동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부대중의 불교 혁신은 철저히 불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토론과 관용, 자비의 정신으로 서로 감싸안으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불교로 거듭나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원력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4성계급의 타파와 인간 존엄성을 설파했던 참 개혁가인 부처님의 서원이자 2천만 불자들의 염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

"비판 넘어 대안제시 노력"



"출가정신의 희복없이는 한국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결단을 통한 내부로부터의 자정과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만, 불교가 새로운 세기 인류사회를 이끌 참된 종교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위한 종교·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에 앞장서고 있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박광서(서강대 교수) 상임대표는 "종교계 자정과 개혁은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종교를 초월한 NGO들의 연대활동은 각 종교의 해결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연대기구는 재정의 투명성·평신도의 운영 참여 등 주요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종교가 함께 다룸으로써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불교의 문화활동, 천주교의 지역사회 접촉 등 각 종교의 장점에 대한 정보도 교류할 예정이다.

오는 3월28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재가연대 창립2주년을 맞아 교단자정지원감시센터 준비위원회 발족식도 갖는 박 대표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 자정운동이 시대에 뒤처진 무기력한 불교에서 중생고와 사회고를 치유하는 진정한 대승불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부대중이 모두가 삶의 현장이 곧 수행의 장이라는 투철한 결사정신으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지혜와 원력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김재경 기자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305호) 본 란의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하다' 기사 가운데 안티불교 사이트의 하나로 예시한 안티선(whatiszen.com/next-board)에 관한 본문 기사 내용과 사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화두선'은 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의 '안티선' 코너는 왜곡된 선 수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만든 토론장의 명칭입니다. 화두선 운영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고, 독자 여러분을 혼란케 한 점 사과 드립니다.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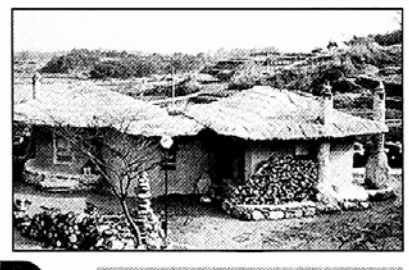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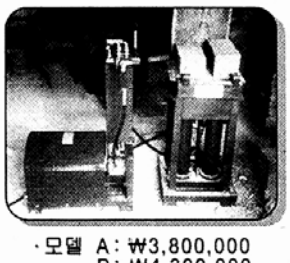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진 법장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참선교육

■ 참선교육 53기 안내 ■

한생각 일어났을 때 단속하지 못함을 두려워 할지언정 깨닫지 못함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조사들의 정통참선법인 화두선을 종지로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은 본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53기 참선교육(하안거전)에 동참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홍보바랍니다.

■ 기 간 : 2001년 3월 6일 ~ 2001년 4월 3일 (5회)
■ 일 시 :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 장 소 : 본회 선방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일 자	교 육 일 자
3월 6일 (화)	참선의 자세
3월 13일 (화)	참선의 종류
3월 20일 (화)	선종발달사
3월 27일 (화)	화두의 중요성
4월 3일 (화)	화두 참구법

■ 동 참 비 : 3만원 (교재 교재비)
■ 교재제공 : 참선교육 책 1권, 참선교육 테이프세트 (10개) 대형 선종발달사 도표
■ 접수문의 : ☎ 732-5960

※ 강남 선방 (봉은사 일주문 옆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참선교육 3월 8일 ~ 4월 6일까지 5회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30분 (매주 목요일은 강남선방)

대한불교 조계종 修禪會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②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동북부인 실크로드의 서쪽에 있었던 월지국 등에서 결가부좌를 하시고 90일 동안 안반수의를 행하면서 시방의 모든 인간들과, 날고 뛰는 새와 동물들까지도 구제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부처님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안반수의를 닦고서 이것을 전하여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반수의는 즉 수식관이기 때문에 호흡의 출입을 통한 조화로써 안심입명(安心立命)하여 구경열반(究竟涅槃)에 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한 단면을 살펴보자.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안은 생하는 것이고, 반은 멸하는 것이며, 마음은 나감(出)을 보아 하나가 되면 호흡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은 무의식중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의식이 집중되는 것이 곧 인연이 성숙되는 것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도(道)라고 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정신을 집중하게 되면 그 숨은 길고도 깊게 들어오고 나간다. 이것이 생명의 창조와 휴식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자연의 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안반수의는 그대로 우주의 진리 자체이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실상인 것이다.

부처님은 〈잡아함경(雜阿含經)〉 제29권 10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여,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는 것을 잘 익혀야 한다. 그러면 몸이 피로하지 않게 되고 눈이 아프지도 않으며 관(觀)

'안반수의'는 우주의 도리

부처님 90일간 수행후 인간 · 동물 구제

인연을 짓는 것이고, 수는 도가 되느니라." (安爲生 般爲滅 意爲因緣 守者爲道也)

이것을 설명하자면, 호흡함에 있어서 들숨을 생(生)이라 한다면 날숨은 곧 멸(滅)인 것이다. 멸이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오는 생을 위해서 쉬는 것이라고 본다면 생과 멸은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가지게 되므로 멸을 통해서 생이 있고 생은 멸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생과 멸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相互依存)하는 관계이며 둘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들숨과 날숨 속에 우리의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곧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 의식이 집중되지 않으면 곧 마음이 산란하게 되고 마음이 산란하면 들숨과 날숨을 볼 수 없게 된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호흡이 일정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되어 숨의 들어오고(入)하여 즐거움에 머물 수가 있고 애착에 물들지 않게 되리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을 닦으면 좋은 결실과 큰 복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선정(禪定)에 들면 드디어는 자비심을 얻을 것이며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들어갈 것이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호흡을 통하여 우주의 실상을 알았고 우주의 뜻이 바로 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나의 삶이 중생의 삶인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모든 생명은 호흡을 통해서 생겨나고 멸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호흡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곧 도(道)다.

화두참선을 할 때에도 역시 수식관(數息觀)은 매우 중요하다. 수식관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기(上氣)가 되어 수행하기가 힘들게 된다. 상기병(上氣病)은 수식관으로만 고칠 수 있다고 한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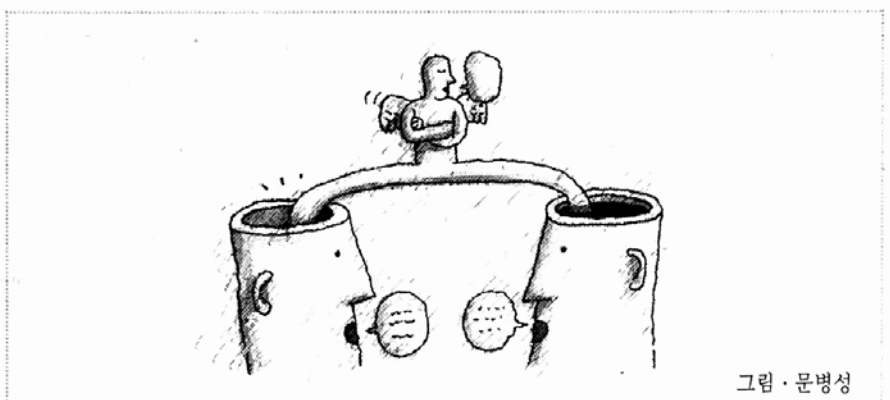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空 속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불교와 과학 〈17〉

우주 공상영화에 등장하는 외계존재를 머리 속에 그려보자. 그 외계존재를 그리는 영화 제작자는 최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엄청나게 괴기한 모습을 연출해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상상력도 역시 인간의 상상력이라 외계존재의 괴기성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간 언어로 괴기의 존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괴기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의 상상력으로 국한되어 재구성된 존재라는 것이다. 눈이 배꼽에 붙었고 다리가 새 개이며, 팔이 여덟 개를 갖고 있는 괴기이더라도 역시 인간의 눈과 다리, 팔이라는 언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와 상상력을 초월한 존재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렇게 언어의 상상력을 초월한 존재가 없다면 인간 언어에 제한되지 않은 어떤 초험적 존재의 실재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뜻인가? 이 이야기는 상상력과 언어 그리고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자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언어에 제한된 존재와 실재의 세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공과 색의 관계를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과 색의 관계를 우리가 안고 있는 언어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마치 서로 간의 모순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모순관계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내 저고리의 색깔이 검으면서 동시에 흰색일 수는 없다. 이런 예를 모순이라고 한다. 그러나 검은 저고리와 흰 바지는 당연히 모순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꽉 차 있는 빔

우리는 공과 색의 관계에서 모순적 관계에 대해 오해를 갖는 것이 있다. 그 오해가 낳은 한 사례를 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인슈타인이 말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인 그 유명한 $E=mc^2$ 이라는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공과 색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한다. 물질과 에너지가 등가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유형적인 물질의 질량을 색으로 놓고 무형적인 에너지를 공으로 놓을 때 공과 색이 서로 전환될 수 있는 현

과학 물질-에너지 전환 가능

불교 고정된 실체 없는게 空

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전제를 해야 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물리적 차원에서 전환 가능한 물리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과 색은 물리적으로 전환 가능한 동일한 사유의 지평선 위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공과 색은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떤 하나의 양성적인 두 존재가능성일 뿐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전환되는 전환 가능한 무엇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성격을 두고 논리적으로는 '존재범주'가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이라고 한다지만 색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도 공의 호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이 무엇이지 잘 모르지만 공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해도 색의 화려함을 공유할 수도 있다.

색과는 존재범주가 다른 공을 색으로 말하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공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불립문자라는 우주적 울림판을 통해서 들고자 했다. 우주적 울림판을 통한 소리는 지난 호에 말한 디지털 에너지로는 도저히 묶어낼 수 없는 정보 없는 정보의 소리였다. 공의 모습은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상징이나 기호로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반언어나 반기호 혹은 반상징인가?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공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공을 마냥 반언어와 반기호 그리고 반상징을 추구하는 선(禪)의 구도로만 접근할 수 있는가? 공을 언어, 상징, 기호의 반대개념으로만 간주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공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상상력 또한 넘어서 있다. 그래서 공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의 기도대상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의 세계를 영성체험이나 신비 체험을 통해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영성 체험과 현실 경험은 모순적인 두 현상이지만 공의 세계에서는 그 두 경험이 공존한다. 공의 존재범주란 영성 체험이 현실 경험 안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의 존재범주에서는 아예 기독교의 개념인 영성이라는 말조차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은 심우도에서 보는 십우도에 해당하는 세계이기도 하다. 공을 비어 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통적이라고는 하지만, 꽉차 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현대 과학시대에는 필요하다고 본다. 비어 있음과 꽉차 있음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아닌 듯하다. 공은 비어 있음과 꽉차 있음의 두 날개가 있어야 비로소 날 수 있는 새와도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파룬궁 천안문 분신 양국 외교문제 비화

지구촌 불교 / 美 · 中 인권갈등

파룬궁과 티베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자칫 중 · 미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미국이 최근 파룬궁 제재, 티베트 불교지도자 망명 등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던 양국간의 인권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음력 설인 24일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파룬궁 수련자 200여명을 체포해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달 초 중국 언론들에게 비공식 종교단체인 파룬궁을 비방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명령해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법제일보(法制日報)는 동북부 랴오닝(遙寧)성의 마싼자쯔(馬三家仔) 노동수용소에 한 곳에만 파룬궁 수련자 470명이 수용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파룬궁 문제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미국간 첫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최근 리자오싱 주미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중국정부가 파룬궁 수련자 시위를 원천 봉쇄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는 인내를 보여줘야 하며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과 중국내 인권문제를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 구금된 종교단체 수련자 석방 요구

中 "내정간섭"반발…비방 · 탄압 강화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톈안먼 파룬궁 수련자의 분신 사건은 유감이며 중국 당국은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과 언론 및 인터넷에 대한 통제 등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티베트 불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중국이 이미 서명한 인권과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국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유엔 인권위원회가 3월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은 조지 W부시 대통령 취임 초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국무부의 발표는 의회가 중국의 경제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의 유슈닝 대변인은 즉각 "인권이란 명목아래 중국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이 과거에도 8차례나 유엔을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이번에도 그 같은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미국은 여러 차례 중국의 인권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 연대제재를 가하려 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었다.

중국과 미국 양국 관계는 지난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베오그라드 주중대사관 폭격으로 급랭했으나 지난 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을 계기로 호전됐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정책과 함께 파룬궁 등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강경정책이 앞으로 중미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 청용(青龍) (우) 백호(白虎) (남) 주작(朱雀) (북) 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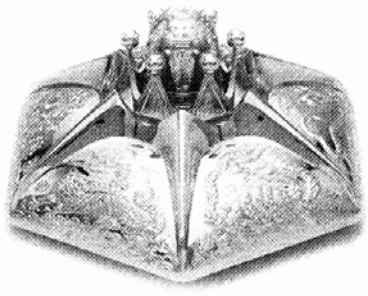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青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고서를 인용하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기(氣)란 : 현실이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편하다.
안전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 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꽃 진 자리. 어쩌면 그것은 '현존하는 과거이거나 혹은 미래'의 실상인지도 모른다. 사진은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경기도 양수리 겨울 연꽃.

꽃지고 꽃대만 남은 겨울연꽃

얼음속 '씨앗 품은 열매' 있다







◇한겨울 눈 속에 파묻힌 연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속엔 여름날 꽃피울 싹이 이미 자라고 있다.

꽃 진 자리. 어쩌면 그것은 '현존하는 과거이거나 혹은 미래'의 실상일지도 모르겠다. 꽃 다 지고 난 뒤, 앙상하게 마른 겨울 연꽃. 그 모습에서 지난 여름 활짝 폈던 연꽃을 보거나, 올 여름 붉게 피어날 연꽃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인과경〉에서 부처님은 현재에 담긴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세(前世)에 지은 인(因)을 알고자 하는가? 금세(今世)에서 받고 있는 과(果)가 그것이다. 후세(後世)에 받을 과(果)를 알고자 하는가? 금생(今生)에서 만드는 인(因)이 그것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에서 겨울 연꽃을 만난다. 그리고 비로소 '삼세'라는 시간의 의미와 〈인과경〉의 참뜻을 새긴다.

그 곳에서 본 건, 정확히 말하면 연 '꽃'이 아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로 삐죽삐죽 고개를 내민 건 꽃잎을 다 보내고 혼자 남은 꽃대다. 발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꽃대 옆엔 벌집 모양의 열매가 얼음 속에 얼굴을 묻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한 갈색이 되어버린 열매는 속에 타원형의 씨앗을 품었다.

흔히 연실이라고 부르는 이 씨앗은 수명이 아주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1년경 일본에선 땅 속에서 2천~3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씨앗 세 개를 발견한 적이 있다. 이것을 1953년 4월 도쿄의 박물관에 심었더니 싹이 트고, 3년 후인 1956년 8월 꽃을 피웠는데 바로 연꽃이었다. 연씨의 이런 강한 생명력은 불교가 성립되기 전부터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꽃으로 받들게 했고, 불교 성립 이후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잡았다.

인도가 원산지인 연꽃은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연과 수련으로 나누는데 물 위로 줄기가 높이 솟고 잎이 큰 꽃이 연이고, 잎이 수면에 떠 있고 꽃줄기가 수면에서 약간 솟아 핀 것을 수련이라 한다. 봄경에 나오는 연꽃은 타원형을 한 수련이다. 연은 7~8월에 잎자루와 뿌리줄기 사이에서 꽃대가 올라와 꽃이 핀다. 꽃이 지고 나면 10월에 벌집 모양의 열매가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다.

연은 색에 따라 백련, 청련, 홍련, 황련으로 나누는데, 〈화엄경〉에서는 이를 각각 분다리화, 우발라화, 파두마화, 구물두화라 부른다. 분다리화는 부처님을 뜻하고 우발라화는 부처님의 눈, 파두마화는 부처님의 손과 발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 피는 꽃은 주로 홍련과 백련이고, 청련은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자란다고 한다.

특히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꽃으로, 불교에서는 '보리심' '청정무구한 불성'을 상징한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연꽃은

방사선으로 퍼진 바퀴살
윤회 가르침 암시
겨울연꽃의 속삭임
"인과의 철칙은 한 치 어긋남 없다"

극락정토의 상징이며 〈화엄경〉에서의 '연화장 세계'도 부처의 세계다.

연꽃은 다른 식물들과 달리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긴다. 이는 모든 중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불성'을 상징한다.

또한 연꽃은 밤에는 꽃잎을 오무렸다가 아침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태양과 함께 피고 태양과 함께 지는 까닭에 연꽃은 내세에서의 무량한 생명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연꽃의 생김새를, 축을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퍼진 바퀴살에 비유해 윤회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심청전〉에서도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연꽃으로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이때의 연꽃은 환생의 상징이다.

연꽃에 담긴 이러한 의미들은 피사체로서 갖는 매력으로 이어진다. 불자가 아니라도 사진 찍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연꽃을 렌즈에 담아본다. 여기에도 근기(根機)는 있다. 연꽃의 뛰어난 겉아름다움만을 좇는 사람은 한여름 한창 꽃필 무렵의 연꽃을 찾는다. 그러나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에게 연꽃은 겨울이 제일이다. 빙판에 미끄러져 카메라 렌즈를 깨뜨리면서도 그들은 새벽이면 연꽃을 찾아 떠난다.

겨울 끝머리, 뿌연 안개 속에서 연꽃은 말한다. 삶과 죽음이 한 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의 현재가 과거가 되고, 또 그렇게 미래가 현재가 되는 도리가 시간의 실체다.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든 과거와 현재, 미래는 마디지어져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의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겨울 연꽃은 또 이렇게 말한다. '현상만을 고정 불변의 실체로 여겨 집착하지 말 것이며, 인과의 철칙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음을 부절히 알라.'

글=권형진 기자
사진제공=선암 스님



◇한여름 화려한 연꽃 너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에게 연꽃은 겨울이 제일이다. 겨울 연꽃을 찍으러 양수리를 찾은 선암스님.

"겨울 연꽃은 매력적인 피사체"

연꽃사진 찍기 20년 선암 스님



"한겨울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연을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20년 넘게 연꽃 사진을 찍어온 선암(서울 봉원사 스님은 겨울이라고 특별히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스님에게는 겨울 연꽃이 더 매력적인 피사체이기 때문이다.

"연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다 다르다"고 말하는 스님은 "연꽃은 단순히 불교를 상징하는 꽃만이 아니다. 그 속엔 인간의 생로병사가 모두 담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스님에게 연꽃 사진 찍기는 포교요 수행이다. 스님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은 79년부터. 신도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 연꽃을 찍게 됐다. 이후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중국과 스리랑카, 미얀마 등 해외로도 연꽃을 찾아다녔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 며칠이고 기다리고, 몇 년을 같은 장소를 찾아야 될 때도 있다. '참고 기다리는 마음'까지 배워야 하기에 스님에게 연꽃 찍기는 '쉼 없는' 수행인 것이다.

"항상 찍고 나면 더 좋은 사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몇 번이고 다시 찾게 된다"는 스님은 "아직 청색 꽃을 피우는 우발라화를 찍지 못했다. 화엄경에 나오는 네 가지 꽃을 모두 카메라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차율무강정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는데도 만해 스님은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다.

오늘 아침 이동녕, 김동삼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군 부대로 달려가던 중, 독립군 초병이 잘못 쏜 총알에 맞은 만해 스님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스님, 총상이 너무 깊어 뼈를 갉아내고 내상을 치료해야 하니, 마취를 해야겠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스님은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오, 절대로 마취는 안 되오." 결국 스님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대수술은 시작됐다. 만해 스님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꿈을 불태우고 있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는데도 만해 스님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오직 입의 근육이 굳어져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스님을 첩자로 잘못 알고 피격했던 독립군 초병이 용서를 빌기 위해 병원으로 만해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울음소리에 잠이 깬 스님은 "막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율무 강정을 맛있게 먹고 있던 참이었는데…. 잠을 깨고 말았으니 어디 가서 어머님이 만드신 율무강정을 먹어 볼 수 있겠소?"

초병은 이틀 동안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한 만해 스님을 위해 흰죽을 끓여 왔다. "죽보다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율무강정을 주시구려. 어린 시절 정월대보름이면 나는 율무강정을 먹었었소."

미용, 다이어트를 돕는 율무와 녹차가 만난 차율무강정은 선승이나 수험생을 위한 별식으로 손색이 없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몸은 가볍게 머리는 맑게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율무튀긴 것, 조청, 강엿, 죽염, 생강즙, 가루차, 들기름

요리법 ① 조청과 강엿에 죽염, 생강즙, 가루차를 넣고 녹여 시럽을 만든다.

② 후라이팬에 들기름을 조금 두르고 위의 시럽을 끓이다가 율무 튀긴 것을 버무려서 쟁반에 평평하게 편다.

③ ②가 굳으면 먹기 좋게 썰어서 담아낸다.

• 기호에 따라 호박씨, 해바라기씨, 땅콩 등의 견과류를 약 50g 정도씩 섞어서 만들어도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⑲

又不云乎 言辭所說法 小智妄分別
우불운호 언사소설법 소지망분별
是故生障碍 不了於自心 不能了自心
시고생장애 불료어자심 불능요자심
云何知正道 彼由顚倒慧
운하지정도 피유전도혜
增長一切惡 伏望修眞高士
증장일체악 복망수진고사
依如上懇苦之言 先修深信自心
의여상간고지언 선수심신자심
是諸佛本源 以觀照定慧之力發出之
시제불본원 이관조정혜지력발출지
不可端居抱愚 效無分別 而爲大道
불가단거포우 효무분별 이위대도
所謂在纏眞如 昏散皆具 出纏眞如
소위재전진여 혼산개구 출전진여
定慧方明 總別條然 前後
정혜방명 총별조연 전후
無濫故也
무람고야

그리고 '말로 하는 설법은 작은 지혜의 망령된 분별이다. 그러므로 장애가 생겨 제 마음을 알지 못한다. 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바른 도를 알겠는가. 그들은 뒤집힌 지혜로 말미암아 온갖 악을 더할뿐이다' 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삼가 바라나니, 진리를 닦는 높은 선비는 이상의 간곡한 말에 의해 먼저 제 마음이 바로 부처의 근본임을 깊이 믿고, 그 근본을 비춰보는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어리석음을 안고 단정하게 앉아 분별이 없는 것만을 본받는 것으로 대도라 해서는 안된다. 얽매임 속에 있는 진여는 혼침과 산란이 들어 있고, 얽매임을 벗어난 진여라야 비로소 선정과 지혜가 밝아지는 것이니, 그것은 전체와 개체가 서로 조리가 있어 앞뒤가 질서정연하기 때문이다.

亦不可謂 現今治其染 當來得其淨
역불가위 현금치기염 당래득기정
不觀本妙 自生艱阻 而勞修漸行
불관본묘 자생간조 이노수점행
唯心訣云 或讓位 高推於極
유심결운 혹양위 고추어극
聖 或積德 望滿於三祇 不知全體現前
성 혹적덕 망만어삼지 부지전체현전
猶希妙悟 豈覺從來具足 仍待功成
유희묘오 기각종래구족 인대공성
不入圓常 從成輪轉
불입원상 종성윤전 지
爲昧於性德 罔辨眞宗 捨覺徇塵
위매어성덕 망변진종 사각순진
棄本就末 此之是也
기본취말 차지시야
是故 修心之人 不自屈不自侍
시고 수심지인 불자굴불자시
恃卽墮於此心 不守自性 能凡能聖
시즉타어차심 불수자성 능범능성
刹那造作 還復漂沈之用 是以
찰나조작 환부표침지용

또 '금생에 물든 번뇌를 다스려서 내생에는 청정해지리라' 하여 본래의 묘한 마음을 보지 않고,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점차로 닦아가는 수행을 택해서는 안된다. 〈유심결〉에 '보살의 지위를 사양하여 지극한 성인에게 미루고, 혹은 덕을 쌓아 삼아승지겁이 차기를 기다리고, 혹은 전체가 앞에 나타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묘한 깨달음만을 바라니 어찌 본래 구비해 있는 진여(眞如)를 깨닫겠는가. 이래서 공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된다. 원만하고 변함없는 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침내 생사에 헤매는 것은 단지 성품에 어두워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버리고 번뇌를 쫓아가고, 근본을 버리고 쫄기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 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사람은 비굴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않아야 한다. 의지하면 마음이 자성을 지키지 못하여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며, 찰나찰나로 조작하여 다시 떴다 잠겼다 하는 작용으로 돌아가는 데에 떨어지고 만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얽매임을 벗어난 진여라야
선정과 지혜가 밝아지는 것

가까이서 뵌 큰스님

보성스님

송광사 조계총림 방장

"계 지킴은 불자의 당연지사"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은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장서야 하는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송광사(松廣寺)를 품고 있는 조계산 능선은 수도하는 승려를 상징하듯 곧곧한 소나무가 빽빽하여 가히 총림(叢林)의 사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흰 눈발에 우뚝 서있는 소나무 숲에서는 유난히 푸르름이 짙게 배어났다. 문득 '승(僧)이란 깨끗함이니라' 라는 육조단경의 경구가 생각났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주석하는 삼일암은 대웅전 뒷편에 자리잡고 있었다.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상사당(上舍堂)에 이르니 어느새 목련이 한껏 꽃망울을 머금고 있었다. 봄이 멀잖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삼배를 드리고 자리에 앉으니 보성스님께서는 웃으시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오늘 절에서 자고 가나"라고 물으셨다. 그렇다고 하자 스님은 "절에서 예불도 드리고, 하룻밤 푹 쉬고 가라"며 먼저 찾아온 이의 마음을 편하게 다독여 주신다. 그리고는 나직히 말문을 여셨다.

"얼음 박빙이라. 내 마음이 빙판을 걷는 것 같아요. 옛날 태고 보우스님 밑에는 정몽주 이성계가 있었어요. 한사람은 고려 충신이고, 한사람은 나라를 세웠어요. 요새 사람들은 둘 다 좋다고 하겠지요. 알아서들 제 갈길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모두 개인의 욕심이 있어서 안되는 겁니다."

평소 소탈하면서도 자상하신 스님은 옛이야기를 빗대어 경책부터 하신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선방스님들은 24시간 함께 수행하면서 음식이 적으면 적은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같이 나눠먹는 마음이 있어요. 서로 함께 하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승단이 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율사로서 60년 가까이 생활을 해오신 스님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자리인 총무원 소임자에 도박전과가 있는 스님이 있다는 것에 격노하셔서 이런 말씀부터 하신 것이다. 승가의 위상이 무너질까 노심초사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까. (물의를 빚었던 성혜스님이 2월 5일 조계종 기획실장 자리를 물러났다)

스님은 언제나 계율의 중요함을 강조하신다.

"사람이 오관으로 인한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되는 일도 아니고 실천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거든요. 그래서 출가 사문에게는 몇 백가지의 계가 내려지고 재가자들에게는 오계가 설해져 있는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계를 몸에 지니고, 지혜를 기르고 마음을 한곳에 모아 안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삼학(三學)을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스님을 스님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율입니다. 출가도 계를 받들어 지키겠다는 출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계를 억지로 지키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율이 무슨 논쟁할 거리냔 말입니다.

19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범어사에서 수계산림을 하는데 자격이 안되는 사미들이 있더라구요. 내가 모두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당사자들은 죽기살기로 용을 쓰면서 수계를 시켜주지 않으면 범어사에 불지르겠다는 공갈까지 하는 겁니다. 우선 사중에서 놀래면서 어떻게 선처를 바라는 분위기가 자못 감돌았어요. 나는 부처님 법계의 일인데 마지막 승단의 보루인 계율마저 문란해지면 안되겠더라구요. 법난이 따로 있답디까. 그래 단호하게 자격미달자를 모두 탈락시켰고 마침내 그들 모두 퇴방했어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잘했다는 소리 일색이었습니다. 승단의 마지막 보루는 계율입니다. 지계정신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서슬퍼런 지계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정진과 해탈로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 "지계정신이 살아 있을때 정진과 해탈로 이어지는 것이죠"

차를 한 모금 마신 스님은 최근 달라이라마가 프랑스 불교열풍에 대해 경계한 것이 뭔 줄 아느냐고 물으셨다. "불교라는 말과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전통의식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수 천년간 쌓아온 정신적 지주를 한순간에 버려버리고 유행처럼 번지는 사상에 몰입하는 현대인들의 단순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부언했다. 스님의 말은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온 청정한 수행풍토가 무너지고 있음을 경책하는 말씀으로 들렸다.

스님은 이어 며칠 전 부산에 다녀온 얘기를 하셨다.

"부산에 가면 용두산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성철스님 상좌가 탁발해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은사스님이 보시하라고 했어요.' 한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 뭐꼬' 화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지요. 한가지라도 알뜰하게 배우고 수행해야 됩니다"

방장실에서 나와 뜰에 서 있으니 호남의 명산 조계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송광사 경내가 한꺼번에 다가왔다. 많은 유명 무명의 수행자들이 이곳에 찾아와 낮과 밤을 밝히며 수도하였고, 이곳에서 진리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벅차 올랐다.

객방에 짐을 풀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는데 저녁공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스님들은 넓은 강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바루공양을 하고, 재가자들은 공양간에서 공양을 했다. 누더기 장삼을 걸치고 작은 지팡이를 든 보성스님은 스님들의 공양하는 장면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재가자들이 공양하는 곳으로 들어오셨다.

"절에 찾아온 불자들이 공양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며 따뜻하게 한마디 하신다. 자상하신 스님의 면목을 살필 수 있었다.

저녁예불 후 땅거미가 내려앉자 상사당

原本秘傳
그림의 唐四柱大典
적중율이 높은 사주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선암 · 전호일 공저
B5/296면/25,000원
※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 · 중 · 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 적성에 맞는 직업
· 잉태한 달로 남녀 구별하는 법
· 길흉부적법 · 기초역리학
· 남녀궁합론 · 각종택일법
· 기초육갑법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흡수한다.
3.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4. 나쁜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송월 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25,000원
국내 최초의 역서!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垏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협부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협부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삼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협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집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원제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올림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보성 스님은

율원 발전 남다른 관심



몇 해전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조계종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보성스님을 뵈었다. 스님은 당시 송광사 제5대 방장으로 추대되기 전이었다.

구족계 수계산림에 증사로 오신 스님은 교육내용을 꼼꼼히 챙기며, 습의사로 참여한 율사스님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강조했다.

며칠 후 잠깐의 휴식시간에 송광사 사미들을 모아놓고 웃으시며 격려를 해주셨다. "만약 성적이 다른 사찰에 떨어지면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유머까지 곁들이면서.

옆에서 지켜보던 기자는 시험을 앞두고 먼 곳에 온 행자들을 친히 불러서 격려해주는 천진함을 지닌 참 따뜻한 노스님이라는 생각을 했다.

97년 11월 송광사 5대 방장으로 추대되신 보성스님은 송광사는 물론 파계사 해인사 등의 율사스님들을 대만 율원에 보내고 외국서적을 구입해 율원과 율사들에게 보내주는 등 계율의 중요성과 확립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

또 수계산림에 '삼보일배' 교육을 도입하는 등 승려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보성스님은 1928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45년 해인사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73년부터 1994년까지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91년 대만 불광산 계단교육 참학(존증사), 호계원 재심위원을 거쳐 현재 단일계단 수계산림 증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송광사 목우가풍 행자시절부터 엄격하게 습득

에는 송광사 행자들이 모두 모였다. 행자들은 스님에게 정중히 삼배의 예를 갖추고, 가지런히 앉았다.

보성스님은 행자들에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상하게 물어보신다. 이어 행자들에게 초발심이 중요하다며 송광사가 조계산문을 연 뜻을 잘 새겨서 계율을 잘 지키며 생활하라고 강조하셨다.

승가상 정립은 행자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행자때 부터 사미 사미니 까지는 정말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스님의 위의와 일상의례를 배워놔야만 하고, 그래야 구족계 보살계를 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평소 생각이고 이렇게 행자들을 자상히 챙기신다.

엄격하면서도 개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승풍. 송광사가 보조스님의 목우가풍을 면면히 이으며 청정승가의 표상이 되어 온 승보종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큰스님을 위시해 대중스님들이 '올바른 수행자상' 확립과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 길상사 선방에서 수행하는 덕조스님은 "방장 큰스님은 항상 생활속의 계율을 후학들에게 일깨워주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며 "방장스님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수행자다운' 스님들을 매우 아끼신다. 송광사뿐 아니라 파계사 해인사 확인들이나 율사들을 대만의 율원에 보내 수계의식을 참관케 하고, 계율관련 외국서적을 구해와 전국의 율사스님들에게 보내주시는 등 한국 율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다"고 말한다.

또 "직접 채소밭에 나가 막일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며 "밭에 물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면 소임자를 직접 불러 몽둥이를 드시는 엄한 분"이라고 보성스님의 평소 생활을 귀띔해 주셨다.

옛날 배고픈 시절 방장스님은 행자들에게 배고프면 언제나 먹을 것을 먹으라며 파격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며 자상함이 많으신 큰스님이시다고 회고하며, "다만 '음식을 돌아다니거나 서서는 먹지말라' 고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계율에 바탕한 가르침임을 알았다"고 덕조스님은 덧붙였다.

며칠 후 서울에 오신 보성스님을 뵈었다. 방장스님은 4일 열린 광덕스님 열반 2주기 추모법회에 법문하기 위해 먼길을 오신 것이었다. 광덕스님과 스님은 도반으로 함께 수행하고 정진했던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기에 추모 2주기 법회에서 직접 법상에 오르셨다.

광덕스님이 언제 사바세계에 왔다가 언제 갔는고.

해천명월초생처(海天明月初生處)요,



◇스님은 율원 발전과 송광사 목우가풍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 몸 받은 인연 소중하게 여기고 성불각오로 공부"

암수제원정효힐시(岩岫啼猿正歇時)로다.

(바다 하늘에 밝은 달이 처음 뜨는 곳이요,

바위산의 원숭이가 울음을 그칠 때라)

풍송단원귀령거(風送斷雲歸嶺去)하고,

월화류수과교래(月和流水過橋來)로다.

(바람이 보낸 조각구름은 산마루를 돌아가고,

달빛싣고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네)

이렇게 읊으신 스님은 대중들에게 "광덕선사가 열반했다고 하면 단견(斷見)에 떨어질 것이요, 열반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견(常見)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중이 알아 듣고 못알아듣고는 상관없이 광덕선사는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수미산에 올라, 구멍없는 피리로 시간밖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선사는 깨끗함이 눈처럼 희고, 법의 눈이 둥글고 밝았으며, 종단을 위해 진력하시고, 자비로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으니 그 공덕을 논하려면 바다같이 큰 입으로도 말하기 힘들것입니다" 라며 광덕스님의 뜻을 기렸다.

이어 스님은 불광사 법당을 가득채운 불자들에게 나직하지만 간곡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셨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인연 만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몸은 부모로 인해 얻었지만 불법은 어떻게 만났는지를 상기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맹구우목처럼 불법을 만나기 어려우니 한가지라도 실천하도록 하세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과 지구촌아래서 작게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나래를 펼쳐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안과 밖이 맞아야 합니다. 네 주장자 내 주장자 따지지 말고 부처님 제자로 크게 생각하는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교는 학문도 아니고 논설도 아니고 실천이 앞서야 하는 수행"이라는 것이 보성스님의 평소 신념이다. 사람 몸 받고 나온 금생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불의 각오로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흥륜스님

운문사 하면 먼저 대강백이신 학장 명성 스님을 떠 올리고 그리고 나면 학장스님 곁에서 수레의 두 바퀴 역할을 해 내는 두 분 스님이 저절로 떠오른다. 한 분은 지난호에 얘기한 일진스님이고 또 한 분이 흥륜 스님이다.

흥륜 스님은 내 외전을 두루 갖춘 분이기는 하지만 운문사 외에는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다. 한번은 은사스님의 권유로 성라암 주지직을 잠시 맡았지만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나는 운문사가 좋다' 하시고는 운문사로 홀연히 내려 가셨다.

'흥륜 스님'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운문을 나온 대부분의 스님들은 평가를 한다.

강원이 어떤 곳인가, 수행자로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 교육기관이 아닌가. 각자의 사찰에서 그 사찰에서 익혀온 온갖 습의들을 다시 뭉쳐서 곧은 수행자로 길러내는 곳이 아닌가. 흥륜 스님은 학인들에게 경(經)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한시도 한곳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곳, 도량 곳곳에서 수행자로서 약간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발견되면 그때 그때 고쳐주고 나무라시는 분이다. 때론 너무하다 싶고, 이 정도면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일같은데도 흥륜 스님한테는 용납이 안된다. 좀 개방된 스님들은 더러 불만을 말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어나는 불만일뿐, 아무도 흥륜 스님의 그런 모습에 반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스님은 사심이 없고 오로지 대중을 위해서 그러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평소에 보고 느끼기 때문이다. 만약 흥륜 스님의 행동이 학인들의 귀감이 되지 않았다면, 흥륜 스님의 충고에 다들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스님은 학인들의 뒤치닥거리를 손수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는데 누가 반감을 가지겠는가. 또 소임 잘 살고 공부 잘 하는 학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강의로 미소로 꾸지람으로 학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

나는 스님께 직접 공부는 배우지 못했지만 후배들 말에 의하면 스님은 경(經)뿐 아니라 사서삼경까지 두루 섭렵하신 분이라 그분의 강의시간은 훨씬 감칠맛 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스님은 보기와는 달리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 시사 월간지를 구독하시고 신문의 정치면도 빼놓지 않고 읽으신다.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만 가지고 보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쩜 가장 현대적이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앞으로 내세워 자랑하시지 않으신 분이기에 아마 그리 느낄 것이다.

스님은 특히 나이먹은 학인들을 더 좋아하신다. 나이 먹어 어렵게 공부하는 모습이 더 대견스럽고 또 어린 학인들을 잘 다독이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또 스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일반 음식점에 들어 가지 않는다. 한번은 서울역근처 찻집에서 잠시 뵈었는데 차을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오신 것이라고 하시고는 쪼랭이속에서 도시락이 아닌 빵과 김치를 꺼내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드시는 스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외계인 바라 보듯 했지만 스님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기를 하시고는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셨다.

스님이 길을 나설 때 시자는 으레 김치병을 챙겨드린다. 혹 요기라도 하실 때 드시라고 말이다. 요즘 대부분 스님들은 음식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다. 길가다가 배 고프면 적당한 음식점에 들어가 스님으로서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음식을 챙겨 먹기 마련이다. 누가 흥륜 스님 처럼 김치병 넣고 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겠는가. 이렇게 스님은 가식 없이 몸에 배인 수행을 학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흥륜스님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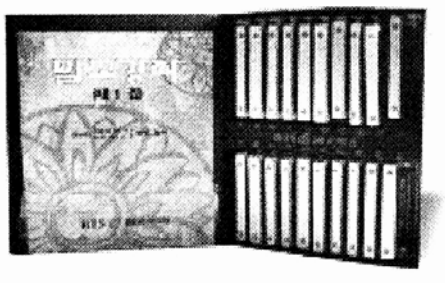
되는, 보배 중의 보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스님이 은사스님의 간곡한 권유로 서울에서 잠시 주지소임을 사셨을때 그때 나는 공부를 한답시고 뒷방에서 신세를 좀 진 적이 있다. 서울 살림이 어떠한가, 매서운 곳 아닌가. 돈 없는 시골 학인이 서울 올라와 공부하고 싶어도 거주할 곳이 없어 믓하는 경우가 많은데 흥륜 스님은 있는 방 모두를 공부하겠다는 학인들에게 내 주고 교통비까지 주셨다. 다른 서울 절에서 찾아 보기 힘든 '진풍경' 이었다. 당시 공부한답시고 모두들 아침 밥 먹으면 학원으로, 학교로 다 나가면 절에는 스님 혼자 남아 이것 저것 꾸려 나가야 했는데도 스님은 후학들 양성에 운문사에서나 서울에서나 변함 없이 덕을 베푸는 분이시다

옆에서 늘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때론 호된 꾸지람으로 귀가 번쩍 뜨이게끔 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는 운문 도량, 그 도량에 주석하시며 비구니계, 나아가 불교계에 큰 자리매김을 하시고 있는 흥륜스님. 스님의 해박한 강의를 오래오래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 세원사 주지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 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제 5 기생

원봉불교 어산의식 교육원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기본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3개월 ▷ 준 비 물 : 목탁, 요령(별도구입) ▷ 교육내용 : ① 기본예의 ② 천수경 ③ 행선축원 ④ 예불 ⑤ 목탁 치는 법 ⑥ 요령
중급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기본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기 간 : 1년 ▷ 교육내용 : ① 상주권공 ② 대령관욕 ③ 권공 ④ 지장청 ⑤ 시식(관음시식, 전시식, 구병시식) 천수북, 법성계북, 장엄염불, 진언쇄줄 등
연구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중급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기 간 : 1년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교육내용 : ① 의식을 실습하고, 각종행사에 동참 할 수있음 ② 예수 제의식 ③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나비춤등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일 시 : 2001년 2월 20일(음력 1월 28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
※ 장 소 :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222번지 작약산 광제암 ☎ 055)391-1274 핸드폰 011-833-4404
※ 기 타 : ① 중급 및 연구과정 이수자에게 본 교육원 수료증 수여 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사무실로 문의 바람. ③ 교육기간 : 기본 및 중급과정 오전 9시~12시 30분

작약산 광제암 주지 원 봉

개원 10주년 기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우리 도량에서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기념 법회를 봉행하오니 이 거룩한 인연 공덕의 자리에 꼭 동참하시어 불 보살님의 크나큰 가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불기 2545년 3월 1일(목) 오후 2시
【장 소】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청 옆)
【내 용】
· 제1부 - 기념법회
· 제2부 - 보살계 수계식
· 제3부 - 축하공연
(※ 명창 오갑순 외 다수 출연)
· 제4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문의전화】 사무국 02)389-8966 02)387-8529

광 운 정 사
부설 광운불교대학
주지 청운 합장

기자모집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하며 전국 6만5천 후원자를 대상으로 월 1회 홍보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시설 - 소쩍새마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장애아동생활시설, 녹야원 순회재활/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그룹홈 4개소, 어린이집 3개시설

▣ 자격조건
1. 197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잡지, 사보관련 기자 경력자 우대
3. 불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우대

▣ 모집기간 및 인원
1. 모집기간 : 2001년 2월 17일 (토)까지
2. 모집인원 : 0명

▣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위주)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전형방법
1. 1차전형 : 서류심사 2. 2차전형 : 면접

▣ 접수처 및 기타
1. 접수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 총무부(우: 136-075)
2. 문의 - Tel. 02) 928-0750 Fax. 02) 928-0752
3. 법인소개 - http://www.sgwon.or.kr
4. 기타 - 제출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승 가 원
(The organs for social welfare - SEUNGAWON)

불교문화 해외나들이

'2001년 한국방문의해'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문화와 문화상품의 해외 나들이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52억의 개런티를 받은 피엠씨 프로덕션의 버벌 (대사없이 동작과 소리만으로 공연하는 비언어극) 뮤지컬 '난타'가 9월부터 미국순회공연에 나설 예정이며, 극단 에이콤의 뮤지컬 '명성황후'도 가을 겨울 일본, 영국 공연을 추진중이다. 또 극단 학전의 번안 연극 '지하철 1호선', 극단 백심의 연극 '산씻김' 등 우리 연극들도 대거 해외 공연에 나선다.

이같은 문화계의 바람은 교계도 무관하지 않아, 올해 불교 관련 공연과 전시들이 해외에서 다수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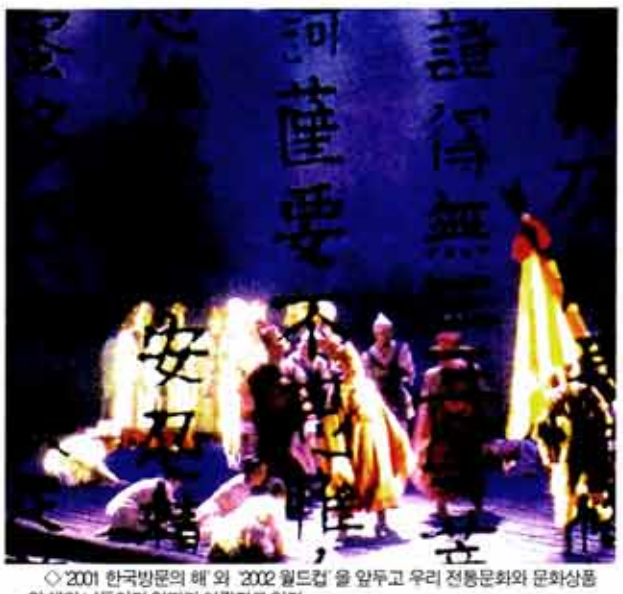
불교 문화의 진수를 담은 영산재가 일본에서 공연된다. 영산재보존회는 10일 서울 봉원사에서 일본 국립극장 관계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28일 경 일본 국립극장에서 공연한다. 이 공연에는 무형문화재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동국대 교수)을 비롯 30여명이 참가해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다.

28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선무(禪舞)가 이선옥씨도 해외공연에 나선다. 행선(行禪)의 원리 그대로를 춤으로 옮겨 춤을 통해 자신을 관(觀)하는 선무의 창시자인 이씨는 오는 7월 경 호주 타즈매니아 페스티벌에서 '색즉시공 2001'을 선보일 예정이며, 미국서 열리는 세계 무용 워크숍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도 우리 불교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문화포교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행자 우리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해외에 직접 나가 우리 문화의 장을 펼쳐 보이려는 것이다. 종단협 김석오 과장은 "현재 한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불교 공연, 퍼포먼스, 문화체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협의 중이며, 회의를 거쳐 3월경 구체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관광부에서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재외문화원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펼친다. 사물놀이, 가야금 등 우리 전통음악공연과 우리영화상영, 한국음식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여는 것. 특히 오는 5월 15~16일 미국 패사디나에서 세계적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테마로 한 뮤지컬 '팔만대장경'을 공연한다. 문화관광부는 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한일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일본문화청 및 국립도쿄박물관 함께 '한일문화재 상호교류전'을 3월~7월 서울과 도쿄, 오사카 등지서 열 계획이다.

뮤지컬 '팔만대장경' 5월, 미국
영산재 日 국립극장 공연 7월, 일본
이선옥 선무 '색즉시공' 7월, 호주



◇'2001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상품의 해외 나들이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앞산이 겨울햇살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에 빠져있다. 그 위의 창공으로 새 한 마리가 직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부동의 정진과 경쾌한 비상. 이제 봄기운이 돋고 동안거도 끝났으니 많은 납자들이 운수행각을 떠날 것이다. 선수행은 정(靜)과 동(動)의 순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삭발한 머리에 삿갓을 쓰고 봇짐에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여행에서 인생과 예술의 의미를 추구한 방랑시인이 있었다. "해와 달은 영원한 여행객이요, 오고 가는 세월 또한 나그네이다. (…) 어느 해부터인가, 나도 조각구름을 몰고 가는 바람결에 이끌려 방랑하고픈 생각이 끊이지 않아, 저 먼 변방의 해변을 정처 없이 거닐다가 …"

깨달음의 경계를 노래한 선사들의 게송의 경지를 '하이쿠'라는 17자의 짧은 민중시 형식 속에 담아내어 독특한 미학의 세계를 구축한 17세기 일본의 시인 바쇼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여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절과 자연의 명소를 찾아 3권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썼는데, 그 중에서 〈오쿠의 오솔길(奥の細道)〉은 현대 일본인들이 가장 애독하는 고전이 되었다. 세속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바쇼는 자신의 예술관을 이렇게 들려준다.

바쇼 '오쿠의 오솔길'

여행기이면서 집착 버리는 법 가르쳐 주는 책

"시와 그림과 다도를 관통하여 흐르는 근본정신은 하나이다. 그들과 더불어 하이쿠에 뜻을 두는 사람은 우주만물의 생성에 순응하고, 사계의 변화를 파악하여 그것을 표현해 간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 속에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새나 짐승과 다름이 없다. 우주의 무한한 생성의 힘에 순응하고, 거기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젊은 시절 임제종의 스님에게서 선을 배운 바쇼는 예술적 실천의 방편으로 시작(詩作) 여행에 일생을 바쳤다. 그 결과 탄생한 바쇼의 하이쿠는 근대 이후 일본이 세계에 수출한 유일한 문화상품이 되었다. 프랑스 상징주의로부터 영미 이미지즘을 거쳐 중남미 포스트모더니즘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하이쿠는 무한한 영감의 샘이 되어왔다. 그들은 이 책을 이렇게 평했다. '심안을 뜨게 해주고 육체를 가볍게 해주는 고요가 깃들은 책', '여행기이면서 집착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여행은 '스스로와 이별하는 연습'으로 방하착(放下着)를 가르쳐 준다. 여행 중에는 존재의 연약함에 대한 감성이 예민하게 발현되고, 따라서 깨어지기 쉬운 실존의 불안정감을 쉽게 포착하게 해준다. 그럴 때 인간은 나무와 바위와 구름과 시냇물에서 묘한 동료애를 느끼며 교감을 가지게 된다. 바쇼는 여행 중 입석사(立石寺)에서 마주친 산사의 정적을 이렇게 노래했다.

고요 속에서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울음소리.

■문학평론가



◇김한길 문화부 장관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혜자 어린이와 사랑의 메시지를 낭송하고 있다.

BBS '거룩한 만남' 500회 기념행사 1천여명 성황

불교방송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5백회 생일을 기념하는 특집 공개방송이 3일 정동이벤트홀에서 열렸다. 도현 스님(거룩한 만남 진행자)과 김병조(방송인)씨가 진행한 이날 행사는 영상으로 꾸민 거룩한 만남의 '어제와 오늘', 수혜자 정희진 양의 '사랑의 메시지' 낭송, 불자가수 김종환과 장사익씨의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해 "불교의 자비와 사랑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광림사 주지 해성스님과 연화 꽃꽂이회 회장 보명 스님이 5백번째의 수혜자인 전남 고흥군 거금도의 소년소녀 가장 7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91년 4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은 10여년 동안 25억여원을 모금해 장애자 및 불우이웃 5백가구에게 보시했다. 김주일 기자 (jkm@buddhapia.com)

불교음악 '대중곁에'

불음협 수시로 작은음악회
삼음협 '아미타불' 재공연

지난해 초 불교문화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출범한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의 삼보불교음악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해 불교음악계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나섰다.

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는 지난해 공연했던 오페레타 '아미타불'을 오는 23일 제주도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신도용 찬불가집 제작에 착수해, 앞으로 전국의 법회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지부와 지회를 설치해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불교음악협회(이사장 반영규)는 연중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를 수시로 열어 불자와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작은 음악회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불교음악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 찬불가 가운데 불자들이 애창하는 대중적인 음악으로 불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불교음악협회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불교음악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불교음악 창작의욕을 고무하겠다는 포부다.

척박한 불교음악계의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활동계획으로 새해를 시작한 이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문화소식

"외국 관광객 맞이 소홀"
문화부, 국민관광의식 조사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93.1%)가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관광사업 육성에 대해 동의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매력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가 최근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다.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상인 73.6%가 알고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방문의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로 '관광산업발전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35.6%)를 꼽았다.

그러나 외국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상태에 대해서는 국민 78.2%가 잘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해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관광객 맞이 준비상태를 점검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관광객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한 물음에는 친절의식, 질서의식 등 국민의식개혁(58.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교통문제해결(50.1%), 거리환경, 화장실 청결 등 청결한 공공시설(40.3%), 먹거리 놀거리 등 관광자원 개발(1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27일부터 전국의 성인남녀 1천 66명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 향토문화자원' 발간

문화관광부가 정한 '지역문화의 해' 개막에 맞춰 21세기판 〈동국여지승람〉을 표방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이 출간됐다.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펴낸 이 책은 총 6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2,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232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별로 역사 문화 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 관광안내서와 달리 시군구의 인구 면적 등 지역현황, 문화예술단체와 예술행사, 지역출신 예술인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시켰다. 문화원연합회는 책 전체 내용을 CD롬으로 제작했으며, 홈페이지에도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02)704-2311

삼표동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어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주문시 전구간격
기존은 2주전 주문(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TG 반도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휴식은 설악 현대 훼미리 에서...
1,584만원 (23평형) ☞ 350만원에



※ 보증금 안정성보장 – LG화재 (주) 상환성 보험증권 발행

특별가입 내역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사용입수	객실수	객실형태
23평형	1,584만원	350만원	30박	477실	방2/거실1

제주 2박 3일 무료이용권 증정 (항공권 별도)
온라인/카드 결제 안내
-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특별가입 혜택
※ 2000년 스키장 리프트 무료 / 할인권 증정
- 청평, 설악 VIP 초대권 증정
- 회원 입회비 / 연회비 평생 면제
- 공동 명의 구입 가능(카드 추가 발급)
- 10년간 정회원 이용
-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 및 연장 가능
- 양도 / 양수 / 매매 / 상속 가능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 (12-18개월)

전국 23곳 사용 현황
설악권/설악, 평창, 알프스 경기권/양평, 용문산, 가평, 청평, 인천 중부권/천안, 도고, 충주
남부권/울산, 남원, 지리산, 구례, 순천, 해남, 경주, 부산 제주권/서귀포 해외권/사이판

(주) 현대 훼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문의 안내 02) 3444-7580

"애정과 이해는 훌륭한 번역 첫걸음"

"번역에 있어 원저의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도의 영적 스승으로 추앙 받고 있는 오쇼 라즈니쉬의 책만을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 손민규(40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씨는 번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손 씨가 라즈니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강원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 헌책방에서 우연히 손에 쥔 한 권의 라즈니쉬 책이 젊은 철학도의 길을 바꾸게 한 것이다. 그 후 손 씨는 춘천시내 서점은 물론 서울까지 드나들면서 라즈니쉬의 책을 섭렵했다. 그의 이 같은 독서열의는 영어판 라즈니쉬 책을 읽게까지 했다. 그러나 짧은 영어 독해력으로 영어판 책을 읽고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사전을 옆에 놓고 빨간 밑줄을 치며 몇날 며칠을 읽었습니다. 두 번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 씨가 번역가의 길을 가게된 동기다. 이렇게 우리말로 옮긴 책이 출간됐고, 지금까지 라즈니쉬의 종교비판서 〈신과 악마 완벽한 커플〉(시간과 공간과 〈금강경〉(태일)을 비롯해 35권을 내놓았다. 다음 달부터 매달 도서출판 지혜의 나무에서 명상서 4권을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50여권을 번역한 대만의 체타나에 이어 라즈니쉬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한 것으로는 그가 두 번째다.

책과 삶

명상서적 번역가

손민규 씨

라즈니쉬 책 35권 옮겨

사이트 명상나라 운영

'유식' 관련 책을 즐겨 읽을 정도로 불교학에도 남다란 안목을 갖추고 있는 손 씨는 라즈니쉬 책을 번역하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귀띔한다. 라즈니쉬의 책에는 한국 선불교에 대한 일화가 종종 나오는데 거의 모두가 일본불교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독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번역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원문에 충실했다'는 말이다.

'번역가는 글쓴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손 씨에게 라즈니쉬는, 지극한 애정의 대상 정도가 아니다. 그에게 있어 라즈니쉬는 '공기' 같은 존재다.

또한 그는 번역 이외에도 명상 수행자들을 위한 사이트 명상나라(meditation.co.kr)도 운영하고 있다. 라즈니쉬를 비롯해 동 · 서양의 영적인 명상가 20여명의 가르침과 각종 명상법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명상 음악 등 명상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김중근 기자

'인간' 해탈로 가는 고통의 존재

'끝없는 물음, 인간' 이효범 지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동 · 서양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인류의 화두다. 이에 대한 탐구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종교와 학문 그리고 사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왔다. 최근 출간된 〈끝없는 물음, 인간〉(소나무)은 그런 다양한 탐구 가운데 종교, 학문 그리고 한국의 전통사상 등 세 개의 창으로 나눠 인간에 대해 묻고 답한 연구서다. 글쓴이는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 '인간론'을 강의해 온 이효범(효문화연구소장) 교수.

철학 · 심리학 등 각 분야 인간이해 지평 넓혀 원효 '보살형' 인간 제시

인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이 책은, '인간은 소우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소우주인 인간의 오묘함을 밀도있게 살피기 위해 여러 관점과 분야로 서술 범위를 확대해 간다.

인간에 대한 정의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하다. 관점의 차이 때문이다. 종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교리나 사상에 따라 인간을 보는 시각은 천양지차로 갈라진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글쓴이는 여러 경전을 토대로 '불교의 인간론'에 대해 천착한다. 그는 우선 〈비유경〉의 '흑백이서(黑白二鼠)'의 비유에서 가장 쉽게 불교의 인간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는 미망한 인간의 생활을, 코끼리는 무상을, 빈 우물은 생사의 샘을, 독룡은 죽음의 그림자를, 네 마리의 독사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대를, 칡넝쿨은 생명선을, 검은 쥐와 흰쥐는 밤과 낮을, 다섯 방울의 꿀물은 오욕락을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즉 인간은 무지에서 비롯된 망상 속에서 오욕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범부라고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 즉 해탈의 길을 제시했다. 따라서 불교에서의 인간은 실천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을 '해탈을 지향하는 고통스런 존재'라고 정의한다. 반면 기독교에서 인간은 구원의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죄인이며, 예수의 부활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우리 역사상 빼어난 사상가인 원효 스님을 통해서도 인간을 살피고 있다. 이른바 '원효의 인간론'을 탐구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보살'임을 강조한다.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이러한 주장은 원효 스님의 〈기신론〉, 〈금강삼매경론〉 등에 나타난 원효 스님의 사상을 깊이 있게 탐구한 결과다.

이밖에도 글쓴이는 인류학, 생물학, 신경생리학, 심리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며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값 1만3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서양인에 주는 불교 메시지"

서양철학과 불교



일본의 비교철학자 미네시다 히데오의 '서양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말로 옮긴 〈서양철학과 불교〉(김승철 옮김, 황금두뇌)가 나왔다.

서양에서 불교가 어떤 시각에서 수용되었는가를 살피는 일은, 기독교가 불교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받침대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서구사상, 그리고 그 서구사상의 요체가 되는 기독교와 동양의 불교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서구사상이 동양사상(불교)을 어떻게 '오해'하여 왔는가를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불교는 무신론이다.'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는 아니다' 등이 서양이 불교를 잘못 받아들이는 대표적 예다. 서양에서 불교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기독교가 정신적 문화적 바탕이 되었던 보편주의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 입장은 신을 세우는 기독교만을 진정한 종교로 보기 때문에 범신론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독교를 기준으로 왜곡된 서구의 불교이해를 바로잡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긴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서구화된 오늘의 우리 사회도 정색을 하고 읽어야 할 책으로 보인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분단과 이산아픔 그려

'이산타령 친족타령'



50여년간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소설가 이호철 씨의 소설집 〈이산타령 친족타령〉(창작과비평사)이 나왔다.

이 소설집은 이산과 재회를 그린 표제작 '이산타령 친족타령'을 비롯해 6.25전쟁 중 상급장교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돼 총살 당할 뻔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하사관의 이야기 '비법 불법 합법' 등 아홉 편의 중 · 단편소설을 묶었다.값 8천원.

백봉의 명쾌한 재가불교 강의



'유마경 대강론' 김기추 지음

〈유마경 대강론〉(불광)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불리는 백봉 김기추 거사가 〈유마경〉을 강론 형식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이 경전은 바아살리를 무대로 주인공 비마알라 카르티와 부처님 제자들의 대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희곡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유마경〉의 문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었던 것도 이러한 편집체계와 높은 사상성 때문이었다. 특히 이 경전은 보살행을 강조, 불국토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인공 유마는 불교 교단에 진보적 바람을 일으킨 주역으로, 악과 불의에 물들지 않고 아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보살의 길임을 역설한다. 오늘날까지 유마의 정신이 빛나는 것도 집착, 편견 등의 세속적 얽매임에서 벗어난 무아의 변증법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신행 초석 다지는 불교의식 이해

정각스님 지음 '한국의 불교의례 I'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의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의식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불교의례에 대해 잘 몰랐던 불자들이 있다면 〈한국의 불교의례 I〉(운주사)을 자신 있게 권한다. 불교의례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 신행의 주춧돌로 삼을만한 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 정각(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스님은 한국불교의 의례에 대한 연구에 앞서 '불교의례의 의미'부터 살핀다. 불교의례는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탈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2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3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4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6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 지	민 족 사
7	깨달음 뒤의 깨달음	소갈린포체	민 음 사
8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9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10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철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트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02)586-9078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도난 성보 해마다 30여점

●캠페인을 시작하며

84년부터 15년 동안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모두 316건에 453점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99년 7월 내놓은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의 집계다. 84년 이후 매년 30여 점 이상의 불교문화재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84년 이전에 도난 당한 불교문화재는 자료부족으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도난 건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찰 성보현황 파악 안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전통사찰 대부분이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 뒤집어 말하면 사찰은 범인들에게 가장 좋은 공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문화재를 지키는 데만 몰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통사찰마다 경찰이나 공익요원을 배치해 감시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사찰이 개별적으로 경비인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불교계가 소장한 성보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급 미술품이나 도예품 등 중요 유물들이 '지키는 손' 보다는 '훔치는 손'들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95년 1월 27일에 발생한 보물 제1043호 '송광사 16조사 진영'의 도난 사건을 보자. 당시 송광사나 관리 당국은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 순찰을 맡을 관련 공무원을 배치했고, 3년 전에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외형상으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그럼에도 범인들은 벽을 뚫고 침입해 유유히 영정을 훔쳐갔다.

도난 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도난방지 경보기는 설치 당시부터 말썽을 부리다가 도난 당시에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문제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95년 1월 도난당한 송광사 16조사 진영중 8세 자각 도영 조사의 진영.

물론 허술한 관리의 책임이 문화재 관리 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계의 성보문화재 관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아직 전국사찰에 산재해 있는 성보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재 관리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불교 문화재 조사 예산 배정 등으로 불교계의 자구노력에 적극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어렵게 개정 절차를 밟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하루 빨리 시행해, 문화재 절도, 도굴, 매매 등 문화재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도난 늘고 처벌 솜방망이

불교계의 각 종단도 성보 관리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를 지키는 일도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미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는 일도 미룰 수 없다. 때문에 현대불교신문사는 2001년 한 해 동안 도난문화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경찰청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 오종욱 기자

경주 남산 불상 88기 디지털 입체 도면화

컴퓨터 3D 레이저 스캐닝

코나 얼굴, 손 등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불상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을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경주 남산의 불상 유적을 레이저 카메라로 촬영한 뒤 디지털 화상으로 저장해 복원 자료로 활용하는 첨단 실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컴퓨터를 이용한 3D 레이저 스캐닝 작업으로 경주 남산의 불상 88기의 형상을 디지털 도면화하는 정밀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 측량기술을 응용한 이 작업은 카메라에서 레이저빔을 쏘아 광선이 유적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컴퓨터로 계산해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고선 작업으로 불상의 명암과 굴곡을 표현한다. 손으로 스케치하던 기존 평면도와는 달리 불상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 또 4면에서 모두 촬영한 후 컴퓨터상에서 조합하면 어느 각도에서의 도상도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다.

99년부터 이 작업을 위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이윤석 학예연구사는 "레이저 정밀카메라를 들고 일일이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불상의 미세한 특징까지 잡아내 원형을 살려낼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지금까지 삼릉계곡 등지의 불상 31기를 디지털 화상으로 저장해 놓았고 올해는 3월부터 탑곡 불상 등 35기의 도면화 작업을 시작한다. 동시에 턱 부분이 훼손된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66호)의 복원모형 제작을 추진한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선재동자 구법행 본받게 하소서"

의천 스님의 입송구법

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의천(義天)의 송 구법은 송 황제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송 거란과의 관계때문에 고려 조정에서의 입송 허락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한 달간의 밀항도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의천이 밀주 지사에게 보낸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몰래 고국을 떠나 바다에 몸을 띄웠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푸르른 물결만 보였으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바다에 배만이 있었다".

진수정원 법사의 초청

의천은 현수의 교관으로부터 대·소승의 경율론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일찍부터 송나라로 가서 도를 구할 뜻을 갖고 있었다. 당시 유명한 화엄학승인 진수정원 법사로부터 초청을 받자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다. 의천은 여러 번 입송 구법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은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확고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고려는 송의 연호를 쓰지 않고 거란의 연호를 쓰고 있었으니, 고려와 송나라는 거란과의 관계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의천 스님이 건너와 상륙했던 교주만(판교진) 전경.

다음 해인 1085년 4월 초파일에 의천은 왕과 태후에게 올리는 글을 남기고 제자인 수개(壽介)를 데리고 미복으로 정주에 이르러 상선을 타고 떠났다. 그때 중형인 선종에게 남긴 글 '송나라에 들어가 불법 구하기를 청하는 표'이다. 거기서 의천은 "법을 물은 선재는 스승을 구하는 데 모범을 드리웠거늘, 하물며 상법이 쇠한 때에 밝은 이의 초청을 받고서도 찾아가 도를 물을 마음이 없다면 반드시 법을 구함에 게으름이 있는 탓일 것입니다" 라는 간절한 구법의지를 보이고 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급히 조정의 관료와 의천의 제자인 낙진 혜선 도린 등을 보내 뒤따르게 했다. 몰래 상선을 탄 의천의 구법의지는 선재가 선지식을 찾아 일생 구법한 그 신심과 의지를 능가하고 있다 하겠다.

의천의 구법 의지는 '우란분재일에 향불을 팔에 태워 발원하는 소'에도 잘 나타나 있으니, "오늘의 좋은 인연을 의지해서 몸소 일백성을 두루 돌며 스승을 만났던 선재동자의 구법행을 본받게 하소서"라고 발원하고 있다. 그러한 의천의 구법행을 상국사(相國寺)의 종본(宗本)은 "그 누가 만리의 큰 물결 위에 법을 위해 몸을 잊고 선재동자 본받으랴. 염부단금 얻는 것은 실로 드문 일인데 우담발화가 불 속에 피었네" 라고 찬탄하였다.

의천이 선재동자가 스승을 찾아 구법 순례의 길을 걸어간 그 위법망구의 마음으로 배를 타고 와서 머물렀던 판교진에서 의천을 기리며 기념제막식을 갖고, 이어서 한국성(韓國城)을 짓는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 한중 교류증진을 위해 교주시에서는 유적지 부근에 한국교민들을 위한 한국성을 짓고 있다. 교주에는 40여 개 국가에서 300여 개 외자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 180여 개 업체가 한국기업이라고 한다.

한국성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전남 우리를 만찬에 초대한 중국국제상회 교주상회의 채진산 회장은 한국성의 부지가 62546 평방미터에 건평이 62000 평방미터라고 설명했다. 한국성은 상업구역과 주택구역으로 나뉘어 건설되는데 이미 2개월 전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2001년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옛날 신라인의 집단거주지인 신라방을 생각나게 했다. 한국성은 신라방의 재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성' 연말 완공 예정

한국성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다시 교주 호텔에 가서 점심을 대접받고는 새로운 여정에 올랐다. 교주시에서는 우리 일행이 교주시를 벗어날 때까지 경찰차로 호위해 주었다. 대각 의천이 송왕이 보내준 안내원의 호위를 받고 변방을 향해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는 장보고가 활약한 무대며, 신라방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적산의 법화원을 향해 달렸다.

"무구정광다라니경 751년 제작"

문화재硏 박상국 실장 주장

'702년 낙양인쇄설' 반박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이래 간행시기에 대한 뚜렷한 기록이 없어 석가탑이 세워진 751년 이전이라는 것 외에는 702년 설, 704년 설, 706년 설 등 아직도 제작년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실장은 최근 문화재 전문학술지 〈문화재 33호〉에 발표한 글을 통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4년 중국에서 한역되어 신라로 들어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다라니경은 751년 석가탑 건립을 계기로 목판본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논란이 되고 있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701년에 한역되어 702년 중국 뤄양(낙양)에서 인쇄한 것"이라는 중국 학자 반길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751년 간행설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704년 한문으로 번역됐다는 주장은 처음 나온 것이다.

박 실장은 불경 번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원석교록〉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704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측천무후 집권기에 사용한 연호인 '천후(天后) 말년'에 역경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 702년 제작설은 '천후 말년'을 측천무후가 집권(684~704한 '말기'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경주 황룡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명문 등으로 미뤄볼 때 다라니경은 706년경 신라에 들어와 이후 조탑(造塔) 공양용으로 널리 쓰였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문화재단신

부여 왕흥사지 사적지정

백제시대에 창건된 충남 부여 왕흥사지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강원도 고성 문암리 선사유적(제426호) 충남 부여 관북리 백제유적(제428호)를 사적으로 지정했다.

충남 문화유적 분포지도

충청남도 태안군과 서천군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나왔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태안군 편〉과 〈서천군 편〉에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자,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실려 있다. 이 두 책자에는 측척 5천 분의 1 지도에 유적의 위치가 자세히 표시돼 있어 문화재 관리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학술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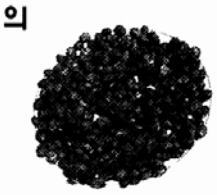
가산불교대사림 3권 출간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모두 15권으로 완성될 '불교 대백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의 3번째 권을 최근 내놨다. 4·6배판 1095쪽으로 된 3권은 '나羅'에서 '당망 幢網'까지 5191항목을 담았다. '당면-마마계보살'까지 7800여 항목을 실은 4권도 곧 나올 예정이다.

해인사 박물관 학예사 모집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학예연구사를 뽑는다. 대상은 4년대 대학에서 미술학, 미술사학,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남자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40세 이하, 박물관 근무 경험 3년 이상인 사람을 우선 채용한다. 접수는 22일까지. (055)931-100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쪄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제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버들강아지 잎망울 피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가슴에 온기를 더할때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도반이었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 영 숙

▷ 승용차 운행:전화약속(30분소요)
영등포역→신세계 백화점 정문
역곡 남부역쪽 1호선 하차→
기업은행 정문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직통전화 : 031) 315-5429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한국문화의 정확한 이해
韓國文化敎養大學院
제1기 수강생모집 (3년 야간)

1. 우리民族文化의 根幹인 佛敎와 東洋思想 · 老莊 · 哲學 · 科學 · 宇宙와 人生 · 生命思想 등의 정확한 뿌리를 알자!
2. 오늘날 社會의 倫理 · 道德이 없다고 외치지 말자! 修身 · 倫理 · 道德敎育이 없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인가?
3. 韓國의 知識人들이여! 이제라도 子女와 社會敎育의 뿌리를 찾자!

■ 개 강 : 2001. 03. 03(토) (금, 토 강의)
■ 수 업 : (금) 18:30 - 20:00. 佛敎, 해심밀경, 장자, 生命思想
(토) 18:30 - 20:00. 佛敎, 哲學, 科學, 物理學, 宇宙와 人生
■ 참 선 : (토) 17:30 - 18:30. 禪의 原理와 修行
■ 수업료 : 1학기 380,000원(통신 40,000원 추가)
■ 서 류 : 수강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각1부
■ 안 내 : 02-765-3571

목멱산선우회
한국문화교양대학원
100-272 서울 중구 필동 2가 84-1 충정사
전철 충무로역 남산골 02)765-3571, 02)923-4162

『스님을 찾습니다』
5~6년전
경기도 오산 세교동
「세마사」에서
정중 스님을
친견했던 거사입니다.
스님,
꼭 만나뵙고
싶으오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375-7063

눈빛에 빨려드는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⑲

(18) 법성사의 욕불절(浴佛節) 성회

자사 소앙은 고을마다 관첩(官帖)을 내렸다. 법성사에서 열리는 달마 조사의 대법회에 될수록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때맞춰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참선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소앙의 일념이었다.

법성사의 욕불절 성회는 그야말로 장관(壯觀)이었다. 절 안팎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이 내걸렸고 오색으로 채색된 띠가 사방 팔방에 펄럭거렸다. 소식을 들고 곳곳에서 찾아온 스님들로 절 안엔 머물 곳조차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수많은 대중들까지 몰려들었으니 법성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절 경내엔 천 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이미 빈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돌로 높이 쌓아올린 강경대에는 제단이 설치되고 그 위엔 커다란 구리향로가 놓여 있었다. 향로에선 세 줄기 향불이 실같이 피어 올랐다. 제단 앞 연화보좌엔 노란색 방석이 깔려 있었다. 이윽고 달마 조사가 그 자리에 앉았다. 굵은 눈썹, 날이 우뚝 선 코, 노인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우람한 체격은 만장을 압도했다. 달마 조사는 오늘 따라 붉은색 가사를 걸치고 손에는 검은색 염주를 쥐고 있었다. 강경대에서 좌중을 둘러보는 그의 눈에선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는 그 눈빛에 빨려드는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숙연해진 천여명의 청중

달마는 큰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대중들을 둘러보면서 합장했다. 이 땅에서 최초로 펼치는 대규모 법회이기에 분위기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일찍이 석가모니께서 지혜의 횃불을 높이 들어 길 잃은 중생을 구하고 우주를 밝혀 준 이치를 달마 조사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설파했다. 나아가서 오늘날의 불교가 여러 갈래의 종파로 나뉘어 분쟁하는 실상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정(淨)과 오(悟)를 숭상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달마는 많은 예화(例話)를 들면서 구슬을 굴리듯 선종의 법요를 강론했다. 어떻게 입정(入定)에 들어가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며, 어떻게 마음을 비워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지를 가슴에 와 닿게 설명했다. 천여 명이 넘는 청중들은 숙연했다. 감격과 존경의 눈빛이 일제히 달마 조사의 몸에 꽂혔다. 한바탕 강론이 끝나자 청중들은 약속이나 한 듯 머리 숙이며 소리 높여 외쳤다.

"조사님, 조사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대중들의 외침소리가 한참 동안 절 경내에 메아리쳤다. 달마 조사는 미소 머금은 얼굴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조사의 강론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있어서 사람 공부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가(眞假)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전언(傳言)에 휘둘릴 까닭이 없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힘주어 말하면서 맞은편의 흰 벽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처럼 깨끗한 벽이 아닙니까. 마치 거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면 우선 이 벽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사고해야 합니다. 오로지 조용한 생각만이 자신의 그림자를 정확히 보게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도를 깨닫아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마 조사의 설법은 듣는 이의 살갗을 파고 들어갔다. 목소리가 살갗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몸 속을 관통하는 것이었다. 말씀과 소리의 현묘함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일찍이 이처럼 생동감 있는 선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에 청중들 사이에선 더할 수 없는 감동이 물결쳤다.

달마 조사 옆에 앉아 있던 광지 법사는 크게 뉘우쳤다. 젊은 시절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와 계를 받은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 동안 고행도 하고 가부장좌(長坐)도 했지만 자기가 해 온 일은 부처님의 힘을 빌어 인간 세상의 고해(苦海)에서 자신만을 구하려고 했던 게 고작이었다. 안으로는 부처님을 찾지 않고 내재적인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어찌 공덕을 원만히 쌓을 수 있으며 득도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몸은 속세의 풍진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마음 속의 풍진은 속세에 있는 것이나 진배없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광지 법사는 면벽 정려(靜慮)하는 것만이 진정 수선(修禪)하는 길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자사 소앙과 관원 일행들도 달마 조사의 설법에 감동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두 깊은 명상에 빠져 움직일 줄 몰랐다. 달마는 설법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릉 황궁내 참례전 준공

"참선이나 예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법(心法)이오. 만약 그 심지를 열지 못하고 단지 외계(外界)의 주입(注入)에만 의지하면 모순만 낳게 되고 영원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오. 오로지 몸으로 이행하고 마음에서 깨닫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대법회가 끝난 뒤 자사 소앙은 특별히 달마 조사를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양(梁)나라 무제(武帝)가 신심이 깊다는 것과 그 곳으로 모시도록 장계를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달마는 이미 양 두제에 관해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앙의 뜻에 적극 동의했다. 자사 소앙은 지체하지 않고 제도(帝都)인 금릉(金陵)으로 파발을 띄웠다.

때는 양 무제 대통원년(大通元年), 즉 단기 2860년 서기 527년이었다. 4월의 어느 날 금릉의 황궁 내원(內苑)에선 새로 지어진 참례전(參禮殿)의 준공식이 열렸다. 참례전은 양 무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양 무제는 이 곳에서 하늘과 통하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궁전 안의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위엄 있게 지었다. 건물의 기상이 하늘에 닿게 하려는 듯 높이는 백 척이나 되었고 전각은 사방이 삼십여 길이나 되었다.

건물 안에는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이 안치되었다. 자비스런 기운을 발산하는 불상의 양쪽 옆으론 십이지(十二支) 제신이 조각되었다. 그리고 벽면엔 불교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재현해 놓았다. 입구엔 참례당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천장엔 용과 봉황의 그림이 보기 좋게 어울렸다. 무제가 참선하는 곳을 상징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무제는 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엄청난 공사비를 투입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국고를 탕진했다시피 했다. 그러나 무제는 부처님을 받드는 정성과 위의(威儀)를 표시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양 무제의 이름은 소연(蕭衍)이고 자(字)는 숙달(叔達). 남남능(南蘭陵) 즉 오늘날의 강소성(江蘇省) 상주서북(常州西北) 사람이다. 제(齊)나라 옹주(雍州) 주둔 장군으로 있을 때 내란을 틈타 군사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국호를 양으로 바꾸고 무제라고 자칭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불교를 믿고 펴는 데 앞장섰다. 일찍이 세 번이나 동태사(同泰寺)에 출가했을 정도로 불연 또한 깊었다.

> **"사람공부가 먼저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줄 알아야"**



◇경봉 선사 作 달마도(종이에 수묵, 통도사 극락암 소장, 73×66cm).

이 날도 양 무제는 조회를 끝내자마자 서둘러 참례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좌시(左侍) 벼슬의 정각(正覺)과 우시(右侍)인 법광(法光)이 뒤따랐다.

무제가 참례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 가르는 소리가 안에서 들려 왔다. 그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정각과 법광 두 사람의 시신(侍臣)은 임금이 갑자기 놀라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다. 얼른 몸을 날려 뛰어들어가려고 했다. 무제는 두 손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 눈짓으로 전각 안을 살펴보라고 시늉했다. 안에선 젊은 스님이 혼자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빠른 속도로 도는 팽이처럼 왼쪽으로 굴렀다가 오른쪽으로 날곤 했다. 그때마다 바람소리가 "쌩쌩"하고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무승(武僧)이 암기(暗器)라니

무제는 이 젊은 스님이 누구인줄 곧 알아차렸다. 동태사에서 불러온 무승(武僧) 철타(鐵咤)였다. 무술이 뛰어난 이 스님은 아침 단련에 여념이 없었다. 한참 동안 지켜보던 무제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훌륭하다, 훌륭해. 정말 놀랍도다."

철타는 전각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자 무술 연마를 즉각 멈추고 땅에 엎드려 인사했다.

"소승, 황제 폐하께서 행차하신 줄도 모르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제는 만면에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어서 일어나시오. 내가 알리지도 않고 왔는데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소. 그대가 이렇게 전력을 다해 무공을 연마하니 정말 가상한 일이오."

철타는 얼른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읍 하는 자세로 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황제에 대한 결례가 마음에 걸린 듯 사죄의 뜻을 거듭 아뢰었다.

"소승, 아직도 공력이 부족하여 폐하께서 오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제는 그 소리에 크게 웃으며 흡족해 했다.

"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얼 그렇게 신경을 쓰나? 한데 아까 몸을 날리면서 무엇인가 던지는 동작을 하던데 그건 무슨 무공인가?"

철타는 두 손을 모아 절하면서 대답했다.

"폐하께 감히 아뢰겠습니다. 소승이 연마한 것은 암기(暗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암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암기란 몸에 몰래 지니고 다니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탄(飛彈) 비도(飛刀) 비표(飛鏢) 비석(飛石)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무술의 기교와 힘이 부족할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쌍방의 무술 실력이 비슷하여 적을 이길 수 없을 때 상대방의 방어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선 암기이상 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제는 박장대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이제서야 암기가 무엇인지 알겠네. 앞에서 오는 창은 쉽게 피할 수 있지만 등 뒤에서 쏘는 화살은 피할 수 없는 법이 아닌가. 암기는 바로 등 뒤에서 쏘는 화살 같은 것이 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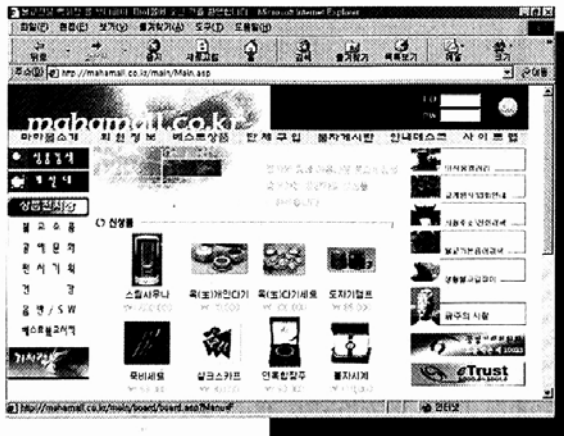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철타는 또다시 몸을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무장(武場)에서 이런 암기를 사용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군자가 취할 일도 못 됩니다. 그러나 소승은 이런 암기를 아껴 쓸 수 없는 상황에선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연마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위험에 빠지신다면 소승은 신명을 바쳐서 모든 수단을 쓸 것입니다."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백화점 마하몰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마하몰에 방문하십시요. 불교문화상품을 통한 쇼핑의 즐거움과 다양한 정보를 불자님들께 드립니다. 항상 마하몰을 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성심 것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획정보, 생활불교길잡이, 베스트불교서적, 금주의 사찰등 새로운 콘텐츠로 불자님들을 맞이합니다.
- 기획정보는 선식에 얽힌 이야기와 선식의 효능등을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 보실수 있는 정보를 드리며,
- 생활불교길잡이는 각박한 생활속에서 흔탁해진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마음의 휴식공간을 마련했구요,
- 베스트불교서적은 베스트불서, 화제의책, 법보시서적등의 메뉴로 구성하여 불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금주의 사찰 코너에서는 매주 한번씩 국내외 유명사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찰안내와 불교인물정보를 좀더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쇼핑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상품과 추천상품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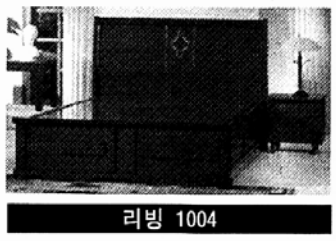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전화 : 02-732-1522

깊은수면중에 기(氣)를 얻는다. 편안한 잠! 건강한 잠! 개운한 잠! 이제 돌침대 를쓰셔야 합니다.

폭탄세일

일반 속매트가 전기장판을 대신 할 수는 있으나 전통온돌방을 대신 할 수있는것은 전통 원적외선 온열요법의 리빙스톤 돌침대 뿐!

침대 - 이제 건강 (척추, 혈액순환), 위생 (세균,진드기) 을 생각할때 !



리빙 1004



사군자



목단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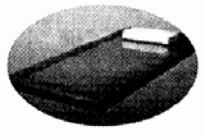
살을 되살린다. 거뜬한 아침!
자만은 수행자의 적!
지친육신은 명상의 큰 적!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확 조





101 싱글보료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 단체별 돌침대 특수사업부를 운영이실 기관은 상담바랍니다.
※ 일본, 한국 온돌문화 열풍 - 일본 판매처 구함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총화종 총무원장상)

새로운 삶

허 준 오 —경남 남해군 설천면—

30대 초반에 응시한 사법고시 2차시험은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1차시험 합격후 첫 번째 2차시험에서 낙방했기 때문에 만일 그 해 두번째 도전에서도 또 실패한다면 다음에는 1차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나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고시에 매달릴 만한 처지도 못되었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을 앞두고 이런저런 번민으로 마음만 초조해져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 해 2차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은 모두 자신있게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합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의 내 절박한 처지와 어려운 환경을 하느님께서 아신다면 설마 이번에도 외면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유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법학을 전공한 법대출신이 아닌 문과대학 출신이었고 재학중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면서 학부를 7년만에 졸업한 만학도였다. 그래서 나의 대학생활은 남들처럼 낭만과 추억이 아니라 자학(自虐)과 울분속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부모나 친지 등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나는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생활은 입주 가정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매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이란 실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7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던 것이다.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다. 그저 허탈하고 참담할 뿐이었다. 절망과 실의속에서 더이상 아무런 삶에 대한 의욕도, 심지어는 식욕마저도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몇해 전부터 생긴 위장병이 또 다시 재발해 음식을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곧 탈이 나고 자주 속이 쓰리고 아팠다.

나는 모든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 온 가정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이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증오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학 등으로 나는 몸도 마음도 더이상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갔다.

내가 문과출신이면서도 재학 때부터 그토록 사법고시에 뜻을 두고 집착했던 것은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기죽고 상처받으면서 자란 나 자신에 대한 보상심리에서였는지도 모른다. 사회적인 출세와 명예, 그리고 금력 그것이 당시 나에게 존재한 유일한 화두였던 것이다.

고시 준비중 사 모은 서적들을 박스에 담아 청계천 5가 헌 책방에 내다 팔아 버리고 자질구레한 일상용품 등은 후배 자취방에 넘겨주고 배낭을 꾸려 서울역에 가서 남원행 기차표를 샀다.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곳은 2년전 여름, 고시원 동료들과 함께 피서여행을 다녀온 곳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서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 나는 자살을 결심하고 그 장소를 달궁 골짜기로 택한 것이다. 내가 결심한 자살방법은 단식이었다. 음독자살이나 목을 매어 죽는 것은 추한 육신을 남긴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용기가 나질 않았다.

만성위장병 때문에 평소에도 식사를 거르거나 굶는데는 자신이 있었고, 깊은 산속에서 굶어 죽으면 남들에게 발견되지 않아 굶어죽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살방법으로 생각되었다.

계곡을 오르면서 쓰레기 소각장에 들러 배낭과 수첩, 주민등록증 등 입고 있는 옷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불에 태워버렸다. 만에 하나 시신이 썩기전에 누군가에게 발견된다 하더라도 신원이 확인될만한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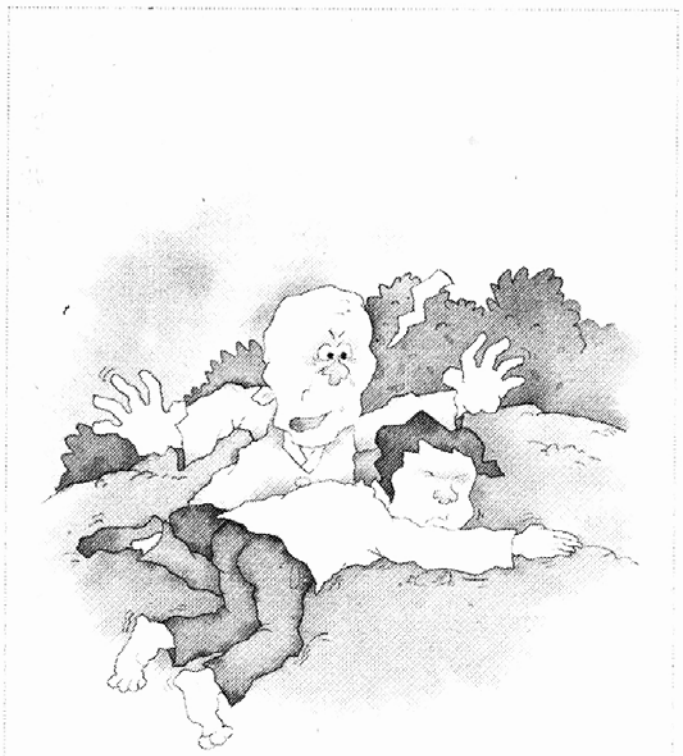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등산로가 아닌 계곡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겨 전혀 인적이 없는 숲속 바위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누워버렸다.

이제 이대로 가만히 누워있다보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몇 날은 그때까지 살아오며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또 스쳐 지나갔다. 나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하며 그 인연의 기억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몸부림쳤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축 쳐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람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무엇인가가 어렴풋이 눈앞에서 아른거림만 느낄 뿐이었다. 나른한 봄날 오후, 먼 산에 가물가물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듯 그렇게 무엇인가가 뿌옇게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점점 가까이 윤곽이 나타나는 것은 낯선 노인의 얼굴이었다. 그 노인은 내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쳤다.

"이보게 청년, 내가 보이나? 그래, 이젠 됐어, 이 사람아"

차츰 의식이 들어 그 노인을 쳐다보니 삭발한 스님이었다.

벽봉 스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수가 칠순 가까이 되는 노스님으로 달궁계곡 서편 깊숙한 곳에서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는 토굴을 짓고 혼자 수행하고 계셨다. 잡목으로 얼기설기 벽을 세워 흙을 발라 만든, 말 그대로 토굴이었다.

근 한 달만에 아랫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자살장소로 택한 바위 뒤편이 바로 스님이 거처하시는 토굴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오랜 세월을 깊은 산속에서 사셨던 분인지라 소리에 민감해 죽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나의 신음소리를 감지하셨던 모양이었다. 스님은 나를 들쳐업고 자기 토굴방에 데려다 눕힌 후 차갑게 식어가는 내 전신을 주무르고 입을 벌려 물을 먹이는 등 응급처치를 해 내 목숨을 살려 놓은 것이다. 미음과 이상한 나무뿌리 삶은 물을 때마다 사발에 담아와 먹기를 권했다. 벽봉 노스님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나를 자살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찾게 만들어 주었다.

스님은 나에게 아무런 말도 묻지 않으셨다. 그저 아무 생각 말고 몸만 회복하면 된다 하시면서 자애로운 시선으로 나를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노스님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나는 스님에게 발견된 지 일주일도 안돼 토굴 주위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력 회복과 함께 내가 그때까지 수년동안이나 그토록 고통스럽게 시달려온 위장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아버린 것이다.

내가 스님께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한 번 죽고나서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위장병은 무슨 놈의 위장병"하고 껄껄 웃으셨다.

나는 스님께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과정과 왜 죽음을 작정하고 결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난후 스님께서는 가만히 나의 손을 잡고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네 마음속의 증오심과 분노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 가를 깨달아야 하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거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사정이 있었을 걸세. 그리고 자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반항심은 스스로 만든 것이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야.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듯이 모든 걸 탁 놓아버리게. 그러면 자학이니 절망이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네. 그런 연휴에 일체를 자기 안의 주인공에게 맡겨 버리는 게야."하시면서 인과와 업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다.

"인생사(人生事)는 물론 세상 만물의 이치가 인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기가 행한대로 거두고 지은대로 받는 것일세.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모두 바른 지견(知見)을 갖지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게야. 불교에는 삼독(三毒)심이라는 말이 있네. 탐심(貪心), 진심(瞋心), 치심(癡心) 그러니까 무엇을 분수이상으로 탐하는 마음, 분노하고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를 두고 이르는 말일세. 사람은 이 삼독심을 늘 경계하고 그런 마음이 일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지켜 나가야하는 거야."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그때까지 종교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때 불교에 대한 내 이해의 수준은 불교가 관념적 성격을 띤 철학 정도의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스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권해주신 몇 권의 경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난 뒤 당시 불교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또 점점 무상심심(無上甚深)하고 미묘(微妙)한 불법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법구경〉 같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불서를 읽으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진리에 대한 구도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불교를 접하고 난 뒤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세계와 인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이 화해와 공존으로, 원망과 미움으로 자학하고 괴로워 했던 인생의 문제는 참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뀐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가졌던 가정과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학의 감정 등이 모두 무명(無明)과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토록 치열하게 집착했던 출세나 명예, 재물따위가 또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 나는 입산하여 불제자로 살고 싶다는 뜻을 벽봉 스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부처님 재가불자로서 수승(殊勝)한 생을 살다간 유마거사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는 이 시대의 유마거사가 되게. 반드시 출가해 스님이 되어야만 불제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부처님 법을 따르고 행(行)으로써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보시행을 펼친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참불자일세."

스님과의 6개월 가까운 토굴생활을 끝으로 나는 하산했다. 얼마 후 공채시험을 거쳐 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으로 임용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결혼도 하여 가정도 이루었다. 첫 월급을 타던날 내복 한벌과 차(茶) 한통을 스님께 우송해 드렸을 때 좋아하시던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직장과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갈등과 시련을 겪을 때나 의롭지 못한 유혹이나 번뇌에 빠졌을때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 준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어떤 이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며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또 어떤 이들은 불교는 미신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까지 매도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불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말이거나 타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일방적인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처럼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명쾌한 논리로 밝히고 이상적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또 어디 있을까 반문해 본다. 그리고 불법은 일체의 철학이나 사상 등과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지금 이 땅에서 실천하기만 한다면,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나 종교 및 사회 계층간의 대립과 투쟁 등은 쉽게 해결되고 화합과 상생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불국토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정년을 앞당겨 명예퇴직을 한 후 자연을 벗삼아 살고있는 현재의 내게 있어서 남은 생애동안 내가 할 일은 여래께서 밝혀주신 진리를 깨닫기 위한 끊임없는 정진과 이웃과 사회를 위한 이타행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젊은 날의 좌절과 절망에서 나를 살리시고 불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벽봉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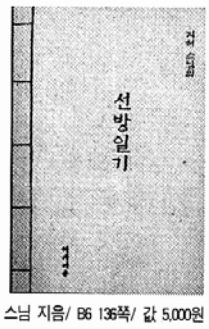
"원망과 미움은 바른 지견 갖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 737-8881 팩스: 737-0697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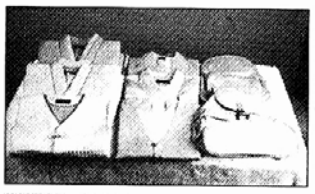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EBS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특허상품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반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니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혜거스님의
경전강좌 안내

해거스님께서는 다년간 불교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상담과 경전강의를 하셨습니다. 본 선원에서는 신사년을 맞아 새로운 경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유식 삼십송
강의 일시 : 3월 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 교리
강의 일시 : 3월 7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3개월간 회비 6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TEL : 02) 445-8484 FAX : 02) 445-804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진실하게 관해야 내안의 보배 찾아

예불때 하는 오분향의 참뜻

문 저녁 예불시간에 맨 처음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고 염불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요? 스님들께서 하실 때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마음 속으로 그 뜻을 새깁니다만, 마음 안에서 뜻이 전달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참뜻을 설하여 주십시오.

답 항상 그것만 잘해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만 잘 알아도 우린 성불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먼저 계향이니, 스님들도 처음 출가를 하면 계향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째, 부처님의 도량을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되고 은사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되고 셋째,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는 안되는 것, 또 넷째는, 항상 안에서 일어나는 거 바깥에서 상대성 원리로서 다가오는 거, 부딪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어떠한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부딪칠 몸뚱이가 있으니까 부딪치는 거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 몸뚱이가 없는데 어떻게 부딪힙니까?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지, 잘하든 못하든 내 탓이죠. 잘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것도 너니까 잘하게끔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다 맡겨야 되죠. 그래서 안과 밖의 어떠한 부닥침도 내 탓으로 돌리고 돌아가고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스스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스스로 부드럽게 말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부드럽게 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는 계향입니다.

그러고 정향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심봉을 딱 거기다 정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전부 맡겨 버리니까, 거기 심봉이 딱 박혀서 요지부동 안하고 서 있는 것을 주장자라고 하기도 하고 심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완벽하게 섰을 때는 바로, 우리가 들이고 내는 그 실습은 벌써 초심자일 때 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활 자체가, 앉으면 좌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일을 하면 행선이요, 누워서 자게 되면 와선이니 그 모두가 참선 아닌 게 없다, 생활이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 생활이다 그대로.

그러니까 정향(定香)이라 하는 것은 한 데다가 모아서 익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익어진 거를. 이제는 내 주장자가 심봉이 박혀 있으니까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게끔 됐을 때 그걸 정(定)이라고 합니다, 정향. 그게 완전히 박혀졌을 때는, 즉 말하자면 완전히 심봉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때는, 들이고 내는 살림살이가 여여하게 들이고 낸다 이겁니다. 여여하게 들이고 내는 동시에 그게 여여하게 돌아가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써 여여하게 하니까 자기 말이 법이 돼서 그대로 들이고 나는 게, 모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또는 꺼내도 줄지 않고, 정향에서 완전히 들이고 내는데 손색이 없다면 그때는 지혜가 생기죠. 그래서, 혜향(慧香)이라고 했습니다. 혜향!

그래서 지혜로워지면, 그때는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아요. 천 개, 만 개를 넣어도 두드러짐이 없죠. 허공에 꽉 찬 마음을 다 꺼낸대도 줄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평등공법(平等空法)에 의해서 나오는 법 아닌 법입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혜향이 있습니다. 혜향이 완성되면 꺼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게끔 완성된다면 마음이 다 익었다는, 익어간다는 얘깁니다. 외부와 내면, 즉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관찰할 수 있고, 관찰을 잘해서 들이고 내는 데에 실천과 실습을 열심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혜향입니다.

그리고 해탈향이란 무엇이냐?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이 무명에 묶여있는 것을 다 들이고 내면서 관찰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다스리면서 항상 밝아서 여여하게 걸림없이 나가는 도리가 바로 해탈향입니다.

해탈지견향.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 삼라만상, 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을 한 꺼번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한꺼번에 꺼내도 줄지 않고, 한 바다를 삼켜도 두드러지지 않고, 한 바다를 꺼내도 줄지 않는, 이러한 광대한 한마음을 갖고 우리가 모두 자기와 둘 아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그러한 평등공법에 의해서 아주 슬기롭고 참되게 항상 이끌어 나가는 게 밝아서 여여하게 걸림없이 구족한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말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 할지라도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히 내가 진짜 발을 한발 떼어놓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가 걸어다니는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길이 아닌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순간 과거에 다녀온 곳을 금방 갔다오면 다 알듯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입니다.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뜻을 되새기셔서 참답게 생활해 나가기 바랍니다.

몸 벗어나 수행하는 경지

문 삼배 합장하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공부를 해 나가다가 앞이 막힌 듯 어둡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삼세를 뛰어넘고 상에도 끄달리지 아니하는 공부란, 마치 옛날의 진묵대사님이 몸은 가부좌 한 채로 가만히 앉아있고 그 정신은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천상 천하를 다 녔다고 하는데 이렇듯 몸의 굴레를 벗어나 수행하는 것이 어떠한 경지이고, 그러한 것이 학인이 수행하여야 할, 삼세를 뛰어 넘고 상없이 나툴 수 있는 바른 공부길인지요?

답 욕심이나 착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바로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욕심이나 착이나 또는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안 보이는 세계에서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한마음의 열쇠를 주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한마음이 돼야 한마음의 열쇠가 나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이 열쇠를 받고 본다면 능력을 이용해서 '에이! 너 맛 좀 봐라!' 하고 대번에 이러한 마음이 나오니 자동적으로 무의 열쇠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자신에게 열쇠를 맡깁니까? 자신이 애비이고 지금 현재 자신이 자기 아들이라면 어떻게 아들한테다가 열쇠를 맡기겠습니까? 아들이 아니지하고 둘이 아닐 때에 비로소 열쇠를 받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마디, 한생각에 법이 깃들어져 있는 사람은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인가 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버릇을 톡톡이 고쳐주게 되죠. 그렇기에 이 공부를 해서 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깨우쳐 보지 않는다면 내 몸과 둘이 아님을 몰라요. 또 내 자리 네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내 아픔 네 아픔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부모가 둘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네 자식 내 자식이 둘이 아니라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저질러지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이랬대요. 절에서 공부하는 도반들 끼리 공부를 하다 밑의 사제가 구름을 타고 가서는 나쁜 짓을 늘상 하거든요. 사형이 하루는 가만히 보니깐 구름을 타고 가서는 또 그러거든요.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몸뚱이는 거기 놔두고, 자기가 허수아비로 가서 연방 악하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 글쎄 얼마나 괘씸하냔 말입니까. 그래서 사형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걸 탁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사형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 짓을 또 한다면 넌 가만 안 두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구나" 그러고선 그 짓을 안 하더래요.

그랬다는 셈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의 위치에 올라서야 알지, 아니, 소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의 과정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야 알죠.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것을 놓는다, 모든 것을 맡기고 산다 하는 그것이 방하착(放下着)이라면 첫째, 모든 잡념과 전자에서부터 익혀온 습성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의 참 생수 갓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차적으로 자기를 다시 한 번 체험하면서 상대방과 나와 다시 죽는 법을 또 배워야 된다, 세 번째, 상대방과 나와 더불어 같이 나툴 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과 나와 죽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나와 같이 나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재차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단계 아닌 단계를 모두 올라와 보세요.



그림 · 최주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놓을때 문제 해결

남 망하게 하는 마음이면 열쇠 못 받아

조상을 위하는 이유 뭔가요

문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가족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정성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성을 들이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고 조상을 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답 옛날에 스승과 제자들이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서로 서로 번찰해 가면서 탁발하러 나갔었는데 그러다 막내에게 그 탁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갈려고 하니까 은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탁발을 하러 갈려면 저기를 가야 할텐데…, 마을로 가는 길이고,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이니라. 약부터 지어 오너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약을 지어 오다가 마을에 들러서 짐을 거기에 짐이 있으니 그 짐을 다 가지고 오너라' 했거든요. 그래서 허둥지둥 은사의 말씀을 듣고서 고개를 넘어 지름길로 가느라고 험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뿌리에 물 주면 잎새·줄기 싱싱하듯

근본 주인에 맡기고 살면 마음 편해

가다 보니깐 어느 부인이 말입니다. 호랑이가 덤비니까 세살 먹은 어린애를 위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이 어머니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업고 가던 포대기를 돌돌 말아 쌓아서 거기 놓고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싸서 놓고 벌거벗고 호랑이 한테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앞으로 가는데, 살은 열어서 새빨갛게 되고 눈은 보일 듯 말듯 하면서 별처럼 반짝거리고 생명을 내건 그 어머니가 차츰차츰 호랑이 앞으로 가니까 호랑이가 그만 뒤로 물러서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누비 두루마기를 벗어서 그 여자를 싸고 짐을 지고 오라고 한 지게에, 가져간 소쿠리에다 모자를 얹고 짊어지고 오다가 스님께서 짐을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짐을 맡기신 일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부지런히 가다가 생각을 떡 해 보니까 스님께서 짐을 져오라고, 소쿠리를 지게에 얹고 가라고 하셨고, 내가 지금 아파서 생명이 위독하니 약부터 지어 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그만 절감이 된 겁니다. "바로 이거로구나. 스님이 편찮으신 게 아니라, 생명이 위태한 게 아니라,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짐이었고 바로 이분이 생명이었구나. 그럼 스님의 생명이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이 바로 스님의 생명이라면 어찌될꼬? 이게 무엇일까? 스님은 왜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을까?" 하는 마음의 의정을 내면서 그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가다가 보니까 정신을 차려서 바로 그 집으로 갔답니다. 가서 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나무도 없고 방은 찬데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을 그냥 놔두고,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을 그냥 놔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사흘을 나무를 해서 때주고 또 나무를 해다 쌓아 놓곤 탁발을 하러 갔습니다. 탁발을 하러 가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무 밑에서 기댄 채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해서 걸망을 진 채 그냥 거기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부잣집 마나님이 초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꾸니까 아, 바깥에 큰 사자가 말입니다. 금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사자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 아무개야, 내가 춥고 배가 고프고, 목 좀 축이게 따뜻한 물 한 그릇하고 옷 좀 입게 다오' 하더랍니다. 아, 그래서 깜짝 놀라 깨서는 영감님을 깨웠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나가 보니까 아, 어느 스님이 두루마기도 없이 달달 떨면서 추운 채로 으그리고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워서 모시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꿈에 배고프고 춥다는 그 말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하인을 시켜서 먹을 것을 뜨겁게 해다가 대접하고 부지런히 속에 입을 옷과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해서 입히려니까, 스님은 빨리 탁발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절이 망가져서 불사를 위해서 기도를 붙이고 지금 탁발을 하러 가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릴텐데 제가 탁발을 안하면 안됩니다.' 하고선 그냥 부둥부둥 나오니까 그 부자집 부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절 짓는데 얼마가 들면은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모르나 스님께 여쭤보면은 아실 겁니다' 하니까 공양미하고, 옛날에는 모든 걸 소에다 싣고 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나귀에다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집도 절 지을 돈을 갖다가 시주를 하기 위해서 당나귀에다가 몇 십 석을 싣고 가서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절을 짓고 양식이 풍부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부잣집 부부가 부모로 모셨던 조상이 바로 그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이 전자에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도 공을 들이고 했기 때문에 스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연으로, 부모로 인해서 살던 그 재산을 그저 삼분의 일을 절에다 바쳤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가고 옴이 없는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주장자 완벽하게 세우면 생활 편안

☞ 19면에서 계속

어머니와 자식의 마음이 연결된 인연이다, 이 소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절을 잘 짓고 양식이 풍부해서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하고 성과를 이루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을 떼지 않는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살 때 물질로만 산다면 물을 보고 빠져 죽을까봐 걱정, 타 죽을까봐 걱정, 강도한테 찔려 죽을까봐 걱정, 도둑 맞을까봐 걱정, 또 좌천할까봐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물건을 보고 좋고 나쁘고, 죽고 살고 여기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혼백이 돼서 간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이득을 하나도 줄 수도 없고, 부모의 은혜를 하나도 갚을 수도 없고 살아서도 그렇거니와 죽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보면 가다가 보는 대로, 야, 세상에 의식적으로 빠져 죽을까봐 걱정을 했으니 죽은 혼백도 가다가 말고는 넘어가질 못해. 승천할 수가 없어. 그러니 환상을 보더라도, 독사 소굴에 가면 독사한테 물려 죽을까봐 못 가지, 물을 보면 빠져 죽을까봐 못 가지, 불을 보면 타 죽을까봐 못 가지,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갈 길을 못 가는 거라.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못 가는가? 착 때문이고 물질을 보고서 그대로 의식화 됐기 때문에, 나라는 조건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얽히고 설킨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놔라, 거기 맡기라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죽어서도 항상 넘어가지 못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맴도는 거야. 사람 사는 데서, 가정에서 맴돌고 식구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자기가 말을 해도 몰라. 식구들은 아주 모른 척 해. 그 백짓장 하나 사이가 그렇게, 이승 저승이 백짓장 사이인데도 그렇게 모르는 거라. 그러니 그렇게 모르는 그 사이에 그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봐도 본 체 안하고 이러니까 야속하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러느냐고 하면서 야! 형제지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는 한 대씩 때리다 보니까 가정이 불편하고 우환이 생기고 온통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착을 가지고 끄달려서 노예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히 살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을 마무리해야 할지

문 스님, 올해로 칠십을 넘긴 보살입니다. 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가 되고 보니 병들고 쇠약해진 이 몸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을 때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관해야 할지 스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법문을 청하옵니다.

답 보이는 세계의 마음이 50%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음이 50%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무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산 세상이 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반이 있죠. 밤낮이 이렇게 돌아가듯, 살고 죽는 것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라면 자기 자부처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우선 알아야 되겠죠.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그렇게 그 자부처한테 맡긴다면 불안한 마음도 한결 숙여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콩깍지가 덜 익었을 때는 뿌리가 성성하도록 하면서 익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익지 않아서 마르면은 아프고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저 모든 걸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뿌리에 물주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에 물을 주면 잎새도, 열매도 싱싱하게 익고, 그렇게 익어서 말라야 툭 건드리기만 해도 탁 떨어지고, 몸뚱인 몸뚱이대로 떨어지고 의식은 의식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보살님이 염려하듯이 자손들 속을 상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하게 될 수 있겠죠.

아니, 내 몸뚱이한테도 이익을 못 주면서 어찌 공덕이라고 하겠습니까. 주인은 영원한 거고 내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몸뚱이는 항상 끌려 다니는 시자와 같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자를 끌고 다니는 주인에게 항상 그저 '당신만이 나를 건강하게 끌고 다닐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맡기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달구지를 치느냐, 소를 치느냐, 하는데 아니, 달구지를 끌고 가는 소를 쳐야 달구지가 가지, 달구지를 치는 데 소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기복으로 건강하게 해주십사고 매달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바깥으로 어디든 의지하려는 것은 모두 달구지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는 것이 진짜 실천하는 데에 소를 치지 못하고 바로 달구지를 치는 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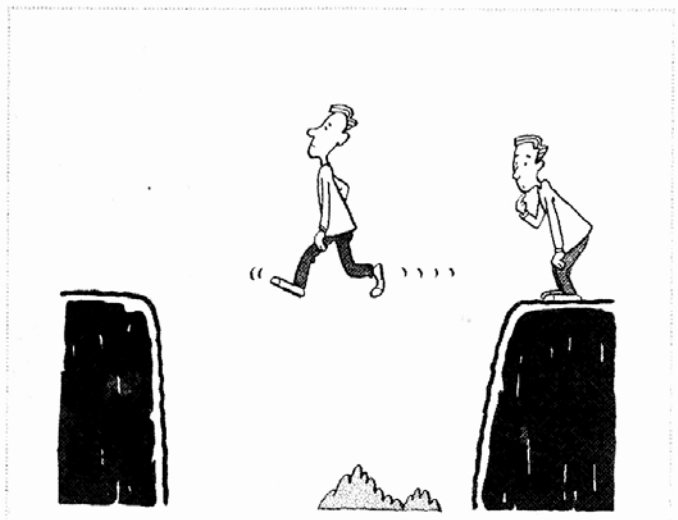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로만 살면 착에 얽혀 제갈길 못가
다가오는 안팎 경계 내탓으로 돌려라

세상에는 알고 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실천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애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그럼 알 바가 있을 테니까요. 이 모두가 참 묘한 도립니다. 그것을 정말이지 알고 앞으로 갈 길이든 지금 가는 길이든 염려하지 마시고 깊고 진중한 믿음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이 마음의 길을 자유스럽게 나아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관하는 방법따라 차이 있는지

문 관하는 방법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제가 관하는 것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로 마음이 안날 때는 '주인공, 당신이 봤으니 알아서 해'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너만이 잘 이끌고 갈 수가 있잖아!'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급할 경우나 아니면 아플 때 '주인공, 낫게 해야 잖아. 그래야 심부름도 하잖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관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 가지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첫번째 경우처럼 관을 했을 경우는 아예 관을 안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는데 바쁘면 빨리 가고, 시간이 좀 있으면 천천히 가고 그러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그렇듯이 바쁘다, 급하다 하고 판단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한 놈이 모든 것을 다하고 넘어가지, 어떤 다른 놈이 또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모든 것을 나오게 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 아닙니까? 모든 것을 용도대로 대치하고 넘어가는 공부입니다. 이것이 높다 저것이 낮다라고 분별하지 말고 무조건 용도대로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으세요. 마음의 길을 가는 데에는 사단이 많고, 앞 걸음 뒷 걸음을 다 계산을 하고 가다가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 이전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관하는 것이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분별하면서 '너가 있으면 할거고,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한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하게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하나하나 체험 해 나가세요. 그래야 내 안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렇게 체험이 되고 감응이 돼야 참다운 나의 보배를 발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차원높은 아기 갖고 싶은데…

문 저는 한 9년쯤 전부터 친정 어머님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주인공과 함께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결혼 4년 차 주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맞고, 차원 높은 인연으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처음엔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주인공이 알아서 좋은 때에, 좋은 아기가 생길 수 있게 할거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너무 흐른 지금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더니, 이젠 남들이 말하듯 아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접어야 아기가 생기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놓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답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 여러분이 아니라, 2세, 3세 내려가면서도 모두 자기입니다. 모습만 짧게 바꿨을 뿐이지 자기입니다. 자기의 육신, 피와 살, 뼈, 인과, 습에 의해서까지도 닮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형성시켰습니다. 뿌리 없는 뿌리에다가 보이는 모든 것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여러분입니까? 힘 안 들이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형성시켰습니다. 사람을 하나 더 형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형성시킨 사람은 자기를 닮았습니다. 성격까지도 발가락까지도 부모를 닮았습니다. 이거 안 닮았으면 저거 닮고 저거 안 닮았으면 이거 닮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닮고 형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자기의 습과 부모의 습과 부모의 작용을 일체 닮아서 나와 가지고 사니 어찌 자기의 2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 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밥이 그렇게 자유스런 율동과 자유스런 무의 활용이 동시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미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고 옴이 없이 그대로 뿌리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는 연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모습만 다르다 뿐이지 자기 2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전화통을 돌리면 내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직속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묘한 법을, 만법이 다 마음 먹게 달렸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설사 자식에게 일이 생긴다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활이요 자율적이요, 어딘가가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회전하는 대인의 활용이다. 그렇게 나간다면 자식들도 저절로, 일일이 말 안해도 저절로 물리가 터지는데 어떡합니까? 에너지가 그냥 발생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걸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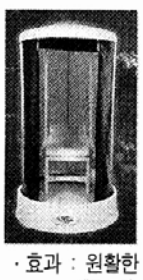
임신할 때도, 공자 어머니가 "의지가 약하고 넝마 같은 영은 나한테 주지 마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을 나한테 심어주시오"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영을 고를 수가 없어. 6년을 골라도 고를 수가 없다가 7년 만에 골랐다는 얘깁니다. 공자를 고르는데, 6년을 임신을 할려고 다녀도 임신이 안돼서 "왜 안됩니까?"하면 "아직 고르지를 못했느니라." "네가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하도 속상해서 6년 되던 해에는 안 갔는데 7년 되던 해 초에 꿈에 "얘야, 인제 골랐으니 오너라"이러거든. 그래 갔는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서 난 것이 공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스러운 겁니다. 우린 자유스럽게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이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해서만이, 내가 원력이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자줄과 내 전자줄이 맞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원력이요, 내 원력이 둘이 아니니 바로 둘 아닌 한마음이기 때문에 불이 밝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만 낳는다고 해서 또 어린애 낳았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흰 백 뿌리 자체가 아주 차원이 높아야, 높은 영령을 아이로 맞아야 정말이지 빛나는 생애입니다. 속도 썩이지 않을 거고, 효도도 받을 거고 빛도 날거고, 나라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 어머니가 칠년을 기다려서 공자를 낳았듯이 말입니다. 잘못 들어온다면 맡이 안되죠. 선종(善種)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잘 쓰셔야죠. 이왕지사 낳은 분들도 마음을 서로 썰물 밀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열심히 관해서 자꾸 거기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하면 자연히 넓어지죠.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말고 더 열심히 관하면서 믿고 맡기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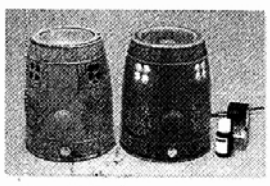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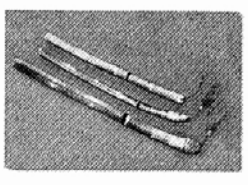
인터넷 불교전문 쇼핑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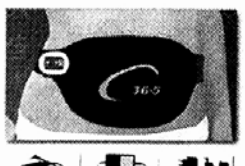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大, 뿌리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玉(옥) 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Dr.반다시(의자용)방석

·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갈대 5인다기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겉모습의 화려한것보다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형태입니다.
· 가격 :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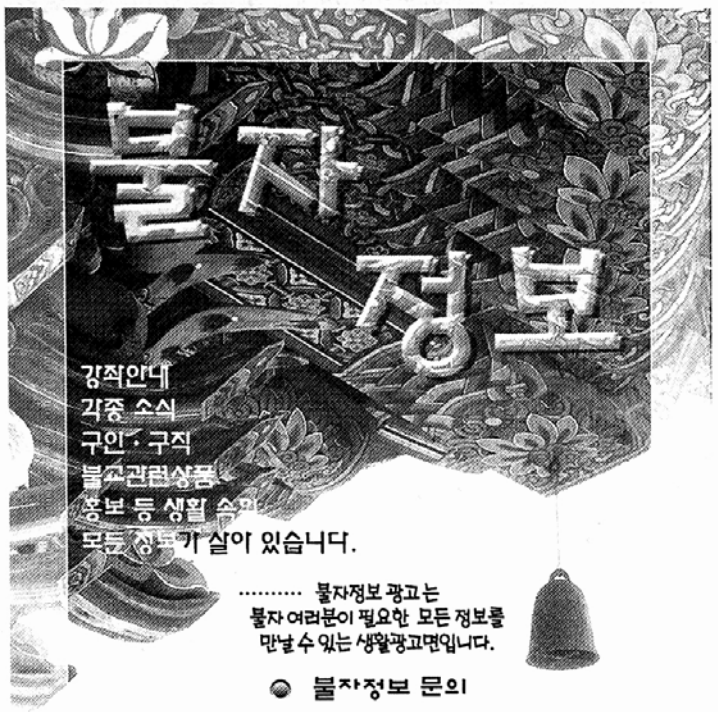
● 갈대 쥬스 잔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 (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숙식비 : 30만원
- 명퇴지,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근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7시
주 5일 근무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 - 55세
전 화 : 02) 3434-0447
02) 3434-0481
※ 의욕적이고 침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사창과 자비의 씨을 온누리에!
- ▣ 법문 테이프를 깔끔한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 ▣ 수행담이나 신비 체험,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취재 후 책자로 꾸며드립니다.
- ▣ 출판 편집 대행

밝은 맘터
031)914-9152/016)353-9152

소송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중 기도 가피력으로 생초환을 먹고 완치 되었습니다.
위장병(위염 · 위궤양 · 십이지장염 · 십이지장궤양)식도염, 장염, 신장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생초환을 권합니다.
생초환 : 3개월분 100,000원
전화 ☎ 02) 885-1558 지장사
※ 국민은행 : 812-01-0134-291 지장사
입금후 전화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신도님 중에 위염이 심하여 좋아하던 커피까지 끊었으나 생초환을 3개월 먹고 커피까지 드시고 있습니다.

신년운세 / 소원성취 비법
辛巳年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비법)
◆ 신규사업, 심재예방, 관재구설, 부부화합
◆ 결혼성취, 학업성취, 시험합격, 사고예방
감정료 1인 2만원(감정료 후불) 3일이내 상세한 감정서를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지장선원**

탈 중 공 고
경북 군위군 소보면 진계리 318번지
고 원 사
주지 지 안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 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 31

종무원 모집
▷ 30~40대
(신심있는 남녀 불자)
▷ 숙식 가능한 자
▷ 컴퓨터 능숙자 (학력 불문)
경북 군위 인각사
054)383-3757
011)821-2346

공양주 보살님 구함
(울산)
052)211-1009
011)9027-8207

生死는 무상하여 바람앞에 촛불인데
앞은 깜깜하고 올가미는 단단하며 벗어나 갈 길이 아득하네 이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기약할 수 없음이니 이제 해탈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뼈골이 바수어지고 나의 모든것 다버린들 두렵고 아쉬울 것이 무엇인가 승속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뜻이 투철하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031) 584-2818
011) 272-6478 **惠 綠 合 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역 학 수 강 생 모 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업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80)752-9013

청운역리 학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 영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탈 중 공 고
사 찰 : 대성사 주 지 : 최봉석, 봉륜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동 산 75번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01. 2.

좋은 인연 맺기를 원합니다
작은암자에 비구니 스님 입니다.
산과 자연속에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가족 원합니다.
■비구니스님, 노스님, 보살님 혹은 건강상 휴양이 필요로 하신 스님 연락주십시요.
연락처 : 054)338-1238
E-메일 : yh200020@Kornet.net

비구니 ·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 행자 전용교육장 / 남 · 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지리산 천왕봉 주산 명당터 안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관광특구
- 경 관 : 산수비경, 풍수재격, 큰 폭포, 큰 계곡 옆
- 방 향 : 남향, 동남향
- 용 도 : 사찰지 종교시설, 토굴, 수행처소, 포교연수원
- 평 수 : 1. 산 3166평 야전 551평 합 3717평 평당 3만원
2. 준농림 야전 677평 평당 8만원

011)679-8480

포교사업이나 사회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2리
- 평수 : 2만 6백평(뒤쭉산 경계선에 약 10만여평의 방치된 땅이 있음)
- 가액 : 평당 5만원(직거래 원함)
- 교통 : 매우 편리함 (마석에서 현장까지 승용차로 10~15분)
- 시설물 : 가옥 2동(46평), 우사(80평) 및 부대시설, 식수탱크, 전화, 전기

031)595-4436/011)9094-4439

사찰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사평에서 백인미술관 대원사 부근
- 특징 : 아늑하고 조용한 수행도량 정남향에 자리한 명당터 사찰 선방 암자 토굴 적합 ● 종교부지 1000평 전 900평 건물 5동 총건평 70평 목조 건물 지붕간판
- 가액 : 2억 5천만원 (답사후 마음에 드신 스님께 절충가능)

061)852-5357/019)601-3239

메주 판매
속리산 진여암 지하 140자청정 암반 약수로 만든 순수 국산 메주를 판매합니다 지하 암반 약수로 만든 맛좋은 된장·간장도 판매합니다.
- 메주 1말에 55,000원
- 된장 3Kg - 15,000원
- 간장 3 l - 10,000원

대한불교 조계종 진여암
전화 : ☎ 043) 542-2239
http : //www.ggachimaul.or.kr

갈 월 사
■ 미륵부처님 출토기념 법회
■ 일시 : 2월 18일 (음 1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문의 031)771-9577 031)772-1909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4층건물의 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2)955-6609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51-17 보현사
- 구조 : 단독 주택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세 16만원 시설비 1000만원

042)257-673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230평
- 법당 : 11평 1동
- 요사채 : 방4칸(40평)1동, 주방 5평1동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488-333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1011-522
- 건물 : 2층 건물, 법당 1,2층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30만원
- 특징 : 각종 시설 완비

옥 천 사
051) 465-3848
011) 838-9296
063) 536-0220

사찰 안내
- 대구시내 3층 건물에 2층, 3층 (총96평)
- 법당 시설 A급 - 개금동불3존, 1급탱화 반야평풍 1점, 고려대장경23권, 북, 범종
- 2층 - 법당, 방 2, 부엌, 화장실, 사워장
- 3층 - 방 2, 화장실, 사워장, 복도, 넓은마당
- 시설보증금 : 2천5백, 월 40만(조정없음)

053)255-6628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전철역 부근)
- 평수 : 3층 건물의 2층, 45평 (법당, 방2,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258-1147

사찰 안내
- 위 치 : 경기
- 부 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암자 안내(급)
- 위치 : 경북 청도 북안 구룡산 자락
- 대지 : 17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2700만원 (절반가)

신도확보 놓치면 아까운 암자
011)813-3679 사찰정보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시내 중심지 산사
- 평수 · 대지 : 250평 전 150평
- 건물 · 법당 : 24평 요사 30평 차량진입, 다량주차
- 가액 : 2억 8천 (답사 후 절충)

032)424-3324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약 600평
- 법당 : 약 16평, 산신각 : 4평
- 요사채 : 약 35평, 현대식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어울어진 청정지역의 기도 정진할도량으로 이주 좋음. 교통편리
- 가액 : 9천 5만원

043)832-478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내 암자
- 건물 : 법당 1, 요사채 2, 주방
- 특징 : 시내속의 산사, 바다보임 교통편리
- 가액 : 권리금 1300만원 월 20만원

055)646-2766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20분거리 현곡면 남사리
- 대지 : 160평 ● 법당 : 10평
- 산신각 : 4평
- 방 4개, 부엌 2개(현대식)
- 가액 : 5천 2백만원 산세 좋고, 물 좋고

052)292-329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원주
- 법당 : 12평
- 요사 : 25평
- 부지 : 204평
- 가액 : 1억 2천

- 위치 : 고양시
- 층평 : 46평(포교당)
- 법당 : 21평
- 가액 : 3000/80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포교당)
- 요사 : 18평
- 가액 : 1500/30

017-2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개인 사찰 및 부지 매매 알선 (암자, 토굴, 포교당)
※ 사찰 신축 및 증축 - 토목공사, 도로개설, 조경
※ 납골당 조성, 인허가 업무
※ 부전 공양주 건강보조식품

◎ 전국 지원 모집 ◎
서울, 경기, 강원, 충천, 충청,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주, 제주, 전국, 각, 시, 도, 단위
◎ 부산지원 011-554-9359
◎ 인천지원 011-702-3202
◎ 초보자 가능 철저한 영업지도



전국 사, 암, 토굴, 부지, 포교당, 양도하실 분 / 인수할 분 대기중이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소재
- 부 지 : 8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동, 70평
- ※ 도심소재 역사깊은 사찰 임
- 양도가 : 2억 2천

- 위 치 : 충북 괴산군 소재
- 부 지 : 1,7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35평(현대식)
- ※ 신세 좋은 기도 도량 임
- 양도가 : 1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최하가격으로)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33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부속건물 3동 기름보일러 옥실완비 사담 몇 마지기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7)552-7350
055)746-7350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 바로 옆
- 인법당 ● 전세 : 2천만원
- 임대료 : 월 25만원

051) 516-0650
017) 252-2722

지리산 청학동 신선마을 서당 하실 분
- 위치 : 구 · 심곡 분교
- 면적 : 가. 대지 - 1211평 나. 건물 - 205평
- 가액 : 상담 후 가격결정 (임대 또는 매매)

011)569-5844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북, 범종, (불단조각, 닫집) 경탁, 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엠프, 도시가스 완비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포교당 안내
- 위치 : 미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일체 무료

02)941-3195
011)791-0209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함양 용추 계곡 옛날집 1채, 화장실, 전기, 전화 5,100평 도로에서 7분거리
- 특징 : 물좋고 폭포 산세좋고 함양 남덕유산, 거창 가막산 산천 지리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음양 합수가 되는 명당 자리 임. 교통편리 함. 거창에서 안의 용추사까지 하루 13번 운행.

055)962-0082/963-339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 대지 : 105평
- 건물 : 신축 6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 가액 : 약 1억 5천 (답사 후 결정)

055)643-7444

교환합시다
선착순 한분만 모십니다
- 건물 : 대구 중심 상가주택 6층 빌딩 (지하 1층 지상 5층)
- 매매가 : 3억 5천 (전세 6천 안고 월 100만원 나옴)
- 조건 : 산속 사찰이나 암자와 조건없이 교환 ● 부동산 사절 (주인직거래 현 포교당으로 활용하고 있음)

053)767-6705/011)508-1781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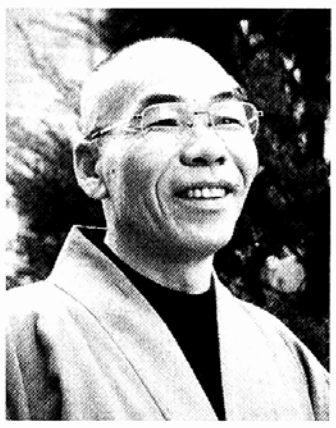
"사회·환경방생 펴겠다"

수원불교연합 성관스님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수원을 연꽃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지난해 선을 보인 '우리 꽃 심기' 생태방생을 더욱 확산시켜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고 불교의 생명사상을 자연스럽게 포교할 생각입니다."

수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성관(용화정사 주지)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월드컵 성공기원 연꽃심기' 등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2회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준비하는 등 불교의 생명사상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축제는 3월 중순경 만석공원 저수지에 연꽃을 심는 한편 연꽃이 개화하는 시점에 연꽃그림 및



재소자 등 불우이웃 돕기

수원 연꽃도시로 가꿀터

사진 전시회, 환경장터, 연꽃관련 전통음식 시연회, 문화공연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공동으로 광교산일대에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토종 야생화 심기 생태방생'을 실시해 새로운 불교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보인 스님은 "방생은 이제 기존의 물고기 방생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치는 사회적·생태적 방생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수원구치소 위문법회,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 돕기 등의 인간방생을 실천해 온 스님은 올해 '정보화 나눔운동'과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불련 경기지부 회원과 청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사찰별 무료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정보화 나눔운동은 지역의 불자와 시민들에게 인터넷 활용방법을 교육시켜 포교는 물론 불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연합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청소년 불자들을 양성하고 지역불교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농대교수불자회, 수원시약사·교사불자회, 경기도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들을 비롯 시민·환경단체들과 '환경-역사-생명의 문화도시를 위한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 스님은 수원시청불자회를 재조직해 하반기에 수원신행단체연합회도 구성할 생각이다.

성관스님은 "86년 창립이후 51개의 회원 사찰이 함께 하는 수원불교연합회는 100만여명의 수원 시민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종교계의 환경·통일·시민운동에 대한 연구·실천사업으로 통일한마당, 환경한마당을 펼치겠다"며, "3월 29일 국운회복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연합 생태방생법회를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아웅산 참사지에 위령탑

한국미얀마 불교진흥회

한국미얀마불교호법진흥회(회장 영월)는 17일 오후 12시 미얀마 양곤 인야칸페야 사원에서 한국미얀마 불교수교기념 및 아웅산 한국 외교사절단 추모위령탑 제막식을 갖는다.

미얀마 종교성이 기증한 2천여평의 부지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모위령탑을 세워 아웅산 참사로 희생된 순국영령을 추모한 영월스님은 지난해 미얀마 정부의 부지 기증으로 양곤에 미얀마 조계사를 개원했으며, 한국미얀마불교회관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17일 제막되는 추모 위령탑.

대보름 불서·백미 보시 '참방생'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방생법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스님)이 이웃과 함께하는 '참 방생'을 실천해 미담이 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회장 김우룡)는 7일 대보름법회를 마친 후 지역 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230여 가구를 조별로 직접 방문해 쌀 20㎏과 불서('삶은 고기 아니다'),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전달했다.<사진>

이 같은 '인간 방생'은 신도회가



지난해부터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는 법을, 쌀이 필요한 곳에는 생명의 곡식을 보내자'며 전개해 온 '함께 갑시다'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것. 신도회는 지난해부터 자체기금을 마련, 불서 5천여권과 법문 테이프 1만여개를 불자와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시해 왔다. 김재경 기자

인각사 가야고분서 천도재

27일 조사전 상량식도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는 20일 오전 10시 경북 고령 가야고분 현장에서 고령군의 가야고분 박물관 기공식을 기념, 위령천도재를 거행한다.

가야고분 762기에 묻혀 있던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는 이 천도재는 비디오로 상영돼 박물관에 영구 보존된다. 사찰에서 고분에 모셔진 영혼들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는 27일 오전 11시 조사전(대웅전) 상량식을 갖는다.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되는 조사전은 인각사 종합정비계획 불사의 하나다. 김재경 기자

기림사 화정당 상량문 발견

4월 판독…건립 시기 주목

경북 경주시 기림사(주지 종광)의 요사채인 화정당(和井堂) 해체수리 중 상량문이 발견돼 전각 조성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로 17.5cm·세로 6cm, 두께는 7mm의 한지로 조성된 이 상량문은 발견당시 중앙칸의 종도리에 접혀 있어 보존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12일 지류보존처리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일정기간의 보존처리 기간을 거쳐 4월초 정확한 내용을 판독하게 된다.

기림사에서 가장 오래된 대적광전(보물 833호)은 제5차 중수인 인조 7년(1629)의 전각. 4월에 화정당의 상량문이 판독되면 이보다 앞선 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발견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중단소식

조계종

범어사 장학금 전달

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2월 자비실천 하루찻집 수익금으로 조은경(동의대 동양언문학과) 하도형(중앙대학 경제학과) 등 12명에게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육개선 지침전달

교육원(원장 일면)은 8일 조계종 각 교구본사와 본·말사에 수행과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종무지침을 시달했다. 교육원은 종무지침에서 전문·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승가대학이 없는 교구에는 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의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또 재교육을 위해 종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재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종단교육계획에 의해 교육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국장 법용스님 임명

총무원 감사국장에 법용스님이 임명돼 1월 29일 임명장을 받았다. 법용스님은 1957년生으로 73년 수덕사에서 혜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99년 직지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3년 수덕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수덕사 교무·총무 국장, 용봉사·서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H·P개설

제주교구지방종회(종회의장 청운)는 지난달 16일 정기 지방종회를 열고 제주종무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종무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불교총람 태고종편 발간 △상조회 결성 △결식아동을 위한 생미공양운동 전개 등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 1억5천2백55만2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천태종

사무처장 송재스님

학교법인 금강학원 사무처장에 송재스님이 임명됐다. 이로써 금강학원 사무처는 총무원 교육부에서 완전 분리되어 대학재단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금강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송재스님은 성문사 삼개사 삼태사 주지를 거쳐 현재 서울 명락사 주지를 맡고 있다.

진각종

15일 열반절 기념불사

부처님 열반절(진각종은 양력으로 함)을 맞아 서울의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은 15일 오전 10시 열반절 기념 불사를 봉행하여 진정한 열반의 뜻을 새기고 불국토건설을 위한 용맹정진을 다짐한다.

원정각 대종사 7주기

서울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25일 오후 2시 원정각대종사 열반7주기를 맞아 추모불사 및 다례공양을 올린다. (02)2292-8730

법륜종

의식교육원 개원

20일 오전 11시 공주시 신(新)터미널 빌딩 3층에 불교의식교육원을 개원한다. 종단 차원에서 운영되는 의식교육원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상단예불, 각단예불, 불공의식 등 불교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02)733-4445

'베푸는 불교'로 도심포교 성공



광운정사 10돌 맞아 수계·공연

도심포교당인 서울 은평구 광운정사(주지 청운·사진)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3월 1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보살계수계식 및 축하 국악공연을 개최한다.

1991년 불자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은평구에 개원한 도심포교당 광운정사는 95년 광운불교대학을 개설하여 6년간 총 500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했으며, 99년에는 인천에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불교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교육과 베푸는 불교' '생활불교 실천'을 모토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가동해 신도들에게는 기도비와 인등비를 받지 않고 가족 모두의 등을 켤 수 있도록 했으며 알뜰재정으로 복지기금 2억원도 조성했다. 광운정사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군부대 위문행사와 보육원 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식아동돕기 등의 보시행을 전개하고 있다. (02)389-8966

김원우 기자

성철 기념관 내달 개원

3천여평 부지…유물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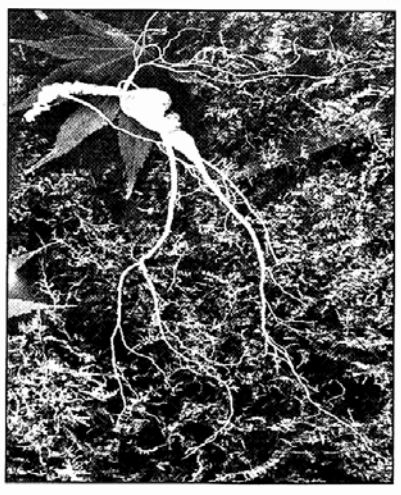
성철스님문도회는 산청군의 지원 등 5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성면 묵곡리 생가 일대 1만2천여㎡의 부지에 성철스님 기념관 등을 3년만에 완공, 3월 30일 개관한다.

기념관은 한옥 형태의 안채·사랑채와 포영각(泡影閣)·전시관 등으로 꾸며지는데 특히 전시관에는 성철스님이 생전에 사용했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비롯, 고무신 몇버선 지팡이 친필 법문집 등 각종 유품들이 전시된다. 전시관은 또 성철스님의 탄생, 출가,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발자취를 설명하는 '기대' '수행' '이해' '깨달음' 등 4개의 공간들로 이뤄진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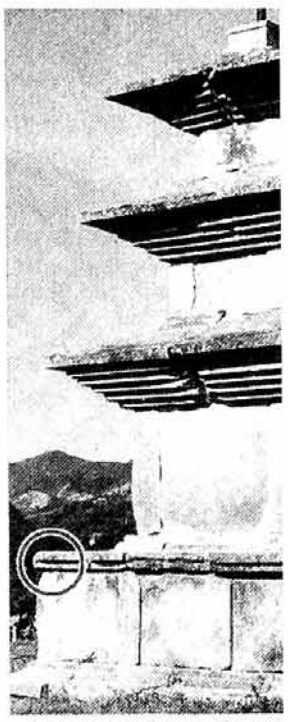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세툽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의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놓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감은사·석탑 · 석가탑 · 다보탑
훼손 심각 '내려앉을 위기'



◇국보 112호 감은사지 동탑과 서탑 모두기·균열과 중심축 이동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원내는 부실 보수로 훼손된 감은사지 동탑의 갑석 모서리 부분.

국보 제20호 다보탑과 제21호 석가탑, 제112호 감은사지 3층 석탑 등 중요 문화재들이 중병을 앓고 있다. 오랜 자연풍화 작용과 적절하지 못한 관리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가는가 하면, 복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훼손되는 등 석재문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8일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3개 탑의 훼손이 심해 적절한 보존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예정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석가탑과 다보탑 기단 위에 세운 면석의 틈이 3~4cm 정도씩 벌어지는 이완현상이 생겼고, 석재 표면에서 염분이 배어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석가탑의 경우 석재가 얇게 벗겨지는 박리 현상과 석재껍질이 다소 두껍게 일어나는 탈락현상이 생기고 있다.

다보탑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김수진교수(지구환경과학부)가 "탑 중앙부 곳곳이 검게 변색돼가고 있으며, 빗물로 인해 풍화가 촉진된 부위에 작은 구멍이 뚫리고, 표면이 떨어져 나간 곳에 이끼들이 창궐하고 있다"고 〈불국사 다보탑의 훼손현황과 보존대책〉 논문에서 훼손 사실을 밝혔으나, 당국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감은사지 3층 석탑(쌍탑)은 동탑과 서탑 모두에서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동탑의 경우 96년 보수작업을 실시했으나, 최근 3층 탑 몸체를 지탱하는 맨 아래쪽 기단부 내부의 잡석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몰하면서 그 위쪽의 덮개돌인 갑석 바깥쪽 모서리 세면이 위로 들려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석과 기단부를 싼 면석과의 사이에 손이 쏙 들어갈 정도의 틈(3~4cm)이 생겨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신문 8일 보도>

특히 동북쪽 모서리 갑석은 96년 해체 당시 원래 있던 잡석들을 들어낸 뒤 다시 채우면서 돌들을 원상대로 균일하게 배치하지 않아 그 틈 사이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감은사지 서탑도 석가탑과 마찬가지로 박리현상과 탈락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풍화로 석재에 금이 가고 중심 축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제258호 23면 기사참조>

이은자 기자

행원문화상 상금 인상
이사회, 5천만원 증자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6일 이사회를 열고 5천만원의 증자를 승인했다. 이로써 총자산이 5억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예술 역경 문학 대중예술 등 4개 부문으로 시상하던 행원문화상의 대중예술상을 예술상에 통합, 예술 · 역경 · 문화 상 3개 부문으로 하고 각각의 상금 현 3백만원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또 공석중인 이사에 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을 선임했다.

한편 제1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4일 안암동 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다.

이경숙 기자

불교 교양대 200여곳
"신입생 모집합니다"

전국 200여개 불교교양대학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일제히 개강한다.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을 비롯한 각 불교대학은 특성에 맞게 불교학과 법사과 자비심리상담과 불심호스피스과 포교봉사과 불교미술과 불교음악과 등의 다양한 학과에 폭넓은 교과목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표참조>

또 전북불교대학 등 10여개 대학은 교육시간이 맞지 않는 직장인과 타지방및 해외불자들을 위해 인터넷 동화상을 이용한 원격강의도 실시한다.

전북불교대학 이준엽 사무처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어 바른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교양대학 입학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창립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 · 제주 관음사주지)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원법회 및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전국신도회 선진규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장 중원스님은 "불교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시대고(苦) 해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스님은 최근 한라불교신문 발행인에 취임했다. 김재경 기자

주요 불교교양대학 개강일정

지역	대 학	과정	전 화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년	02-720-1390
	동산불교대학	2년	02-732-1206
	동방불교대학	2년	02-763-0229
	대원불교대학	2년	02-773-9171
	무불선대학원	2년	02-541-0002
	범음대학	3년	02-392-3007
	한국불교법사대학	1년 2년	02-720-1836
	삼화불교대학	2년 4년	02-511-2026
	전통의식교육대학	1년	02-967-7093
	광운불교대학	1년	02-389-8966
	만대교학대학원	2년	02-931-6075
	금강불교대학	1년 2년	02-576-6401
	한국불교통신대학	1년	02-962-1666
	한국불교예술대학	1년	02-969-2410
	승가대불전연구원	6개월	02-929-9991
	봉은사불교대학	5개월	02-516-5652
	구룡사불교대학	5개월	02-575-7766
	능인선원불교대학	4개월	02-577-5800
	화계사불교대학	2년	02-902-2663
	삼보사불교대학	4개월	02-352-6404
	KBUF아카데미	1년	02-732-0239
	만해대학	1년	02-739-4448
	정토불교대학	2년	02-587-8993
	불교사회복지대학	1년	02-723-5101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	1년	051-462-5670
	불교교육대학	1년	051-867-9944
	금정불교대학	4개월	051-866-7277
	동련불교대학	1년	051-852-5414
	동국불교전법대학	4년	051-642-6242
	만물불교대학	1년	051-524-7364
	부산불교교육원	1년	051-466-4080
광주	광주불교문화대학	1년 2년	062-228-9098
	호남불교대학	1년 2년	062-222-0819
	광주불교대학	1년 2년	062-375-7603
대구	영남불교대학	1년	053-474-8228
	경북불교대학	1년	053-792-1353
	대구불교교육원	1년	053-253-7063
	대구불교대학	2년	053-256-3725
	보현사불교대학	3개월	053-254-6966
대전	보현불교대학	2년	042-624-6555
	화엄불교대학	1년	042-822-9219
울산	울산불교교육원	4개월	052-266-3318
	정토사불교대학	1년	052-258-9944
인천	부루나불교대학	6개월	032-576-9741
경기	경기불교대학	1년	031-245-7048
	봉선사불교대학	10개월	031-527-5974
강원	강원불교대학	1년	033-252-5040
전남	목포불교대학	2년	061-279-0577
	해남불교대학	1년	061-534-3355
	강진불교대학	1년	061-432-0837
전북	전북불교대학	1년 2년	063-226-7878
	회연불교대학	1년	063-251-4942
	이리불교대학	2년	063-854-1578
	군산불교대학	1년	063-445-4562
	남원불교대학	1년	063-632-6936
충북	충북불교대학	1년	043-263-2329
	충북불교교양대	1년	043-646-3047
경북	불국사부설교육원	3개월	054-743-1106
	포항불교대학	1년	054-247-4688
경남	진주불교대학	1년	055-747-0108
	영축불교대학	1년 2년	055-246-8393
	성주사불교대학	4개월	055-262-0108
제주	제주불교문화대학	1년	064-722-2829

장기기증 등록 7년새 18배

생명나눔회 집계…40대 기증률 최고

생명나눔실천회의 장기기증 등록자가 94년 170명에서 2000년 2,969명으로 7년새 18배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스님들의 장기기증도 활발했다.

오는 3월로 창립 7주년을 맞는 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 장기기증 현황에 따르면 사후각막기증은 94년 157명에서 지난해에는 2,376명으로 늘었으며, 뇌사시 장기기증도 94년 7명에서 지난해 362명으로 증가했다. 신장 · 골수기증 등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94년 170명에서 2000년 2,967명으로 18배 늘어났다.

등록자 실태를 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24.7%, 30대가 24.4%, 50대가 14.7% 순이었다. 불교신앙활동을 하는 세대가 4 · 50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들 중년층이 장기이식에 대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자가 2,939명, 남자가 2,835명으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주부 · 학생 · 60대 이상 고령자가 4,990명(86.4%)으로 나타났으며, 스님도 719명(12.5%)이나 됐다. 기증자의 종교분포는 불교가 5,618명으로 압도적이었으나 개신교 90명, 천주교 35명 등 타종교인의 기증도 적지 않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ohapia.com)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사찰돌며 강도행각
20대 남자 2명 영장

영동경찰서는 5일 전국의 사찰을 돌며 스님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정모씨(26)와 김모씨(29)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5일 오전 8시께 등산객을 가장해 영동 용현사에 들어가 "어머니가 영동 관음사에 있어 찾으러 왔다"며 주지 스님 등 4명과 차를 마신뒤 갑자기 강도로 돌변, 스님 등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400여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들은 사찰에 들어갔다 나온 일당의 염탐결과에 따라 미리 전화선을 절단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대기시켜 놓는 등 철저한 범행계획을 세운뒤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침입, 청테이프 등으로 스님들을 묶고 금품을 강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경 기자

도와주세요

간이식 수술 이동성 법사



20여년간 불교포교를 위해 헌신해 온 이동성 법사(46, 장엄포교원장)가 급성간염으로 지난 1일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주위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사가 갑작스레 급성간염이 발병한 것은 지난해 12월말. 간이식만이 유일한 생존수단이었던 이 법사는 서울 중앙병원에서 아내와 조카로부터 간을 이식받는 22시간의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1억5천여만원이나 드는 수술비와 치료비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수술비 착수금 8800만원은 포교원 임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했지만 나머지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 게다가 수술 후 월 150만원이나 드는 치료비를 2년간 부담하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처지다.

도움주실 분은 (043)646-3023(장엄포교원), 국민은행 403-21-0931-745, 농협 421012-52-243141(이상 예금주 최경환)을 이용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료 거저)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료 거저)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2월 24일까지
· 전 형 방 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E-mail :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분교 TEL 047) 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 스 :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팩 스 : 02-511-1080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하얀 눈 위 푸른나무…"겨울산은 살아있다"



◇아기의 봉우물 같은 토끼 발자국. 무얼 하러 길을 나섰을까?

계절의 꼭지점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간사함은 다음과 같은 야릇한 인간 규정을 이끌어낸다.

'스스로를 혐오하는 동물.'

왜, 어떻게 인간은 자기 혐오에 이르는가. 이를테면 이런 거다. 꽃 타령 새 타령에 넋을 잃다가도 봄 가뭄의 조짐이라도 보일라치면 여름 소나기를 기다리고, 막상 여름이 닥쳐 삼 일 장마만 져도 하늘을 보며 상을 찌푸린다. 어디 그뿐인가. 청명한 가을 하늘에 찬사를 보내다가도, 오직 낙엽 밟는 소리만 들으며 한 나절만 걷고 나면 차라리 눈 쌓인 길이었으면 하고 지겨워 한다. 이러고도 어찌 스스로를 혐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연의 순환은 인간의 자기 혐오가 파멸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곡지점 다음의 빗면을 미끄러져 내리듯 경쾌하게, 다음 계절로 감성의 촉수를 인도하며 또 경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지금은 겨울. 대지와 입맞춤할 날을 기다리는 보습처럼 '푹 쉬어 가는' 계절. 부지런떨지 않아도 눈치 보이지 않는 때. 그래, 이런 계절에는 번뇌마저도 푹 쉬게 하자.

백두대간 속으로 〈29〉

덕항산 → 큰재

길게 누운 백두대간 솜이불 덮은듯
덕항산 봉우리 높은 파도처럼 보여

입춘이 지났다고 하나 아직 백두대간의 등성마루는 겨울 깊은 곳에 누워 있다. 그것도 아주 두터운 솜이불 같은 눈을 덮고서. 그 모습이 마치 고집 센 노인의 표정없는 얼굴 같다. 하지만 이제 곧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굳은 표정을 풀고 아주 익숙한 솜씨로 산과 계곡을 흔들어 깨우겠지. 먼저 계곡의 겨드랑이를 간질러 물을 흘려보내면, 저 아래서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흐르던 강물도 어깨를 들썩이며 들판을 적실 테고.

백두대간이 강원도 깊숙이로 들어설수록 산기슭에 불어서는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다. 잰 걸음으로 달려도 영월, 정선, 태백을 지나면 벌써 해거름이다.

산행 들머리인 태백시 하장면 하사미동의 외나무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다. 그래도 달이 먼저 산에 올라 길을 밝혀 주니 적이 위안이 된다. 아직 반도 차오르지 못한 달이지만 보름을 며칠 앞둔 상현달이어서 일찍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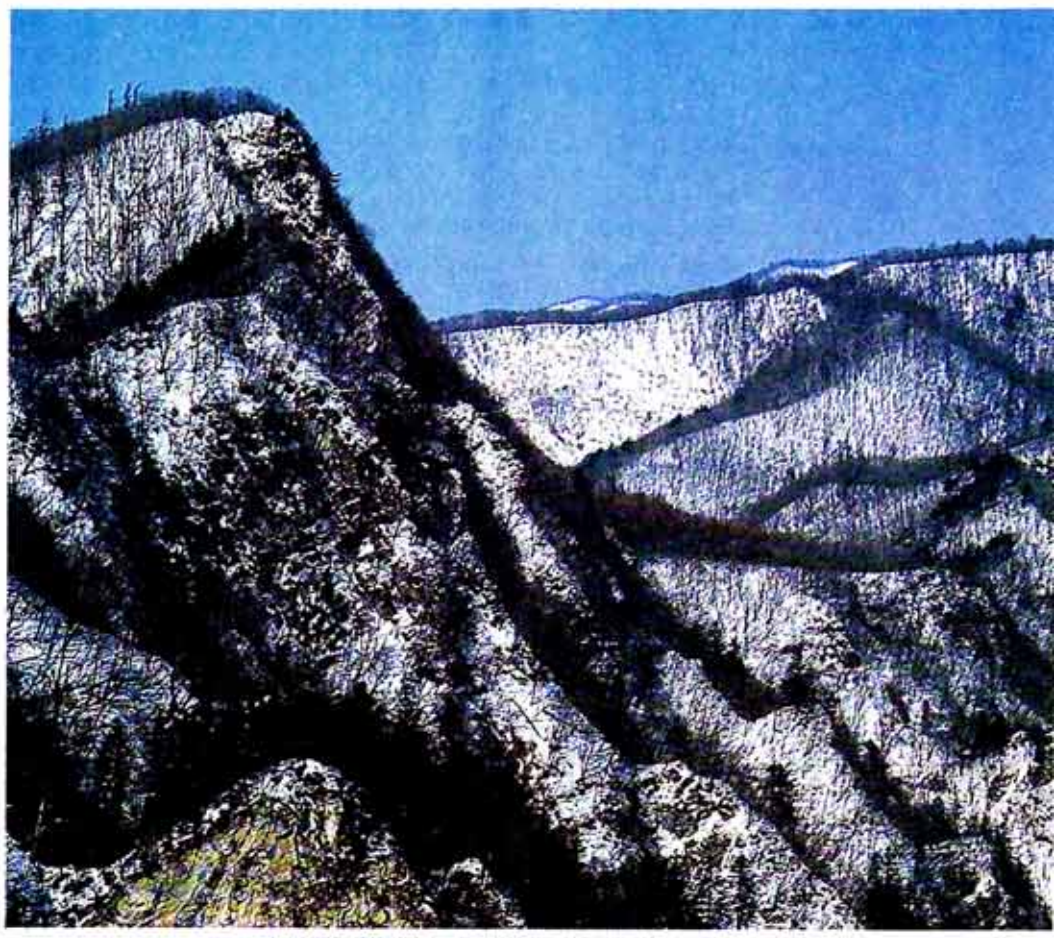
눈 쌓인 산 기슭으로 흘러내리는 달빛은, 거두어 담고 싶을 정도로 그윽하다. 걸음을 바꿀 때마다 얼어붙은 눈 알갱이들이 반짝인다. 땅으로 내려앉은 별 여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느낌도 한 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번 산행 이후 더 눈이 쌓였기 때문이다. 보름 전에 엷어 두었던 발길은 ㅇ미 흔적조차 없다.

어느 새 눈에 대한 내 감성의 기복은 바삐 높낮이를 바꾸며 이성과 균열을 일으킨다. 이불을 뒤집어쓰고도 눈에 아른거려 한달음에 달려온 '그리운 산'이 한 순간에 '지겨운 산'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곤혹스러운 것은, 이러한 느낌의 어느 쪽이 이성에 따른 반응이고 어느 쪽이 감성의 발로인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모르겠다.



◇구르는 듯 휘저어가는 듯 눈길을 헤쳐가는 취재팀. 그야말로 대간의 품속으로 안기는 걸음이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과 뾰족한 봉우리로 이루어진 덕항산의 동북쪽 기슭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도 한 순간이다. 어느 샌가 체념과 인내는 어깨동무를 하고, 오로지 목표로 삼은 덕항산 꼭대기만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게 하니까.

구부시령(960m)에서 덕항산(1070.7m)까지는 오르내림이 있긴 하지만 도상 거리로 1km도 되지 않아 평상시 같으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눈덮인 겨울산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산술적 평균치 따위는 아멈차게 조롱한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계적 분절로서의 시간이란 마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인간의 현명함이란 자연의 흐름에 인간의 호흡과 맥박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자연을 만만히 보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상 이변과 같은 자연 재해도 인간의 자기 과신과 오만이 부른 낭패의 가장 나쁜 형태다.

산에서건 들에서건 바다에서건,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시키는 대로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다.

산행 시작 4시간 가까이 지나니 간신히 덕항산 정상이다. 본래 정상 언저리가 넓지 않은데다 동쪽 기슭은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아슬아슬한 형국인데, 바람이 옮겨다 놓은 눈까지 솟구쳐 오른 모습은 마치 산처럼 높은 파도가 한 순간에 멈추어 굳은 듯하다.

허리를 껑충 넘는 눈을 다져 터를 만들고 그립 같은(?) 집 한 채 짓는다. 이 정도면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걷는다기보다는 구르듯 덕항산을 내려서면 첫 잘록이에서 오른쪽으로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골말로 내려가는 철계단을 만난다. 이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덕항산의 자태를 살핀다. 바지랑대 없이도 빨래줄을 묶을 수 있을 듯 날카로운 봉우리들이 이웃해 있는 모습이다. 서쪽으로는 완만하지만 동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이 일대 산들의 전형을 본다. 매봉산과 두타산 사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모습으로 숨어 있던 덕항산이 불쑥 얼굴을 내밀며 짓궂은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눈 속으로 스며들 듯 두더지 굴 파듯,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나아가도, 역시 길은 가는 자의 몫이다. 환선굴로 내려서는 자암재 지나, 광동댐이 만들어지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채소밭을 일구고 사는 귀내미골을 거쳐 마침내 큰재.

또 눈발이 흩날린다. 하루종일 눈에 시달렸는데도 싫지 않다. 겨울의 황량함을 덮고도 남을 포근함이다.

한결 넉넉해진 마음으로 먼 산을 보노라니 하얀 산마루 위로 가물가물 솟은 나무들이 보송보송한 솜털 같다. 아, 겨울 산은 저렇게 '살아' 있었구나.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채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